

기획연구과제 2019-법인-10-다
(연구기간: 2019.9.1.~2019.12.31.)

(100-20190117)

서울대학교 학부생 설문조사 개발 : 서울대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

A Research to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Experience Survey

2020. 2. 14.



연구책임자 : 홍기선(영어영문학과)

본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기된 의견이나 내용은 서울대학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부생 설문조사 개발”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0. 2. 14.

연구책임자 홍기선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참여연구원 구민교 (행정대학원/국제협력본부장)
김동일 (사범대학 교육학과/대학생활문화원장)
남성현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관악생활관 부관장)
이상원 (법학전문대학원/인권센터장)
박성춘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유명순 (보건대학원 교수)
남지은 (대학생활문화원 조교)
배유경 (다양성위원회 책임전문위원)
윤숙경 (대학생활문화원 전문위원)
이정희 (국제협력본부 담당관)
이주영 (인권센터 전문위원)
장지선 (관악학생생활관 대표조교)
연구보조원 전은선 (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울 (다양성위원회 직원)
송민해 (심리학과 석사과정, 통계분석)

목차

I. 조사 개요	1
1. 기획 의도	1
2. 주요 특징	2
3. 조사 시행과 주요내용	3
II.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 분석	4
1. 응답자 특성	4
1) 재적상태와 소속대학	4
2) 학번과 이수학기	6
3) 전공과정	7
4) 성별	8
5) 국적	8
6) 해외 경험	9
7) 주거형태	10
2. 대학생활 전반	11
1) 삶의 만족도	11
2) 대학생활 만족도	15
3)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20
4)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1
5)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하기	22
3. 성장: 학업과 다양한 경험	25
1) 지식과 기술	25
2) 능력과 자세	26
3) 이번 학기 경험	28
4) 진로선택	31
5)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	33
4. 생활: 몸과 마음의 건강	35
1) 생활시간	35
2) 건강관리	41
3) 가장 힘이 되는 것	44
4) 등록금 재원	45
5) 생활비 재원	46
6) 고민 상담	49
7) 자유로운 한 학기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	49

5. 환경: 서울대의 문화와 인식	52
1)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52
2) 학우들과의 교류기회	52
3) 배려 또는 차별 경험	55
4) 서울대 문화와 사회공헌	61
5)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	62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67
III. 정책 제언	70
1. 단기과제	70
1) 학생제안 우선과제	70
2) 대학생활 지원	71
3) 기타 제안	72
2. 중장기과제	73
1) 학부교육의 방향 전환	73
2) 서울대 문화와 환경 개선	74
3) 다양성/인권 증진	75
부록	77
부록1. 설문지 개발에 참고한 선행연구 목록	77
부록2. 서울대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국문 설문지)	78
부록3. SNU Undergraduate Quality of Life Survey (영문 설문지)	88

표 목차

<표 1-1> 설문지의 문항 구성	3
<표 2-1> 응답자의 재적상태별 분포	4
<표 2-2> 응답자의 단과대학별 분포	5
<표 2-3> 응답자의 학번별 분포	6
<표 2-4> 응답자의 이수학기별 분포	6
<표 2-5> 응답자의 계절학기 이수 분포	7
<표 2-6> 학년별 계절학기 미수강 인원	7
<표 2-7> 전공유형별 분포	8
<표 2-8> 응답자의 성별 분포	8
<표 2-9> 응답자의 국가별 분포	8
<표 2-10> 해외 경험 유형별 분포	9
<표 2-11> 해외 경험 유형 재분류	9
<표 2-12> 응답자의 주거형태 재분류	10
<표 2-13> 기숙사 거주 학생의 학년 분포	10
<표 2-14> 삶의 만족도	11
<표 2-15> 삶의 만족도 척도를 활용한 국내 조사 결과	12
<표 2-16> 단과대학별 삶의 만족도	13
<표 2-17> 학년별 삶의 만족도	13
<표 2-18> 주거형태별 삶의 만족도	14
<표 2-19> 국적별 삶의 만족도	14
<표 2-20> 대학생활 만족도	15
<표 2-21> 단과대학별 대학생활 만족도	17
<표 2-22> 이수학기별 대학생활 만족도	18
<표 2-23> 학년별 대학생활 만족도	18
<표 2-24> 해외 경험과 대학생활 만족도	18
<표 2-25> 주거형태별 대학생활 만족도	19
<표 2-26> 국적별 대학생활 만족도	19
<표 2-27>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하기	22

<표 2-28> 지식과 기술	25
<표 2-29> 능력과 자세	27
<표 2-30> 이번 학기 경험	28
<표 2-31> 단과대학별 이번 학기 경험	29
<표 2-32> 학년별 이번 학기 경험	30
<표 2-33> 전공과정별 이번 학기 경험	31
<표 2-34> 해외 경험별 이번 학기 경험	31
<표 2-35> 주거형태별 이번 학기 경험	31
<표 2-36> 졸업 후 진로 방향	32
<표 2-37> 나를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	33
<표 2-38> 일주일 생활시간 분포	35
<표 2-39> 기숙사생과 비기숙사생의 통학시간	37
<표 2-40> 단과대학별 생활시간 분포	37
<표 2-41> 학년별 생활시간 분포	39
<표 2-42> 해외 경험별 생활시간 분포	40
<표 2-43> 주거형태별 생활시간 분포	40
<표 2-44> 국적별 생활시간 분포	41
<표 2-45> 건강관리 응답 분포	41
<표 2-46> 단과대학별 건강관리 평균 분포	42
<표 2-47> 학년별 건강관리 평균 분포	43
<표 2-48> 성별 건강관리 평균 분포	43
<표 2-49> 국적별 건강관리 평균 비교	43
<표 2-50> 등록금의 재원 분포	45
<표 2-51> 해외 경험별 등록금 재원 분포	45
<표 2-52> 주거형태별 등록금 재원 분포	46
<표 2-53> 성별 등록금 재원 분포	46
<표 2-54> 국적별 등록금 재원 분포	46
<표 2-55> 생활비 재원 분포	47
<표 2-56> 해외 경험별 생활비 재원 분포	47
<표 2-57> 주거형태별 생활비 재원 분포	47

<표 2-58> 성별 생활비 재원 분포	48
<표 2-59> 국적별 생활비 재원 분포	48
<표 2-60> 고민상담 대상	49
<표 2-61> 자유로운 한 학기에 하고 싶은 것	49
<표 2-62>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52
<표 2-63>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	53
<표 2-64>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	54
<표 2-65> 남학생의 다양한 학우들과 교류기회	54
<표 2-66> 여학생의 다양한 학우들과 교류기회	55
<표 2-67> 이번 학기의 배려 또는 차별 경험	55
<표 2-68> 외국인 학생의 배려 또는 차별 경험	57
<표 2-69> 남학생의 배려 또는 차별 경험	58
<표 2-70> 여학생의 배려 또는 차별 경험	59
<표 2-71> 서울대 문화와 사회공헌에 대한 의견	61
<표 2-72> 외국인 학생의 서울대 문화와 사회공헌에 대한 의견	62
<표 2-73>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문제점/제안)	62
<표 2-74>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 재분류(만족/칭찬)	65
<표 2-7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67
<표 3-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기과제	73
<표 3-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과제	76
<표 4-1> 학내 참고자료 목록	77
<표 4-2> 국내외 참고자료 목록	77

그림 목차

<그림 2-1> 단과대학별 응답률	5
<그림 2-2>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	7
<그림 2-3> 응답자의 주거형태별 분포	10
<그림 2-4> 삶의 만족도 점수 분포도	12
<그림 2-5> 단과대학별 삶의 만족도	13
<그림 2-6>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비교	16
<그림 2-7> 대학생활 만족도 점수 분포도	16
<그림 2-8> 단과대학별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비교	17
<그림 2-9> 이수학기별 대학생활 만족도	18
<그림 2-10> 국적별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비교	19
<그림 2-11>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20
<그림 2-12>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21
<그림 2-13>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21
<그림 2-14>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2
<그림 2-15>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하기	24
<그림 2-16>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하기	24
<그림 2-17> 지식과 기술 점수 분포도	26
<그림 2-18> 능력과 자세 점수 분포도	28
<그림 2-19> 이번 학기 경험 점수 분포도	29
<그림 2-20> 단과대학별 이번 학기 경험 비교	30
<그림 2-21> 학년별 졸업 후 희망진로	32
<그림 2-22> 나를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	34
<그림 2-23> 생활시간 활동별 시간 분포도	35
<그림 2-24> 단과대학별 학습 및 활동 시간 분포	38
<그림 2-25> 단과대학별 건강관리와 여가시간 분포	39
<그림 2-26> 건강관리 점수 분포도	42
<그림 2-27> 학년별 탈진상태 응답 분포	44
<그림 2-28> 대학생활에 가장 힘이 되는 것	44

<그림 2-29> 자유로운 한 학기에 하고 싶은 것	51
<그림 2-30> 이번 학기 차별 경험	56
<그림 2-31> 그룹별 이번 학기 차별 경험	60
<그림 2-32>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문제점/제안)	65
<그림 2-33>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만족/칭찬)	66
<그림 2-3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69

I. 조사 개요

1. 기획 의도

학교가 구성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전에 우선 구성원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대는 고교 조기졸업자인 10대 후반의 학생부터 60대 중반의 교원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위의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 구성원의 연령이 다양하며, 학생, 교원, 연구원, 직원 등 주어진 역할 또한 그러하다. 더구나 2019년에 드디어 2000년생 신입생들이 구성원으로 들어왔다. 지난해는 베스트셀러가 된 『90년대생이 온다』(임홍택 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성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의견 수렴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처음에는 모든 구성원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통 문항(예: 삶의 만족도)과 그룹마다 개별 문항(예: 학부생의 교과/비교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약 4만여 명인 학생의 경우도 학부와 대학원의 개별 문항이 많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교원/연구원과 직원 또한 차이가 크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부생 조사를 출발점으로 앞으로 그룹별로 고유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학내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재학생이나 졸업생 대상의 대학 생활 의견조사, 인권센터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등이 있었으나 학부생의 '삶의 질'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설문지 개발의 초기단계부터 국제협력본부, 관악학생생활관, 대학생활문화원, 인권센터와 다양성위원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내용의 설문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외 대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지난 몇 년 간 학내에서 이루어진 조사 보고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새로운 설문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회의를 거듭 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는 개인의 성장과 안녕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면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도록 건강한 대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설문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본부에 제안하는 것과 동시에 5개 기관이 각자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찾아보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학생들은 한 해에 여러 번 이와 같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제출한 의견이 실제 대학의 운영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체감하는 기회는 많지 않다. 5개 기관이 참여한 연구팀은 이번 조사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강한 의지도 공유하게 되었다.

본 조사는 5개 기관이 협업하여 조사를 준비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이며, 대학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새롭다. 다행히 많은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연구팀의 숙제로 주어졌다.

2. 주요 특징

앞서 설문지 개발과정에서 조사대상을 학부생으로 한정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존재 이유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학부생에게 전인교육을 통해 고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 고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짜여진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며, 점점 비교과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다. 더불어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 안정적인 대학생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등의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생은 교육서비스의 대상인 동시에 각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학교는 해마다 다양한 구성원의 대학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2018년에 평의원회가 기획한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만족도 조사』(연구책임자: 조성일 보건대학원 교수)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고서는 학생복지를 생활복지, 건강복지, 문화복지, 주거 및 교통복지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만족도와 고충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본 조사는 학생의 삶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안녕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학생이 느끼는 학업문제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재정 상태나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 고립감 또는 소속감 결여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연구팀은 또한 설문지를 개발하면서 설문조사 참여 자체가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본 조사는 학업과 대학생활을 포함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와 고충사항을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점, 문항을 통해서 서울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비전을 공유한다는 점, 대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예: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 등)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교육적 도구로서의 기능 역시 갖고 있다. 설문지 응답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일주일 생활시간, 건강관리,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균형 있는 성장과 인적 교류 등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부정적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진취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많이 읽고 있는 『평균의 종말』(토드 로즈 저)은 그동안 사람들이 맹신한 평균의 함정을 꼬집었고, 『팩트폴니스』(한스 로슬링 저)는 부정적 사고, 극단적 사고, 일반화의 오류 등을 지적하고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장하였다. 즉 통계의 불분명한 사용은 현실을 왜곡하고, 그룹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문항마다 평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의 응답 분포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단과대학별 비교 또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모든 문항에 대해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될 때에만 언급하였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학교 차원에서 전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즉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3. 조사 시행과 주요내용

‘서울대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는 2019년 11월 5일(화)부터 11월 17일(일) 자정까지 약 2주 간 서울대 포털의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인원은 총 4,500명으로 이 중 응답을 완료하지 않은 17명을 제외한 4,48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군 복무중인 학생들의 참여는 연구팀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응답률은 약 22%로 온라인 설문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미응답자에게 여러 차례 설문조사 메일을 발송하였고, 경품도 제공하는 등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문 설문지를 먼저 발송하고, 이후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영문 설문지를 추가로 발송하였다. 설문조사에 이용한 설문지는 기획연구팀에서 대학생 또는 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참조하고, 학내 기존 설문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개발하였다. 특히 설문지 개발의 최종 단계에서 변경한 부분은 첫째, 학교 제공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문항은 기존 연구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였고, 둘째, 모바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화면 구성에서 설문지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문항의 선택지 수를 줄이거나,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경하였다. 이번 설문지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아쉬웠던 문항으로 휴학생을 대상으로 휴학한 이유(군대, 취업준비, 인턴, 건강, 돈, 휴식 등)에 대한 질문, 학습에 대한 문항 중 ‘능력 과 자세’ 부분에서 지식을 실세계에 적용하는 능력에 대한 질문, 또 해당 문항 아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5개 기관이 참여한 기획연구팀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 개발 최종단계에서는 만들어 놓은 많은 문항 중 이번 조사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문항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완성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 설문지의 문항 구성

	영역	문항 내용	번호
I	전반	삶의 만족도(SWLS), 대학생활 만족도,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	1-5
II	성장: 학업과 다양한 경험	능력개발(지식과 기술, 능력과 자세), 이번 학기 경험에 가까운 것, 졸업 후 진로,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	6-10
III	생활: 몸과 마음의 건강	일주일 생활시간, 건강상태, 대학생활에 힘이 되는 것, 등록금 지원, 생활비 지원, 고민상담 대상, 자유로운 한 학기에 하고 싶은 것	11-17
IV	환경: 서울대의 문화와 인식	전반적인 분위기, 다양한 학우들과 교류기회, 배려와 차별 경험, 서울대 문화(환경) 평가, 생활 전반의 추가의견, 삶의 질 향상 제안	18-29
V	인적사항	재적상태, 학번, 정규학기/계절학기 이수, 소속대학, 전공과정, 법적 성별, 국적, 해외 경험, 주거형태	30-39

설문지는 총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제적인 비교를 위한 삶의 만족도 문항과 대학생활 만족도만 삶의 만족도 문항과의 비교를 위해 7점 척도를 쓰고, 나머지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영역마다 1~2개의 주관식 문항을 넣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주관식 문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항마다 수 천 개의 응답이 제시되어 이를 분류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수 의견 이외에도 소수의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대분류부터 소분류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분류를 시도하였다.

II.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 분석

1. 응답자 특성

1) 재적상태와 소속대학

설문조사의 대상은 재학생과 휴학생, 수료생을 포함한 학부생 전체이다. 설문조사시스템을 통해 학부생 전체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외국인 학생은 별도로 영문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4,483명 중 재학생과 휴학생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정규학위과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송하였으나 교환·방문학생 18명의 자료가 의도치 않게 포함되었다. 하지만 총 인원의 0.4%에 불과하여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통계분석 시 제외시키지 않았다.

<표 2-1> 응답자의 재적상태별 분포

(단위: 명, %)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교환/방문학생	합계
인원	3,887	565	13	18	4,483
비율	86.7	12.6	0.3	0.4	100.0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8』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서울대 학부 재학생은 15,882명, 휴학생은 4,521명이며, 이중 외국인 재학생 189명과 휴학생 9명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2학기 학부생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18년 10월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학부생의 약 22%(재학생의 25%, 휴학생의 13%, 외국인 학생의 35%)가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률로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한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에 관심이 있고 학교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개시한 첫 24시간 내에 응답한 1,900명 학생들의 응답을 중간 확인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78%의 학생들은 이와 다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대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을 물어보았으며, 소속 단과대학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2-2> 응답자의 단과대학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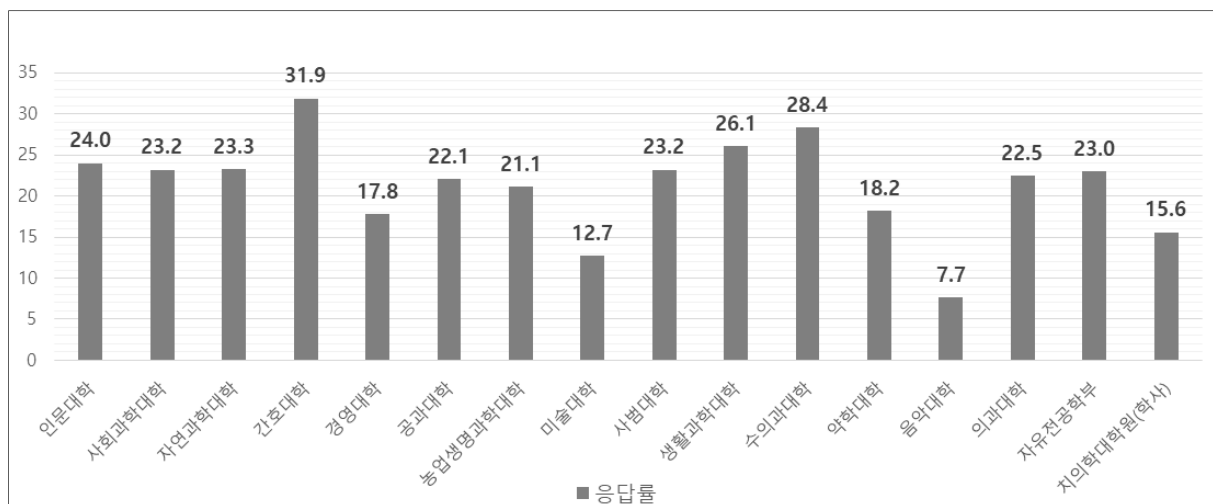
(단위: 명, %)

소속	인원	비율	소속	인원	비율
인문대학	449	10.0	사범대학	436	9.7
사회과학대학	614	13.7	생활과학대학	157	3.5
자연과학대학	339	7.6	수의과대학	93	2.1
간호대학	102	2.3	약학대학	51	1.1
경영대학	190	4.2	음악대학	56	1.2
공과대학	1,090	24.3	의과대학	195	4.3
농업생명과학대학	387	8.6	자유전공학부	221	4.9
미술대학	82	1.8	치의학대학원(학사)	21	0.5
합계				4,483	100.0

위 표에서 16개 단과대학 중 치의학대학원은 학제 개편을 통해 2014년 3월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을 신설하였다. 학사-전문석사 통합과정은 학사과정 3년, 전문석사과정 4년의 총 7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설명에서 다른 단과대학과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응답자의 숫자만 보면 가장 많이 응답한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사범대학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단과대학마다 재적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과대학별 정원 대비 응답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과대학별 재적생 수는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8』(2019년 10월 발간)의 2018년 10월 1일 기준 자료를 참조하여, 2019년 11월의 재적생 수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그림 2-1> 단과대학별 응답률

(단위: %)



<그림 2-1>을 보면, 정원 대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순이다. 반면 정원 대비 응답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음악대학, 미술대학, 치의학대학원(학사과정), 경영대학, 약학대학 순이다. 전체 응답률이 22%인 점을 감안하면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단과대학별 응답률 자체가 학교의 이메일을 읽고 그에 응답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단과대학별 입학생의 특성, 단과대학의 분위기, 학생들의 시간 여유, 학생들 간 소통, 학교에 대한 소속감/유대감 등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주거형태를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를 확인한 결과 휴학생이면서 군대에 복무 중인 학생들도 1.1% 정도 조사에 참여하여 이들의 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2) 학번과 이수학기

먼저 응답자의 학번을 알아보았다. 학번은 19학번부터 11학번까지 물어보고, 그 이상 학번은 기타에 포함시켰다. 아래 표를 보면 19학번부터 15학번까지 700명 전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14학번, 13학번도 적지 않은 수를 나타냈다.

<표 2-3> 응답자의 학번별 분포

(단위: 명, %)

	19학번	18학번	17학번	16학번	15학번	14학번	13학번	12학번	11학번	기타	합계
인원	780	706	658	727	696	534	254	90	28	10	4,483
비율	17.4	15.7	14.7	16.2	15.5	11.9	5.7	2.0	0.6	0.2	100.0

학번에 이어 서울대에서 정규학기(봄, 가을학기)를 몇 학기 마쳤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수학기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0학기라고 응답한 학생은 2019년 가을학기에 입학한 글로벌인재 특별전형(외국인 또는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신입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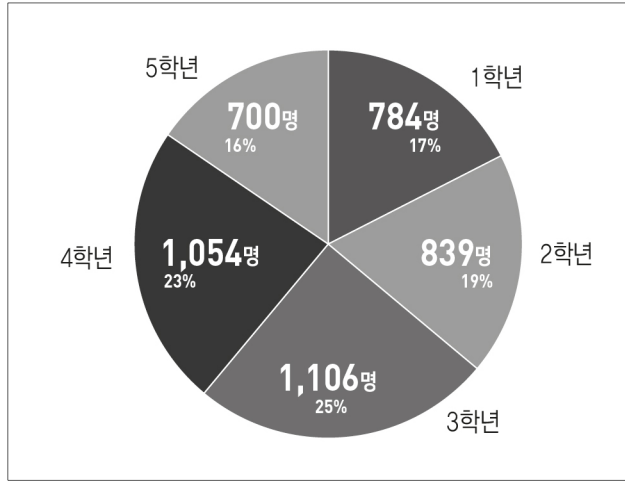
<표 2-4> 응답자의 이수학기별 분포

(단위: 명, %)

학기	인원	비율	학기	인원	비율
0학기	20	0.4	7학기	739	16.5
1학기	764	17.0	8학기	288	6.4
2학기	86	1.9	9학기	237	5.3
3학기	753	16.8	10학기	82	1.8
4학기	307	6.8	11학기	61	1.4
5학기	799	17.8	12학기	15	0.3
6학기	315	7.0	13학기 이상	17	0.4
합계				4,483	100.0

위의 이수학기를 2학기씩 묶어서 학년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학기 이상의 2.1%는 5학년에 포함시켰다. 아래 표를 보면 3학년, 4학년 순으로 빈도가 높다.

<그림 2-2>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



학과와 학년 분포를 고려해 볼 때 서울대 학부 졸업은 대체로 5년 정도 수학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포함하면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계절학기 이수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응답자의 계절학기 이수 분포

(단위: 명, %)

학기	해당 없음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이상	합계
인원	1,111	1,265	1,033	648	281	85	42	10	8	4,483
비율	24.8	28.2	23.0	14.5	6.3	1.9	0.9	0.2	0.2	100.0

응답자의 4명 중 1명은 계절학기를 수강한 적이 없으며, 한 학기와 두 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계절학기 미수강 인원을 학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학년별 계절학기 미수강 인원

(단위: 명,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합계
인원	458	268	191	113	81	1,111
비율	41.2	24.1	17.2	10.2	7.3	100.0

3) 전공과정

학생들의 전공과정 유형을 알아보았다. 학생설계전공을 선택한/할 학생들이 단일전공, 다전공, 선택예정예 복수응답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추적이 불가능하여 단일 전공으로 처리하였다. 전공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전공유형별 분포

(단위: 명, %)

	단일 전공	다전공	선택예정	교환/방문학생	합계
인원	2,415	1,510	534	24	4,483
비율	53.9	33.7	11.9	0.5	100.0

4) 성별

응답자의 법적 성별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재적생의 여학생 비율은 36.3%지만,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41.9%로 응답자 중 여학생 비율은 이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2018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학부 휴학생 중 남학생은 83.7%를 차지하며, 그 중 많은 학생이 군대에 있어 설문응답률이 여학생보다 저조했을 수 있다.

<표 2-8> 응답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남성	여성	합계
인원	2,514	1,969	4,483
비율	56.1	43.9	100.0

5) 국적

응답자의 국적을 물어보았으며,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정규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의 국적은 총 102개국이며, 이중 37개국이 응답자에 포함되어있다. 내국인 학생에게는 국문 설문지를, 외국인 학생에게는 영문 설문지를 별도로 발송하여 이것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 2-9> 응답자의 국가별 분포

(단위: 명)

국가	대한민국	네팔	대만	독일	라오스
인원	4,417	1	2	3	1
국가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미얀마(버마)
인원	1	4	8	11	1
국가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스웨덴	아르메니아
인원	1	2	2	1	1
국가	아프가니스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인원	1	1	1	1	2
국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인원	3	2	1	2	1

국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인원	2	1	7	3	3
국가	케냐	키르기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	폴란드
인원	1	1	1	1	1
국가	프랑스	필리핀	호주	합계	
인원	1	2	1	4,483	

6) 해외 경험

여행을 포함한 해외 경험은 대학 입학 전·후를 모두 포함하며, 교환·방문학생 경험도 함께 알아보았다.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해외 경험의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10> 해외 경험 유형별 분포

(단위: 명)

유형	인원	비율
없음	900	15.6
여행	2,777	48.1
1달 이내 단기연수 또는 봉사활동	758	13.1
1학기 교환/방문학생	363	6.3
1년 교환/방문학생	78	1.4
대학 입학 전 1년 이내 거주	250	4.3
대학 입학 전 1년 이상 거주	514	8.9
해외에서 출생하고 성장	76	1.3
대학 입학	34	0.6
기타	24	0.4
합계	5,774	100.0

* 해외경험 없음 900명은 해외경험 없음과 여행을 복수로 응답한 숫자이며, 보다 정확한 숫자는 <표 2-11>임

위의 해외 경험을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복수응답으로 인해 약간의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학 전 해외경험의 사례가 워낙 다양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재분류하면 해외경험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7%로 나타났다.

<표 2-11> 해외 경험 유형 재분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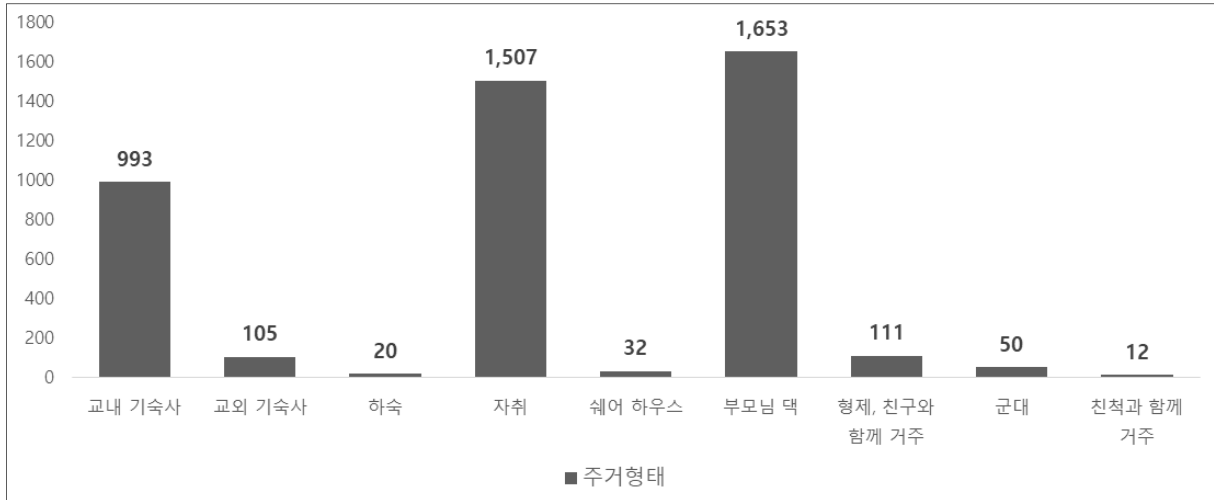
유형	없음	여행	연수/교환/인턴	해외거주경험	합계
인원	762	1,908	1,059	754	4,483
비율	17.0	42.6	23.6	16.8	100.0

7) 주거형태

학생들의 주거형태는 통학시간, 학습시간 등의 생활시간 구성과 건강관리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하였다.

<그림 2-3> 응답자의 주거형태별 분포

(단위: 명)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경우가 1,653명(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취 1,507명(33.6%), 교내 기숙사 993명(22.2%)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서울대 신입생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서울 출신이 36.7%를 차지하고 있어 부모님 댁 거주비율과 거의 일치하지만, 고학년의 경우에는 서울 거주자지만 자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주거형태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2> 응답자의 주거형태 재분류

(단위: 명, %)

	교내 기숙사	자취	기타	부모님 댁	군대	합계
인원	993	1,507	280	1,653	50	4,483
비율	22.2	33.6	6.2	36.9	1.1	100.0

위의 표를 보면 응답자 중 63.1%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군대에 복무중인 1.1%가 포함된다. 주거형태가 본문에서 독립변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거주 의 경우 학년 분포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3> 기숙사 거주 학생의 학년 분포

(단위: 명,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상	합계
인원	360	205	196	155	77	993
비율	36.3	20.6	19.7	15.6	7.8	100.0

응답자 중 기숙사에 거주하는 993명의 학생들은 1학년이 가장 많았지만 학년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이후 본문에서 주거형태별 차이를 해석할 때 기숙사 거주 집단의 경우 '1학년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학생활 전반

1) 삶의 만족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Ed Diener 연구팀이 1985년 개발한 것으로 다섯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를 사용한다. 원 질문은 a)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b)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excellence, c) I am satisfied with my life, d)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e)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이다. 연구팀은 삶의 만족도 척도의 점수를 30~35점(매우 만족), 25~29점(높은 편), 20~24점(평균 점수), 15~19점(평균 이하), 10~14점(불만족), 5~9점(매우 불만족)으로 해석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한 삶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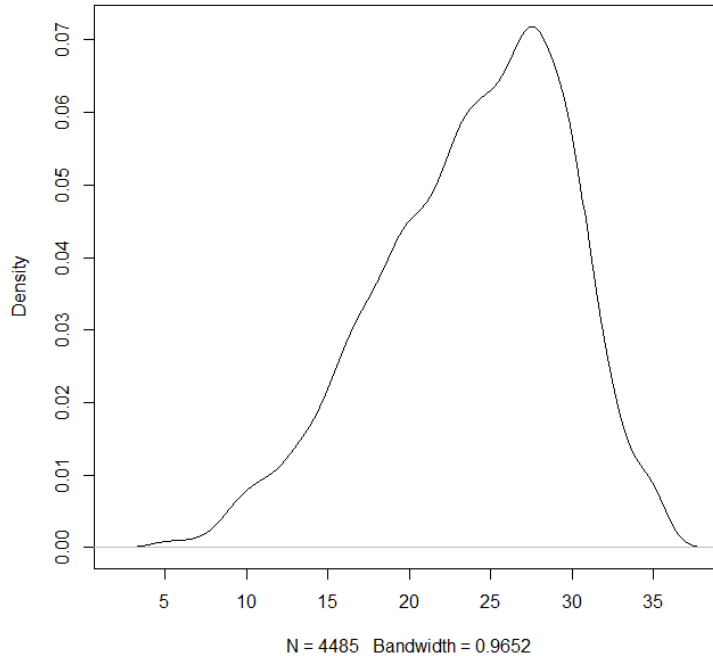
<표 2-14> 삶의 만족도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약간 아니다 < 3 >	보통 이다 < 4 >	약간 그렇다 < 5 >	그렇다 < 6 >	매우 그렇다 < 7 >	평균 (편차)
1-1. 나의 삶은 전반적으로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84 (1.9%)	460 (10.3%)	655 (14.6%)	849 (18.9%)	1,357 (30.3%)	948 (21.1%)	131 (2.9%)	4.0 (1.4)
1-2. 나의 삶의 여건은 좋다.	28 (0.6%)	167 (3.7%)	250 (5.6%)	644 (14.4%)	1,079 (24.1%)	1,859 (41.4%)	457 (10.2%)	5.2 (1.3)
1-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65 (1.4%)	237 (5.3%)	397 (8.9%)	667 (14.9%)	1,062 (23.7%)	1,645 (36.7%)	411 (9.2%)	5.0 (1.4)
1-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80 (1.8%)	331 (7.4%)	455 (10.1%)	796 (17.8%)	1,275 (28.4%)	1,154 (25.7%)	393 (8.8%)	4.8 (1.4)
1-5. 다시 산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 것이다.	183 (4.1%)	473 (10.6%)	719 (16.0%)	685 (15.3%)	932 (20.8%)	1,042 (23.2%)	450 (10.0%)	4.5 (1.7)

7점 척도의 5개 문항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삶의 여건이 좋다는 의견으로 자신의 여건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 응답(5~7점)은 1-1번 54.3%, 1-2번 75.7%, 1-3번 69.6%, 1-4번 62.9%, 1-5번 54%로 2번의 삶의 여건이 좋다와 3번의 삶에 만족한다 순으로 높았다. 각 문항 중 부정적인 응답(1~3점) 비율은 1-1번 26.8%, 1-2번 9.9%, 1-3번 15.6%, 1-4번 19.3%, 1-5번 30.7%로, 부정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음 생애에 대한 질문이다. 1번과 5번의 부정응답 비율이 높지만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문항의 부정응답 비율이 높다는 것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35점 만점 중 평균은 23.9점이며, 표준편차는 5.8

이다. 23.9점은 Diener 연구팀에 의하면 평균점수 구간에 속한다. 이를 분포도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삶의 만족도 점수 분포도



분포도를 보면 평균인 23.9점 우측으로 몰려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삶에 만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삶의 만족도 척도(SWLS)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도 많이 측정되어왔으며,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5> 삶의 만족도 척도를 활용한 국내 조사 결과

조사년도	표본	표본 수	삶의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2003	일반 성인(20대-60대)	579	21.00(5.56)
	일반 성인(20대)	270	19.99(5.72)
2006	서울소재 대학생	247	21.87(5.62)
2008	수도권 대학생	347	20.35(5.59)
2008	연세대 학부생	118	20.99(5.87)
	연세대 학부생(정보제공자)	207	23.50(5.02)
2019	일반 성인(20대-60대)	1,200	21.85(5.36)
	일반 성인(20대)	194	22.14

그동안 국내에서 성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20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9년에 조사한 일반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이 21.85점(표준편차 5.36)으로 나타났고, 그 중 20대는 22.14점을 보였다. 앞서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23.9점으로 나타나 최근 조사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편이며, 2008년 연세대 학부생 207명이 참여한 조사의 결과와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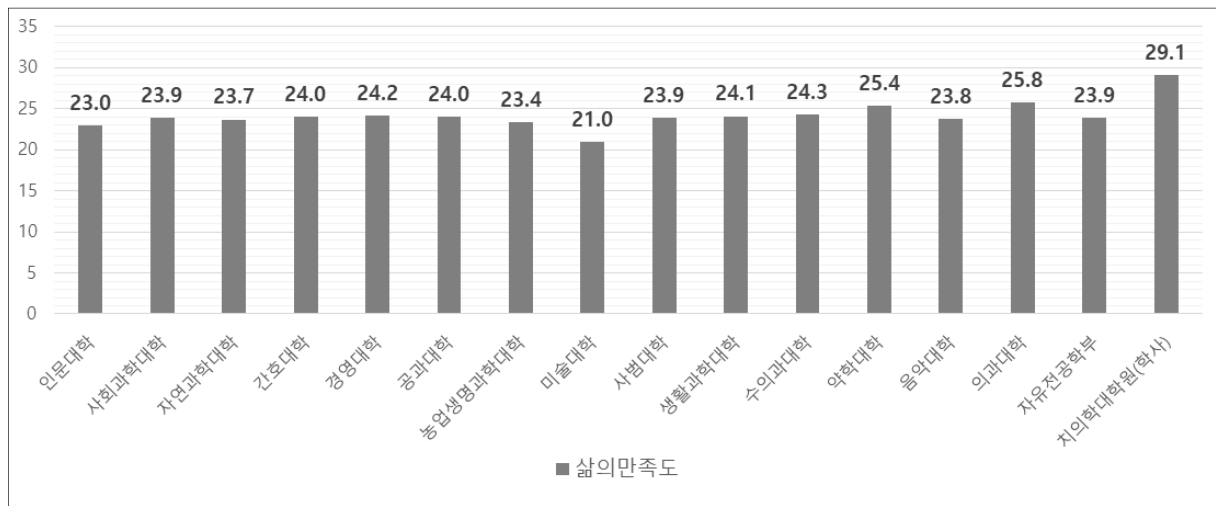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를 단과대학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후 표에서 SD (Standard Deviation)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표 2-16> 단과대학별 삶의 만족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23.0 (SD=5.8)	23.9 (SD=6.0)	23.7 (SD=5.4)	24.0 (SD=6.0)	24.2 (SD=5.8)	24.0 (SD=5.7)	23.4 (SD=5.8)	21.0 (SD=6.0)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치의학대학원(학사)
23.9 (SD=5.7)	24.1 (SD=5.7)	24.3 (SD=6.2)	25.4 (SD=4.8)	23.8 (SD=5.7)	25.8 (SD=4.8)	23.9 (SD=5.8)	29.1 (SD=5.0)

삶의 만족도의 단과대학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 약학대학 순으로 나타났고, 미술대학은 전체 평균점수인 23.9점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 나머지 단과대학들은 전체 평균인 23.9점 전후로 분포되어 있다. 치의학대학원의 경우 응답자 수가 21명으로 다른 단과대학과 비교하여 소규모이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특별한 과정이기 때문에 만족도 비교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5> 단과대학별 삶의 만족도



한편 삶의 만족도를 학년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7> 학년별 삶의 만족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상	전체
25.0 (SD=5.4)	24.2 (SD=5.5)	23.8 (SD=5.8)	23.5 (SD=5.8)	23.0 (SD=6.1)	23.9 (SD=5.8)

위의 표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공 공부, 학점 관리, 진로 고민 등의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주거형태별로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8> 주거형태별 삶의 만족도

교내 기숙사	자취	부모님 댁	군대	기타	전체
23.9 (SD=5.7)	23.6 (SD=6.0)	22.9 (SD=5.6)	23.4 (SD=5.6)	23.2 (SD=5.9)	23.9 (SD=5.8)

주거형태별로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교내 기숙사, 자취, 군대, 기타, 부모님 댁 순으로 나타났으나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국적별로 삶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19> 국적별 삶의 만족도

내국인	외국인	전체
23.9 (SD=5.8)	21.4 (SD=6.1)	23.9 (SD=5.8)

외국인 학생들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35%가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표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국인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대학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이어 서울대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삶의 만족도와 비교를 위하여 대학생활 만족도 역시 7점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1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삶의 만족도와 문항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문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0> 대학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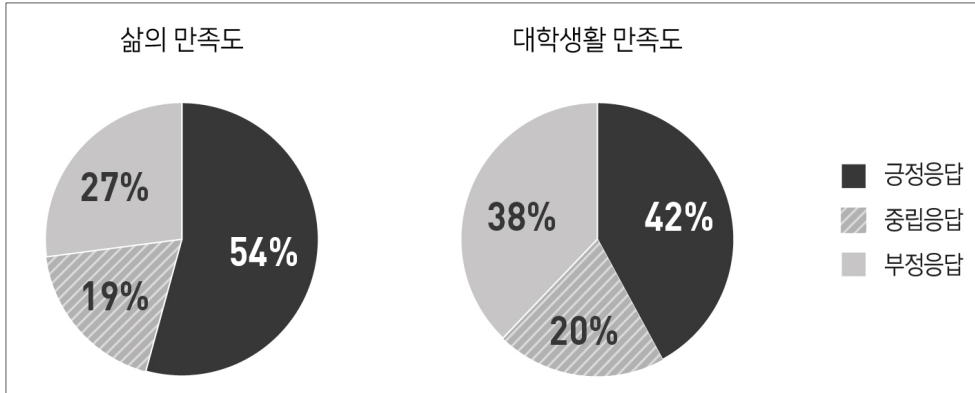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약간 아니다 < 3 >	보통 이다 < 4 >	약간 그렇다 < 5 >	그렇다 < 6 >	매우 그렇다 < 7 >	평균 (편차)
2-1. 나의 대학생활은 전반적으로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203 (4.5%)	669 (14.9%)	842 (18.8%)	905 (20.2%)	1,053 (23.5%)	687 (15.3%)	125 (2.8%)	4.0 (1.5)
2-2. 나는 학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130 (2.9%)	408 (9.1%)	661 (14.7%)	835 (18.6%)	1,128 (25.1%)	996 (22.2%)	326 (7.3%)	4.5 (1.5)
2-3.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151 (3.4%)	400 (8.9%)	633 (14.1%)	846 (18.9%)	1,051 (23.4%)	1,054 (23.5%)	349 (7.8%)	4.5 (1.6)
2-4. 서울대는 내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101 (2.3%)	228 (5.1%)	372 (8.3%)	801 (17.9%)	1,193 (26.6%)	1,301 (29.0%)	488 (10.9%)	5.0 (1.4)
2-5. 나는 서울대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	84 (1.9%)	184 (4.1%)	262 (5.8%)	723 (16.1%)	1,025 (22.9%)	1,394 (31.1%)	812 (18.1%)	5.2 (1.4)

위의 표에서 문항별로 우선 긍정응답(5~7점) 비율을 보면 2-1번 41.6%, 2-2번 54.6%, 2-3번 54.7%, 2-4번 66.5%, 2-5번 72.1%로 5번의 소속감과 자긍심과 4번의 환경 만족도 순으로 긍정응답이 많았다. 부정응답(1~3점)의 비율을 살펴보면, 2-1번 38.2%, 2-2번 26.7%, 2-3번 26.4%, 2-4번 15.7%, 2-5번 11.8%로 부정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대학생활이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운가를 묻는 문항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긍심과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응답 비율이 높고, 학업과 건강에 대해서는 약 55%만 긍정적으로 답하여 이 비율을 더 높이도록 학교의 전반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업과 건강에 약 26%가 부정응답을 하였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서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 1-1번 문항(삶이 이상에 가까운가)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평균점수는 4.0점으로 같지만 부정응답 비율은 대학생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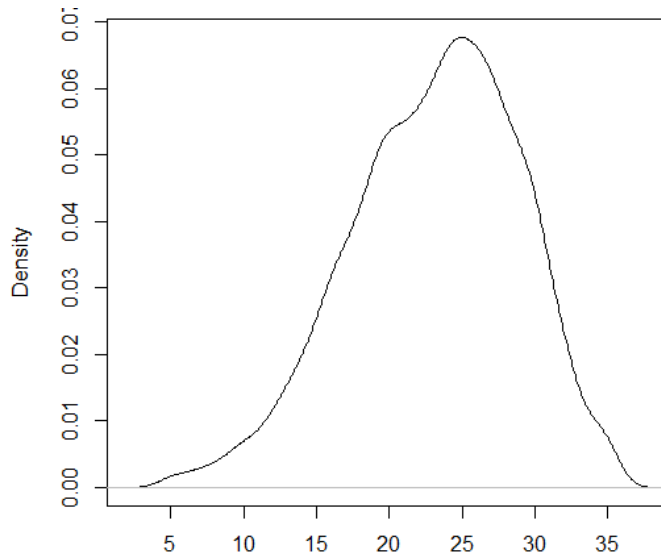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비교



둘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삶의 만족도는 긍정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학생활 만족도는 부정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학생활 만족도의 평균점수 분포도는 아래와 같다. 다섯 문항 총 35점 중 평균점수는 23점으로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인 23.9점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2-7> 대학생활 만족도 점수 분포도



분포도를 보면 앞서 삶의 만족도에 비해 평균인 23점을 기준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삶의 만족도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의 단과대학별 평균점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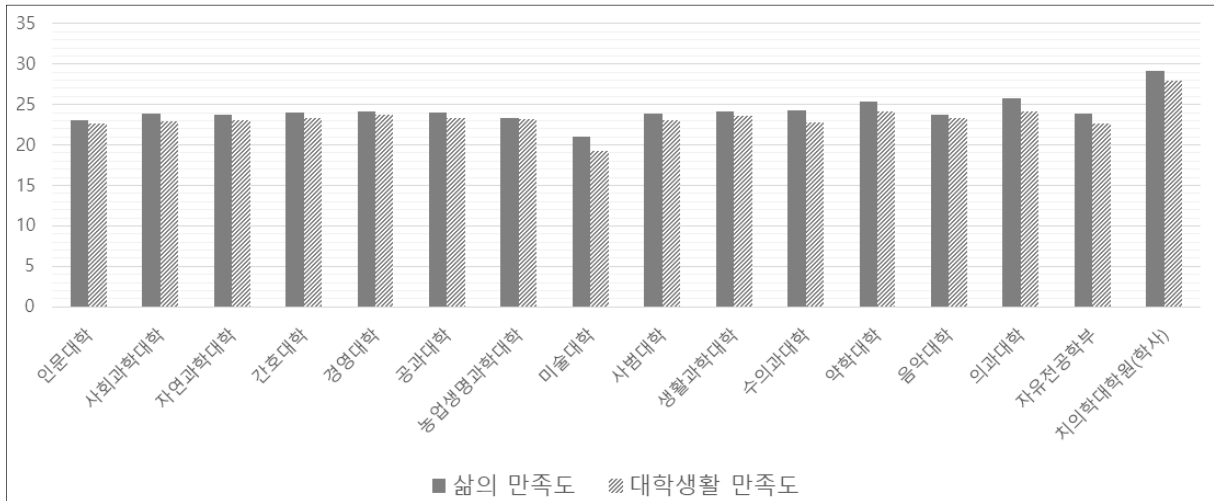
<표 2-21> 단과대학별 대학생활 만족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22.7 (SD=5.6)	22.9 (SD=5.9)	23.0 (SD=5.4)	23.3 (SD=5.8)	23.8 (SD=5.8)	23.4 (SD=5.7)	23.2 (SD=5.8)	19.3 (SD=6.2)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치의학대학원(학사)
23.1 (SD=5.9)	23.6 (SD=5.7)	22.8 (SD=6.3)	24.2 (SD=5.4)	23.4 (SD=5.5)	24.1 (SD=5.7)	22.6 (SD=5.4)	28.0 (SD=3.8)

단과대학별 대학생활 만족도는 앞서 삶의 만족도의 단과대학별 평균점수와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치의학대학원, 약학대학, 의과대학 순으로 소위 의치약 계열이 가장 높으며, 미술대학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단과대학별 삶의 만족도와 함께 비교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8> 단과대학별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비교



위의 그래프를 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둘의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며, 미술대학의 경우 둘 다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두 만족도 간 차이도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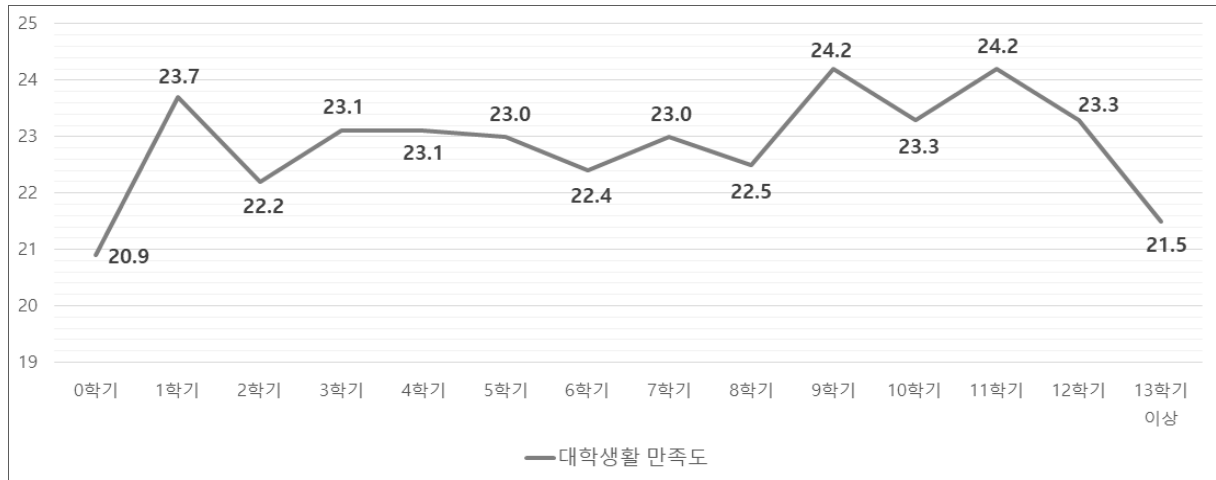
대학생활 만족도를 이수학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0학기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는데 0학기는 글로벌인재 특별전형으로 가을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들로, 대학생활 기간은 매우 짧지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볼 때 첫 학기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22> 이수학기별 대학생활 만족도

0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20.9 (SD=4.2)	23.7 (SD=5.7)	22.2 (SD=6.0)	23.1 (SD=5.6)	23.1 (SD=6.2)	23.0 (SD=5.8)	22.4 (SD=6.0)
7학기	8학기	9학기	10학기	11학기	12학기	13학기 이상
23.0 (SD=5.7)	22.5 (SD=6.0)	24.2 (SD=5.8)	23.3 (SD=5.3)	24.2 (SD=5.6)	23.3 (SD=6.0)	21.5 (SD=5.6)

이수학기별 대학생활 만족도는 1학기에 높은 편이었으나 학기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9학기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이수학기별 대학생활 만족도



이수학기를 두 학기씩 묶어서 학년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학년까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5학년 이상에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23> 학년별 대학생활 만족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상	전체
23.6 (SD=5.6)	23.0 (SD=5.6)	23.0 (SD=5.9)	22.9 (SD=5.8)	23.3 (SD=5.8)	23.0 (SD= 5.8)

한편 해외 경험이 대학생활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24> 해외 경험과 대학생활 만족도

없음	여행	연수/교환/인턴	해외거주경험	전체
22.3 (SD=6.1)	23.2 (SD=5.6)	23.8 (SD=5.8)	22.9 (SD=5.9)	23.0 (SD=5.8)

앞서 삶의 만족도에서 해외경험이 없는 집단이 평균점수가 다소 낮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생활 만족도 역시 해외경험이 없는 집단이 전체 평균점수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수/교환/인

턴 경험 집단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험 자체가 만족도를 높인다기보다 이런 기회를 얻을 정도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서 오는 만족도일 가능성이 높다.

주거형태별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5> 주거형태별 대학생활 만족도

교내 기숙사	자취	부모님 댁	군대	기타	전체
23.3 (SD=5.8)	23.0 (SD=5.9)	23.3 (SD=5.6)	25.4 (SD=4.3)	22.0 (SD=5.9)	23.0 (SD=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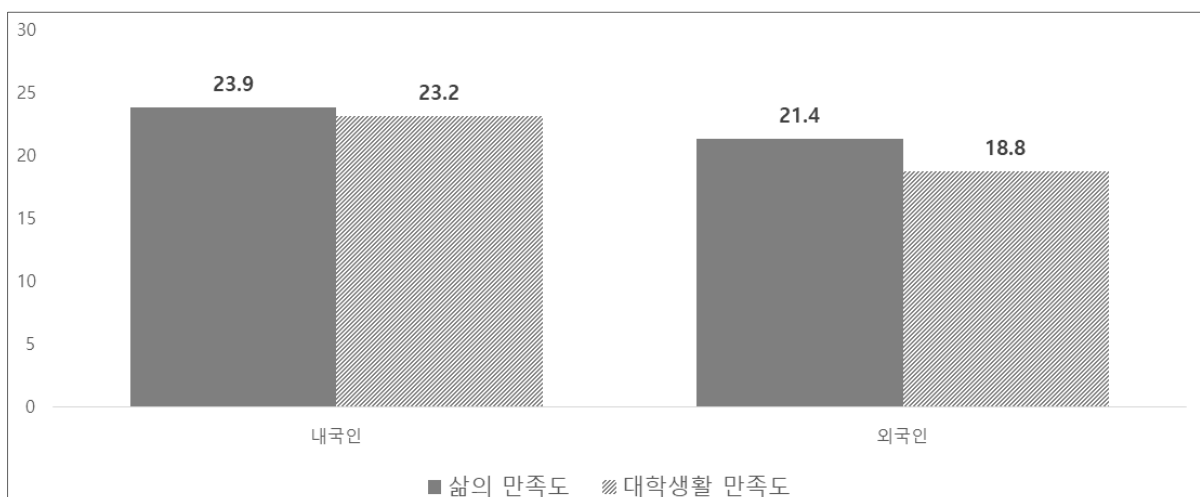
주거형태별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대에 복무중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군대에 있는 학생들은 수가 작기는 하지만 자기성찰의 시간, 학교에 대한 향수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군대에서 학교 이메일을 확인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높은 학생들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 교내 기숙사와 부모님 댁, 자취, 기타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으나,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국적별 학생들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26> 국적별 대학생활 만족도

내국인	외국인	전체
23.2 (SD=5.7)	18.8 (SD=6.5)	23.0 (SD=5.8)

앞서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다.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0> 국적별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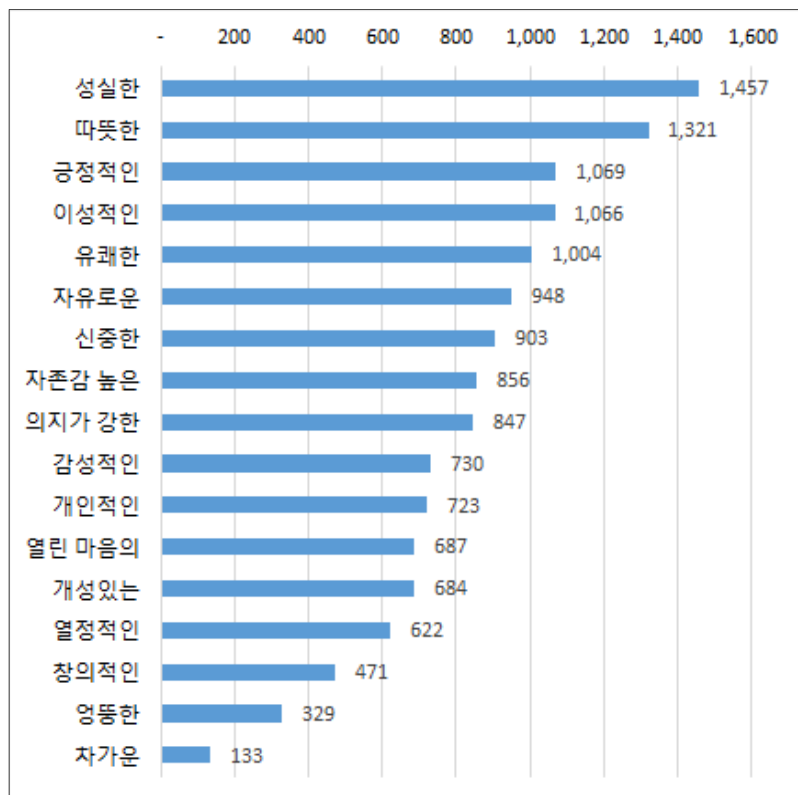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대학생활 만족도 역시 외국인 학생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간 간극도 외국인 학생의 경우 더 크게 벌어졌다. 앞서 삶의 만족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 3가지를 고르거나 기타 란에 적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의 질문보다 더 정확히 대답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 2-4>를 보면 서울대 학생들은 자신을 성실하고 따뜻하며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기타 란에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았다.

<그림 2-11>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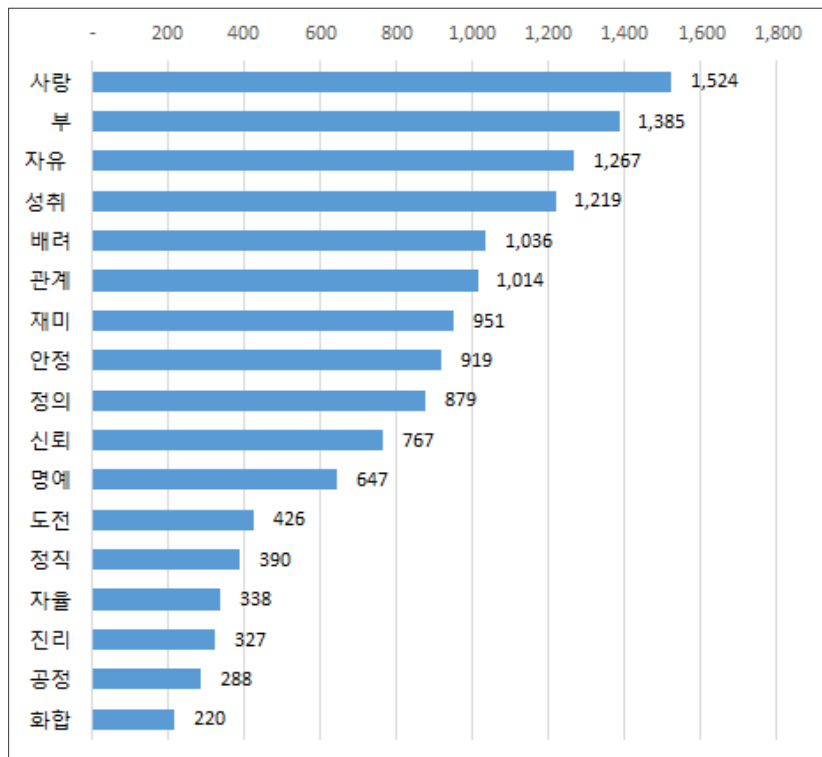
<그림 2-12>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4)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3가지를 고르거나 기타에 쓰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 부, 자유, 성취, 배려, 관계, 재미 순으로 나타났다. 사랑, 부, 자유, 성취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그 다음으로 배려와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맺기와 사회 윤리에도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2-13>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림 2-14>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하기

최근 관심사나 떠오르는 생각을 해시태그로 표현해 보라는 개방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예시를 제시하는 것 보다 훨씬 다양한 생각들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는데 복수응답이 가능하다보니 총 9,100개의 응답이 제시되었다. 반복되는 단어들은 묶었고, 이를 최대한 범주화한 결과 62개의 범주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7>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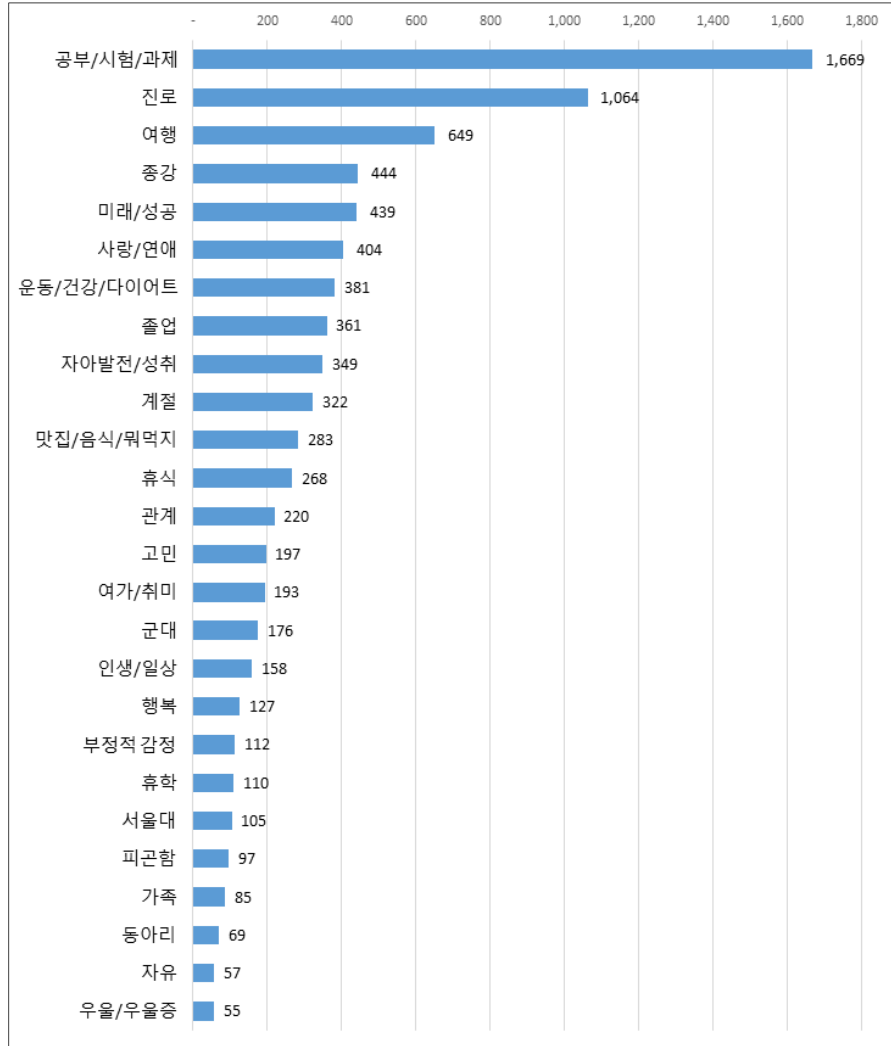
(단위: 개, %)

분류	응답 수	비율	분류	응답 수	비율
공부/시험/과제	1,669	18.3	학생	26	0.3
진로	1,064	11.7	불안	25	0.3
여행	649	7.1	장학금	23	0.3
종강	444	4.9	부/경제적인것	22	0.2
미래/성공	439	4.8	스트레스/실패	22	0.2
사랑/연애	404	4.4	자신감/자존감	21	0.2
운동/건강/다이어트	381	4.2	재미	20	0.2
졸업	361	4.0	열정	18	0.2
자아발전/성취	349	3.8	창업	17	0.2
계절	322	3.5	폭탄	16	0.2
맛집/음식/뭉떡지	283	3.1	패션/외모	15	0.2
휴식	268	2.9	에어팟	14	0.2
관계	220	2.4	마지막	14	0.2
고민	197	2.2	공대	13	0.1
여가/취미	193	2.1	안정	12	0.1
군대	176	1.9	탈출	12	0.1
인생/일상	158	1.7	봉사	11	0.1
행복	127	1.4	학생회	11	0.1

분류	응답 수	비율	분류	응답 수	비율
부정적 감정(부족, 후회, 막막 등)	112	1.2	최고	11	0.1
휴학	110	1.2	소확행	10	0.1
서울대	105	1.2	선택	10	0.1
피곤함	97	1.1	도서관	9	0.1
가족	85	0.9	배려	9	0.1
동아리	69	0.8	자취	9	0.1
자유	57	0.6	동물	8	0.1
우울/우울증	55	0.6	대2병	8	0.1
아르바이트	48	0.5	사회	8	0.1
교환학생	47	0.5	기숙사	7	0.1
긍정적 감정	44	0.5	통학	7	0.1
기타	38	0.4	마무리	7	0.1
어디로(인생, 진로, 학점, 여행 등)	38	0.4	밤샘	7	0.1
시간	29	0.3	의지	7	0.1
집	27	0.3	미세먼지	6	0.1
합 계				9,100	100.0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이 11월 초~중순이다 보니 공부와 관련된 생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행, 사랑/연애, 계절, 여가/취미, 휴식 등 학기 중 학업부담으로 인해 에너지 재충전과 삶의 활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듯하다. 위 표에서 50명 이상 응답한 생각들을 그래프로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5>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하기



<그림 2-16> 요즘 생각 해시태그로 표현하기



3. 성장: 학업과 다양한 경험

1) 지식과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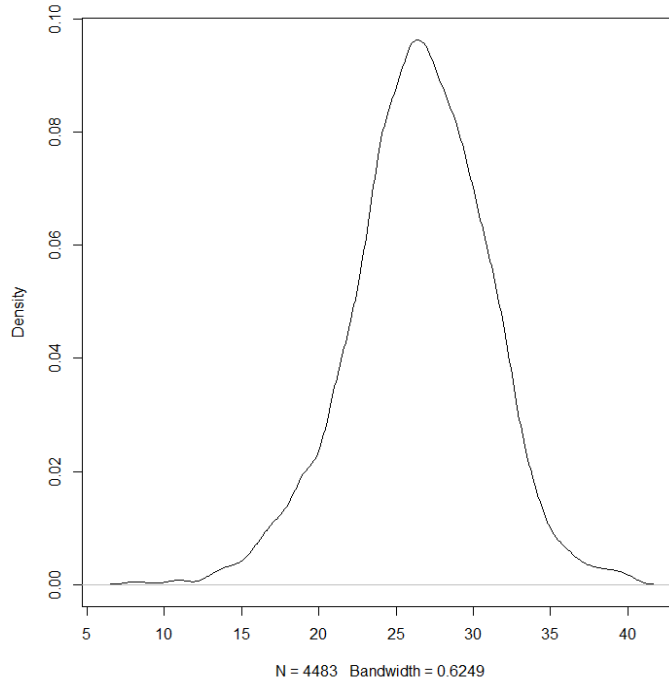
다음 문항에서 제시된 것들은 서울대를 포함하여 세계 대학들의 주요 교육목표이다. 학생들이 전공과 교양 공부를 포함하여 학문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아래 표를 보면 긍정응답(4~5점)의 비율은 6-1번 64.1%, 6-2번 65.9%, 6-3번 38.3%, 6-4번 42.4%, 6-5번 42.4%, 6-6번 42.5%, 6-7번 46.1%로 전공과 교양교육에 대한 긍정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 변화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사회변화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진로, 자료 분석 능력, 외국어, 글쓰기 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표 2-28> 지식과 기술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 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6-1.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 (예: 교양과목들)	73 (1.6%)	350 (7.8%)	1,187 (26.5%)	2,368 (52.8%)	505 (11.3%)	3.6 (SD=.8)
6-2. 깊이 있는 지식 (예: 전공과목들)	70 (1.6%)	364 (8.1%)	1,094 (24.4%)	2,202 (49.1%)	753 (16.8%)	3.7 (SD=.9)
6-3. 사회 변화와 세계에 대한 이해	146 (3.3%)	964 (21.5%)	1,657 (37.0%)	1,478 (33.0%)	238 (5.3%)	3.2 (SD=.9)
6-4.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되는 지식 및 기술	217 (4.8%)	911 (20.3%)	1,454 (32.4%)	1,493 (33.3%)	408 (9.1%)	3.2 (SD=1.0)
6-5. 자료 분석 능력과 컴퓨터 활용	217 (4.8%)	911 (20.3%)	1,455 (32.5%)	1,493 (33.3%)	407 (9.1%)	3.2 (SD=1.0)
6-6. 외국어	208 (4.6%)	852 (19%)	1,517 (33.8%)	1,542 (34.4%)	364 (8.1%)	3.2 (SD=1.0)
6-7. 글쓰기	181 (4.0%)	745 (16.6%)	1,489 (33.2%)	1,640 (36.6%)	428 (9.5%)	3.3 (SD=1.0)

위 표에서 전체 평균점수는 총 35점 만점에 26.5점이며, 표준편차는 4.4이다. 점수의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7> 지식과 기술 점수 분포도



위 분포도를 보면 평균 26.5점을 중심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평균에 몰려 있는 분포를 보이므로 학생들이 대부분 유사한 응답을 하였고, 편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능력과 자세

이번 문항 역시 세계 대학들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능력과 자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발전하고 있는지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9개의 선택지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스스로 문제와 해법을 찾는 능동적 자세인 '자기관리와 문제해결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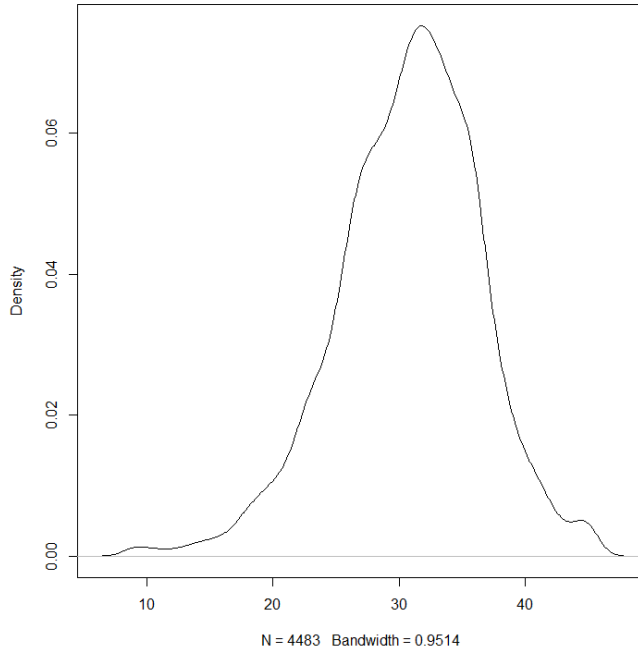
<표 2-29> 능력과 자세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 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7-1.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116 (2.6%)	570 (12.7%)	1,319 (29.4%)	2,019 (45.0%)	459 (10.2%)	3.5 (SD=0.9)
7-2.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	80 (1.8%)	540 (12.0%)	1,478 (33.0%)	1,976 (44.1%)	409 (9.1%)	3.5 (SD=0.9)
7-3. 스스로 문제와 해법을 찾는 능동적 자세	85 (1.9%)	501 (11.2%)	1,139 (25.4%)	2,049 (45.7%)	709 (15.8%)	3.6 (SD=0.9)
7-4. 배움에 대한 사랑과 치열한 탐구 정신	187 (4.2%)	712 (15.9%)	1,399 (31.2%)	1,636 (36.5%)	549 (12.2%)	3.4 (SD=1.0)
7-5. 윤리적·도덕적 사고와 판단력	198 (4.4%)	873 (19.5%)	1,671 (37.3%)	1,419 (31.7%)	322 (7.2%)	3.2 (SD=1.0)
7-6.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151 (3.4%)	744 (16.6%)	1,414 (31.5%)	1,778 (39.7%)	396 (8.8%)	3.4 (SD=1.0)
7-7. 공동체 의식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193 (4.3%)	801 (17.9%)	1,403 (31.3%)	1,645 (36.7%)	441 (9.8%)	3.3 (SD=1.0)
7-8.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관리 능력	125 (2.8%)	517 (11.5%)	1,159 (25.9%)	2,038 (45.5%)	644 (14.4%)	3.6 (SD=1.0)
7-9. 어려움을 유연하게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	152 (3.4%)	537 (12.0%)	1,354 (30.2%)	1,942 (43.3%)	498 (11.1%)	3.5 (SD=1.0)

위의 표에서 긍정응답(4~5점) 비율을 살펴보면, 7-1번 55.2%, 7-2번 53.2%, 7-3번 61.5%, 7-4번 48.7%, 7-5번 38.9%, 7-6번 48.5%, 7-7번 46.5%, 7-8번 59.9%, 7-9번 54.4%로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윤리적·도덕적 사고와 판단력이다. 5번 문항은 긍정응답 비율과 평균점수가 모두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관리 능력은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능력과 자세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26.5점과 4.4점이며, 평균점수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8> 능력과 자세 점수 분포도



위 분포도를 보면 앞서 지식과 기술 문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평균에 몰려 있는 분포를 보았을 때 학생들이 유사한 응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3) 이번 학기 경험

이번 학기의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휴학생은 등록한 최종학기의 경험에 대하여 응답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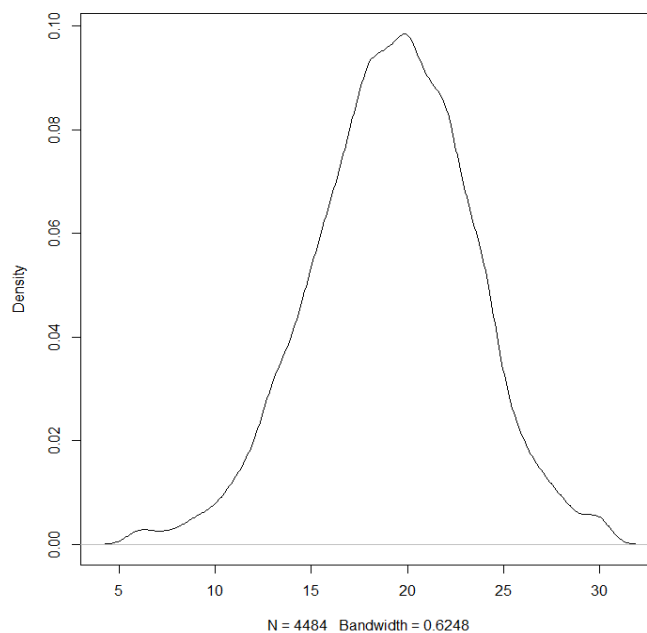
<표 2-30> 이번 학기 경험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 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8-1. 지적 즐거움을 느끼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7 (4.6%)	716 (16.0%)	1,304 (29.1%)	1,817 (40.5%)	440 (9.8%)	3.3 (SD=1.0)
8-2.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해외경험, 학생자율연구, 글쓰기센터 등)	1,063 (23.7%)	1,610 (35.9%)	812 (18.1%)	748 (16.7%)	251 (5.6%)	2.4 (SD=1.2)
8-3. 수업 외에 개인적인 탐구와 독서를 즐기고 있다.	548 (12.2%)	1,263 (28.2%)	1,098 (24.5%)	1,222 (27.3%)	353 (7.9%)	2.9 (SD=1.2)
8-4. 교내외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등)	660 (14.7%)	784 (17.5%)	555 (12.4%)	1,532 (34.2%)	953 (21.3%)	3.3 (SD=1.4)
8-5. 친구, 취미, 문화 활동, 휴식 등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155 (3.5%)	467 (10.4%)	947 (21.1%)	2,062 (46.0%)	853 (19.0%)	3.7 (SD=1.0)
8-6.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도전적으로 나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127 (2.8%)	545 (12.2%)	1,191 (26.6%)	1,972 (44.0%)	648 (14.5%)	3.6 (SD=1.0)

위의 표에서 긍정응답(4~5점) 비율을 보면 8-1번 50.3%, 8-2번 22.3%, 8-3번 35.2%, 8-4번 55.5%, 8-5번 65%, 8-6번 58.5%로 학생들은 대체로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내외 그룹 활동을 하고, 친교와 여가를 즐기며, 실패를 경험하면서 도전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부정응답(1~2점) 비율이 59.6%, 개인적 탐구와 독서도 40.4%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긍정응답 비율도 낮으므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학기 경험의 평균점수 분포도는 아래와 같다. 아래 분포도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모습에 가까운데 이는 부정응답과 긍정응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부정응답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19> 이번 학기 경험 점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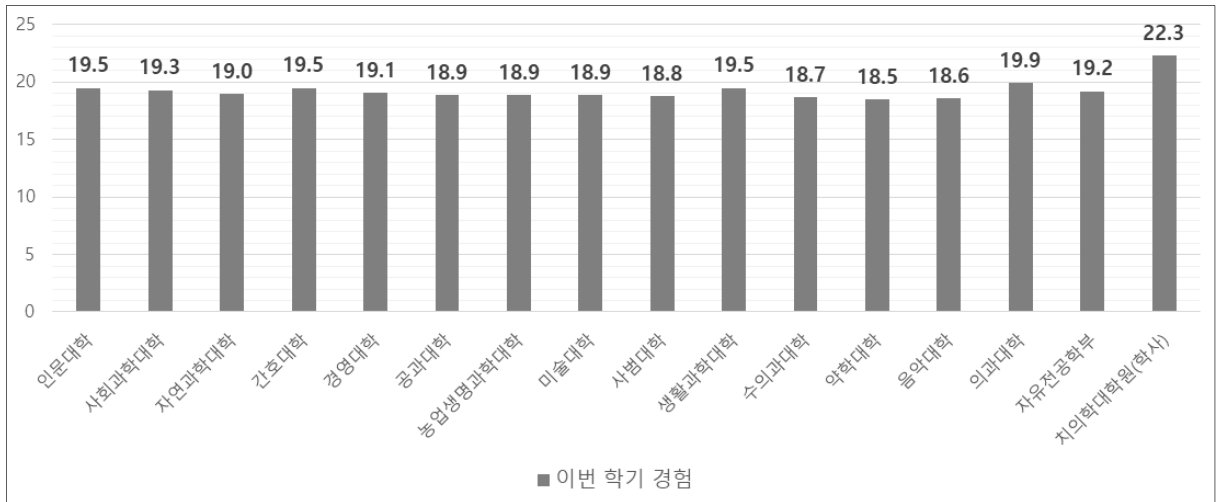
이번 학기 경험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 인문대학/간호대학/생활과학대학 순이다. 이번 학기 경험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곳은 약학대학, 음악대학, 수의과대학 순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치의학대학원은 응답자 수가 적어 대표성을 띠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31> 단과대학별 이번 학기 경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19.5 (SD=4.1)	19.3 (SD=4.1)	19.0 (SD=3.9)	19.5 (SD=4.5)	19.1 (SD=3.9)	18.9 (SD=4.1)	18.9 (SD=4.0)	18.9 (SD=4.0)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치의학대학원(학사)
18.8 (SD=4.3)	19.5 (SD=3.9)	18.7 (SD=4.4)	18.5 (SD=3.6)	18.6 (SD=4.3)	19.9 (SD=3.9)	19.2 (SD=4.0)	22.3 (SD=3.6)

이번 학기 경험을 단과대학별 평균점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20> 단과대학별 이번 학기 경험 비교



개인 편차가 크게 나겠지만 얼마나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번 학기를 보내고 있는지 단과대학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치의학대학원(학사과정)이 가장 높고, 다른 단과대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2> 학년별 이번 학기 경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상	전체
20.0 (SD=4.0)	19.4 (SD=4.2)	19.1 (SD=4.1)	18.7 (SD=4.1)	19.1 (SD=4.1)	19.2 (SD=4.1)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의 평균이 가장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폭 감소하다 5학년 이상에서 다시 상승한다. 앞서 대학생활 만족도 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이를 다시 전공과정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3> 전공과정별 이번 학기 경험

단일 전공	다전공	선택예정	전체
19.1 (SD=4.1)	19.3 (SD=4.1)	19.6 (SD=4.0)	19.2 (SD=4.1)

전공과정별로 보면 선택예정인 집단이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다전공, 단일전공 순이다. 이번 학기 경험을 해외 경험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34> 해외 경험별 이번 학기 경험

없음	여행	연수/교환/인턴	해외거주경험	전체
18.6 (SD=4.2)	19.1 (SD=4.1)	19.9 (SD=4.2)	19.2 (SD=3.9)	19.2 (SD=4.1)

해외 경험별 차이를 보면 연수/교환/인턴의 범주가 가장 점수가 높고, 해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집단이 점수가 낮다. 이것 역시 대학생활 만족도와 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별 이번 학기 경험의 차이를 들여다보자.

<표 2-35> 주거형태별 이번 학기 경험

교내 기숙사	자취	부모님 댁	군대	기타	전체
19.6 (SD=4.1)	19.0 (SD=4.2)	18.9 (SD=4.0)	20.6 (SD=3.8)	18.9 (SD=4.1)	19.2 (SD=4.1)

주거형태별로 보면 앞서 결과와 유사하게 군대가 가장 높고, 교내기숙사, 자취, 부모님 댁, 기타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내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긍정적인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학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다른 활동이나 경험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진로선택

응답자의 졸업 후 첫 진로 방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결과를 빈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6> 졸업 후 진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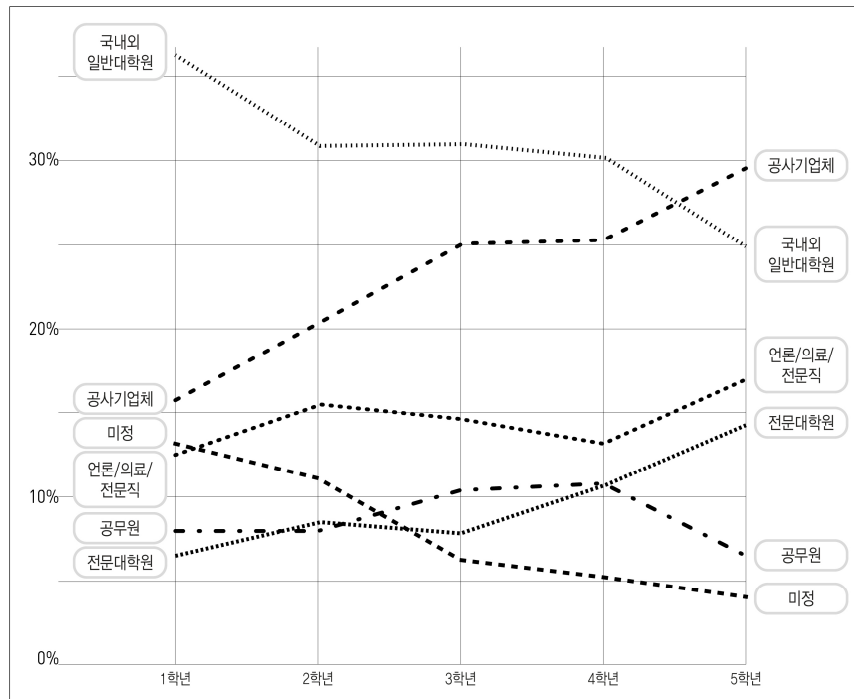
(단위: 명, %)

	분야	인원	비율		분야	인원	비율
1	기업체(공/사기업)	1,006	22.4	9	창업	103	2.3
2	일반대학원(국내)	921	20.5	10	예술분야	103	2.3
3	전문대학원(국내)	412	9.2	11	교육기관	87	1.9
4	대학원(해외)	402	9.0	12	언론분야	66	1.5
5	공무원	393	8.8	13	해외활동(국제기구 등)	45	1.0
6	미정	340	7.6	14	프리랜서(크리에이터 등)	30	0.7
7	전문직(회계사 등)	289	6.4	15	군 대체복무	10	0.2
8	의료기관	271	6.0	16	정치/시민활동	5	0.1
합계						4,483	100.0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해외대학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 40%의 학생들이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졸업 후 첫 진로 방향을 학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1> 학년별 졸업 후 희망진로

(단위: %)



위 그래프는 동일한 학생들의 학년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진로에 대한 학년별 경향성을 보여주며, 가장 역동적인 차이를 보이는 구간은 4학년과 5학년 사이다. 졸업을 앞두고 공무원과 일반대학원 진학은 줄고 기업체와 전문대학원 진학이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기업체와 전문대학

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하고, 일반대학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일반대학원 진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1학년 때 지적 즐거움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대학원 희망자가 감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고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서울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우수한 학생들을 일반대학원에 많이 유치하고 싶다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5)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

학생들에게 살아오면서 자신을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이 무엇인지 주관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수천 개의 응답을 최대한 자세하게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7> 나를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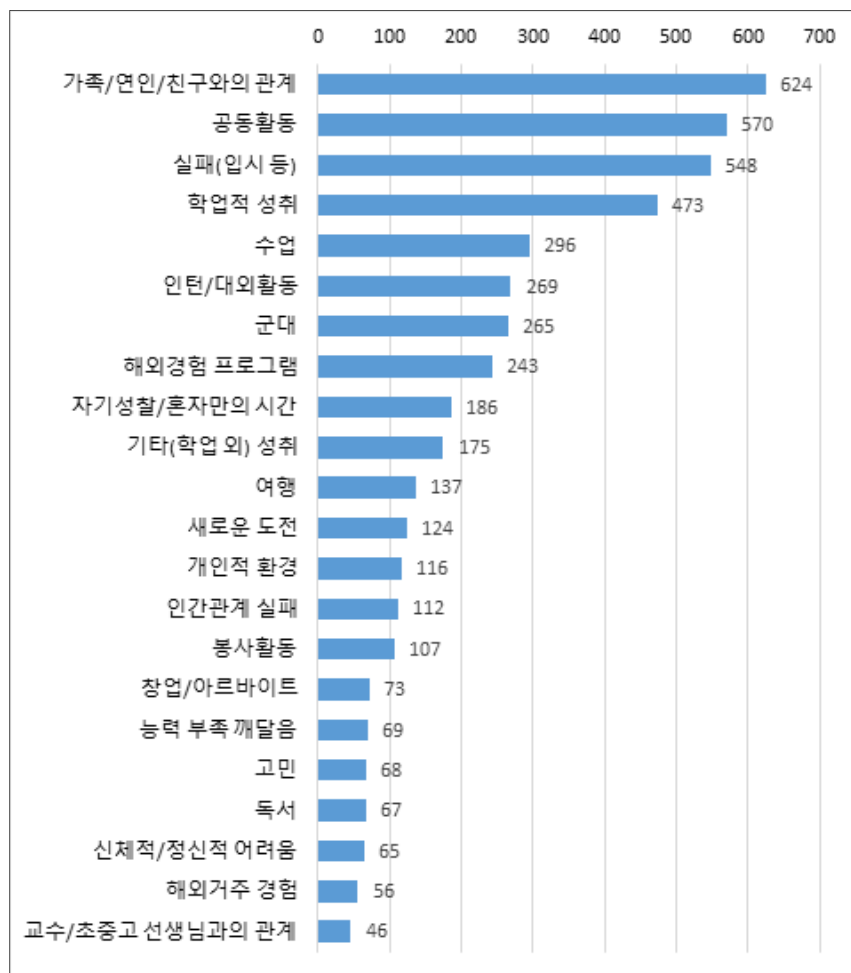
(단위: 개, %)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긍정적 경험/성취	가족/연인/친구와의 관계	624	36.8	13.3
	학업적 성취	473	27.9	10.1
	자기성찰/혼자만의 시간	186	11.0	4.0
	기타(학업 외) 성취	175	10.3	3.7
	새로운 도전	124	7.3	2.6
	독서	67	4.0	1.4
	교수/초중고 선생님과 관계	46	2.7	1.0
	소계	1,695	100.0	36.1
활동	공동활동	570	43.3	12.2
	수업	296	22.5	6.3
	인턴/대외활동	269	20.5	5.7
	봉사활동	107	8.1	2.3
	창업/아르바이트	73	5.6	1.6
	소계	1,315	100.0	28.0
어려움/실패	실패(입시 등)	548	56.0	11.7
	개인적 환경	116	11.9	2.5
	인간관계 실패	112	11.5	2.4
	능력 부족 깨달음	69	7.1	1.5
	고민	68	7.0	1.5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65	6.6	1.4
	소계	978	100.0	20.9
새로운 환경	군대	265	37.8	5.7
	해외경험 프로그램	243	34.7	5.2
	여행	137	19.5	2.9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해외거주 경험	56	8.0	1.2
	소계	701	100.0	14.9
합계		4,784	100.0	100.0

위의 표에서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눈 결과 각각 긍정적 경험/성취 36.1%, 활동 28.0%, 어려움/실패 20.9%, 새로운 환경 14.9% 순으로 나타나 긍정적 경험과 성취를 쓴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세부내용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2> 나를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



세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관계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되었으며, 공동활동 역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수업과 수업 외 활동에서 공동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협업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수 등의 실패경험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군대나 해외경험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환경 역시 자신을 성숙시키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4. 생활: 몸과 마음의 건강

1) 생활시간

학생들이 평상시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7일에 24시간을 곱하면 전체 생활시간의 합은 168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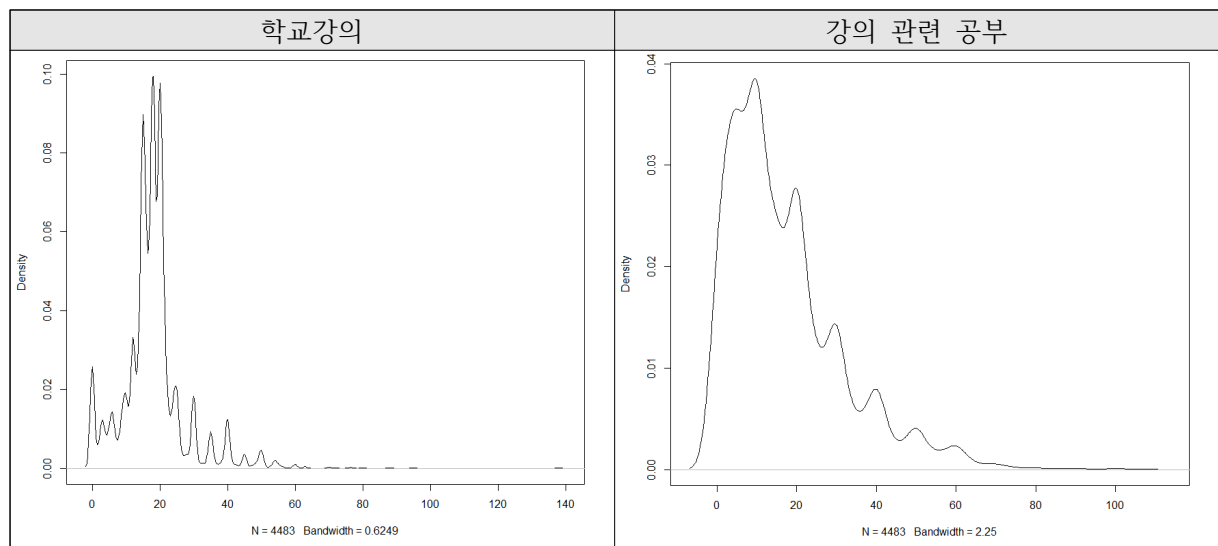
<표 2-38> 일주일 생활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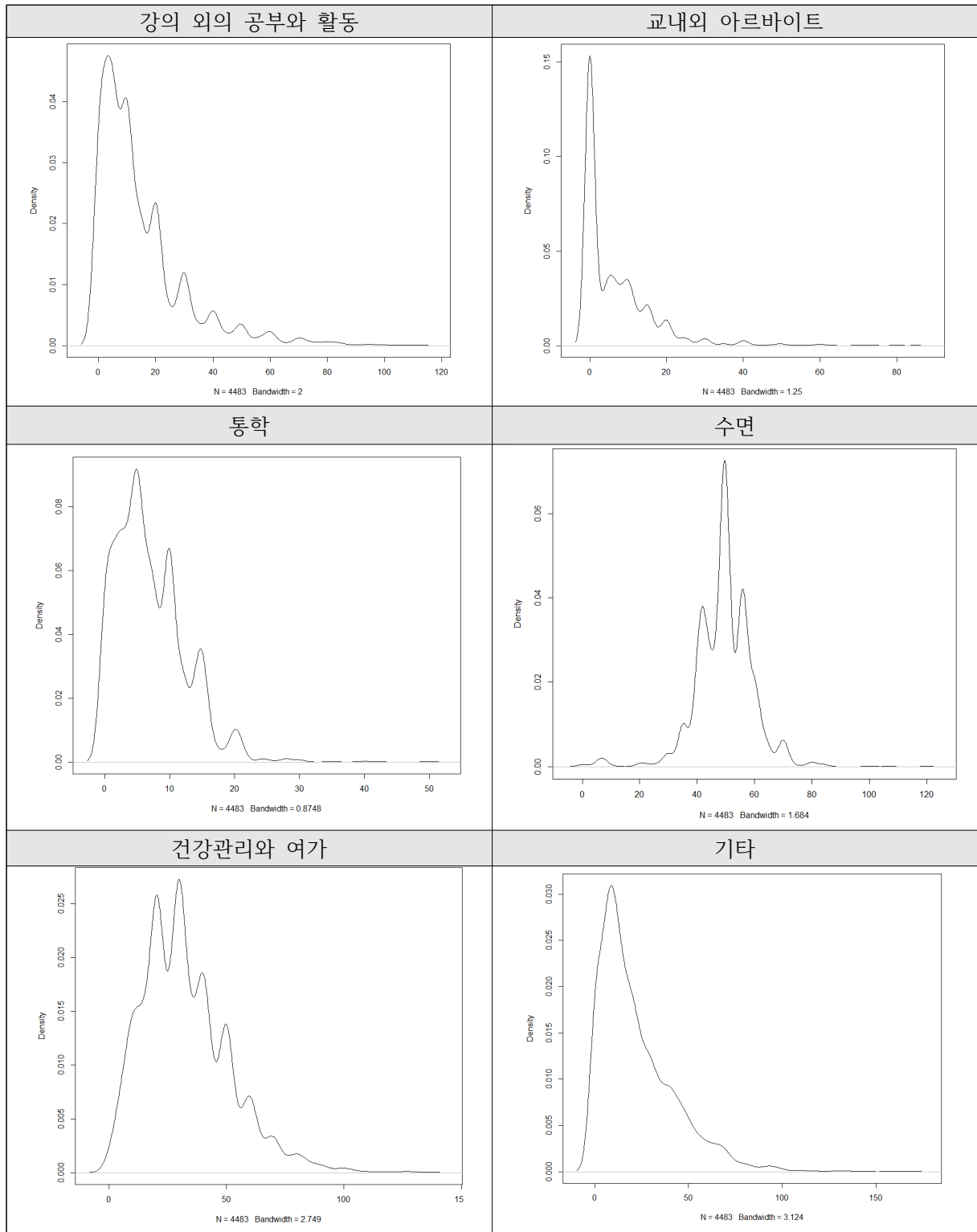
항목	평균	표준편차
학교 강의 (실습, 청강 포함)	18.1	9.8
강의 관련 공부 (예습, 복습, 과제, 텀플 모임 등)	17.2	14.7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 (개인 공부, 독서, 비교과 활동 등. 오가는 시간 포함)	14.6	15.6
교내외 아르바이트 (준비하고 오가는 시간 포함)	6.5	9.4
통학	7.0	5.3
수면	49.4	10.1
건강관리와 여가 (식사, 운동, 취미활동, 친교, 게임, SNS 등)	32.6	18.7
기타 (준비 등)	22.4	20.5

위의 표를 보면 서울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7시간 수면을 취하고, 수업 시간과 강의 관련 공부를 약 1:1 비율로 쓰고 있다. 통학시간은 일주일에 7시간으로 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시간 24분을 사용한다. 하루에 2~3시간은 강의 외 공부와 활동을 하고 있으며, 4~5시간은 식사와 운동, 취미활동, 친교 활동 등을 한다. 표준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별로 생활시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교내외 아르바이트, 통학 시간, 건강관리와 여가, 기타는 표준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생활시간의 개별 활동시간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3> 생활시간 활동별 시간 분포도





분포도 중 가장 대칭적인 구조이면서 평균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는 것은 수면시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 관련 공부, 강의 외 공부와 활동, 건강관리와 여가 등은 점수가 넓게 퍼져있으며, 극단치에도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학의 경우

도 평균은 7시간이지만, 10시간~15시간 구간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다. 통학시간을 기숙사생과 비기숙사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기숙사생의 경우 편차가 매우 크다.

<표 2-39> 기숙사생과 비기숙사생의 통학시간

기숙사	비기숙사	전체
3.8 (SD=4.2)	7.9 (SD=5.2)	7 (SD=5.3)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의 단과대학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0> 단과대학별 생활시간 분포

	학교 강의	강의 관련 공부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	교내외 아르바이트	통학	수면	건강관리와 여가	기타
인문대학	16.0 (SD=8.7)	15.4 (SD=12.8)	17.2 (SD=16.1)	7.5 (SD=9.9)	7.3 (SD=5.4)	49.0 (SD=9.6)	32.2 (SD=16.7)	23.3 (SD=19.8)
사회과학대학	16.1 (SD=8.0)	15.3 (SD=13.3)	17.0 (SD=17.3)	6.1 (SD=9.0)	7.1 (SD=5.2)	49.6 (SD=9.1)	33.4 (SD=17.6)	23.4 (SD=20.0)
자연과학대학	17.2 (SD=7.9)	19.2 (SD=15.0)	13.5 (SD=14.9)	6.6 (SD=9.0)	7.5 (SD=5.4)	49.5 (SD=10.2)	31.7 (SD=17.8)	22.9 (SD=22.1)
간호대학	22.7 (SD=11.8)	13.8 (SD=15.2)	10.9 (SD=11.7)	6.5 (SD=8.9)	6.2 (SD=5.4)	50.5 (SD=11.1)	33.2 (SD=19.1)	24.3 (SD=21.3)
경영대학	15.8 (SD=8.0)	11.9 (SD=11.2)	16.9 (SD=18.4)	6.7 (SD=12.2)	6.2 (SD=5.8)	50.2 (SD=8.8)	34.8 (SD=21.3)	24.5 (SD=21.8)
공과대학	17.5 (SD=8.3)	19 (SD=15.0)	13.4 (SD=15.0)	6.1 (SD=9.0)	7.3 (SD=5.2)	49.7 (SD=10.4)	32.3 (SD=19.1)	22.2 (SD=21.8)
농업생명과학대학	16.8 (SD=7.2)	14.1 (SD=12.0)	13.4 (SD=14.1)	7.4 (SD=10.8)	6.7 (SD=5.1)	50.8 (SD=9.7)	36.1 (SD=19.4)	22.8 (SD=19.7)
미술대학	21.6 (SD=12.0)	21.5 (SD=17.4)	12.6 (SD=11.0)	7.1 (SD=8.8)	7.8 (SD=6.3)	47.1 (SD=9.9)	33.0 (SD=21.1)	17.2 (SD=15.8)
사범대학	16.9 (SD=8.8)	15.3 (SD=13.3)	16.3 (SD=17.4)	8.3 (SD=10.4)	7.0 (SD=5.2)	50.1 (SD=11.0)	31.4 (SD=18.0)	22.5 (SD=19.1)
생활과학대학	16.9 (SD=8.6)	14.2 (SD=12.2)	15.6 (SD=18.6)	7.3 (SD=9.1)	7.9 (SD=5.6)	48.9 (SD=10.2)	35.8 (SD=20.7)	21.3 (SD=19.6)
수의과대학	32.7 (SD=13.0)	16.0 (SD=14.4)	12.2 (SD=12.4)	6.4 (SD=8.7)	6.1 (SD=4.6)	45.7 (SD=9.8)	27.3 (SD=18.5)	21.5 (SD=19.7)
약학대학	24.3 (SD=6.8)	18.8 (SD=13.0)	8.7 (SD=8.1)	7.1 (SD=9.6)	6.5 (SD=3.8)	48.6 (SD=6.0)	28.5 (SD=13.3)	25.6 (SD=20.0)
음악대학	20.4 (SD=11.4)	15.2 (SD=12.1)	22.3 (SD=15.6)	9.5 (SD=8.2)	6.9 (SD=4.9)	47.0 (SD=9.4)	27.3 (SD=15.5)	19.4 (SD=16.3)
의과대학	30.6 (SD=15.9)	30.9 (SD=22.0)	10.6 (SD=10.9)	2.2 (SD=4.9)	4.5 (SD=5.1)	45.7 (SD=9.6)	27.9 (SD=18.7)	15.6 (SD=16.7)
자유전공학부	17.0 (SD=8.8)	18.4 (SD=13.8)	13.8 (SD=14.0)	4.8 (SD=6.9)	7.1 (SD=5.4)	49.2 (SD=10.8)	34.2 (SD=18.9)	23.5 (SD=21.5)
치의학대학원	18.9 (SD=5.5)	11.0 (SD=8.4)	10.2 (SD=9.4)	5.9 (SD=6.0)	8.0 (SD=5.6)	51.1 (SD=13.3)	44.4 (SD=28.6)	18.6 (SD=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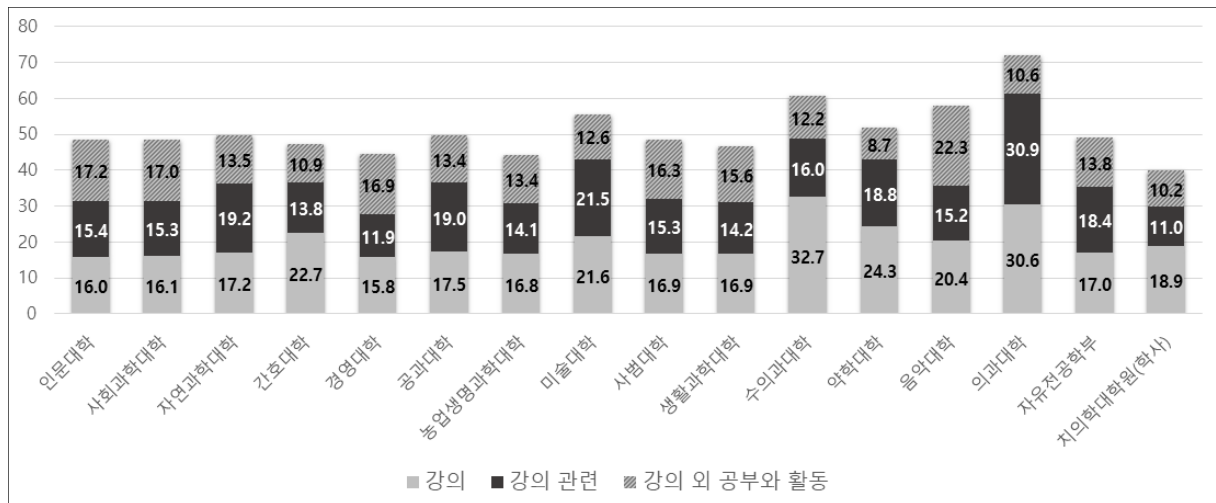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단과대학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강의시간이 많고 강의 관련 공부시간이 적은 대학은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의학대학원 등이다. 경영대학은 강의 시간 수에 비해 강의 관련 공부 시간이 적은 편인데 이는 강의부담이 적다는 것을 함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강의 시간과 강의 관련 공부 총 시간이 많은 대학은 의과대학 61.5시간, 수의과대학 48.7시간, 약학대학/미술대학 43.1시간 순이다.

또한 위의 표에서 강의관련 공부보다 강의 외 공부와 활동이 많은 단과대학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이며, 강의관련 공부가 강의 외 공부와 활동보다 많은 단과대학은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치의학대학원이다.

위의 단과대학별 표에서 학교 강의(실습, 청강 포함), 강의 관련 공부(과제, 연습과 복습 등),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개인공부, 비교과 활동 등) 세 가지를 합한 시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편차가 크지만 단과대학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림 2-24> 단과대학별 학습 및 활동 시간 분포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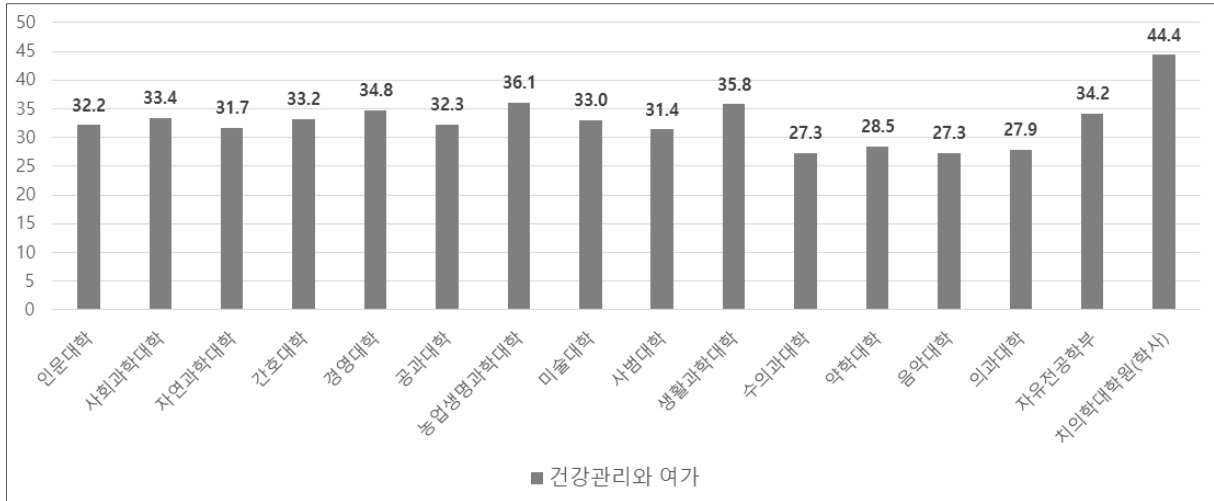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세 가지 활동시간은 학생들이 전공공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하는 시간의 합이다. 합산 결과를 보면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약학대학 등이 세 가지 활동시간이 50시간을 상회하였다. 하지만 내부구성면에서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은 학교 강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술대학은 강의 관련 공부, 음악대학은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이 많아 차이를 보인다. 치의학대학원의 경우 합산 시간이 가장 적는데 이는 앞서 단과대학별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치의학대학원의 응답결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짐작되지만 역시 적은 수의 응답자로 인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공과대학은 평균에 가장 가까운 분포를 보이는데, 공과대학 응답자가 전체의 24.3%를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평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은 진로가 명확한 반면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나 대학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과대학별 생활시간 분포 중 건강관리와 여가시간 사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5> 단과대학별 건강관리와 여가시간 분포

(단위: 시간)



건강관리와 여가시간의 전체 평균은 32.6시간이며, 단과대학의 절반 정도는 평균 전후로 분포되어 있다. 치의학대학원이 가장 시간이 많지만 응답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고, 수의과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은 건강관리와 여가시간이 적은 편에 속한다. 앞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이들 대학 중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은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수의과대학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건강관리와 여가시간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예로 이번 학기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의 점수가 낮았는데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학년별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41> 학년별 생활시간 분포

	학교 강의	강의 관련 공부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	교내외 아르바이트	통학	수면	건강관리와 여가	기타
1학년	19.6 (SD=8.2)	16.5 (SD=13.4)	10.1 (SD=9.9)	6.3 (SD=8.1)	7.0 (SD=5.9)	49.2 (SD=11.0)	37.1 (SD=20.4)	22.1 (SD=20.3)
2학년	18.5 (SD=7.8)	16.4 (SD=13.2)	11.1 (SD=11.4)	6.9 (SD=8.3)	7.0 (SD=5.2)	49.9 (SD=10.0)	35.3 (SD=18.7)	22.9 (SD=20.0)
3학년	19.2 (SD=9.1)	19.5 (SD=15.5)	13.6 (SD=14.2)	6.5 (SD=8.9)	6.9 (SD=5.4)	49.0 (SD=10.2)	31.2 (SD=10.2)	21.6 (SD=20.6)
4학년	17.4 (SD=9.6)	17.8 (SD=15.1)	17.9 (SD=18.3)	6.3 (SD=9.7)	7.4 (SD=5.1)	49.4 (SD=10.0)	30.0 (SD=17.2)	21.8 (SD=20.2)
5학년 이상	15.2 (SD=13.4)	14.1 (SD=14.9)	20.8 (SD=19.4)	6.8 (SD=11.9)	6.5 (SD=4.8)	49.6 (SD=8.9)	30.8 (SD=18.8)	24.3 (SD=21.6)

우선 강의와 강의 관련 공부시간을 보면 1, 2학년은 강의 관련 공부 시간이 적은 편이고, 3학년이

되면 강의 시간과 강의 관련 공부 시간이 모두 증가한다. 이것은 전공 공부가 심화될수록 공부시간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저학년의 경우 강의 시간에 비해 관련 공부 시간이 적당한 편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4학년부터는 강의와 강의 관련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강의 외 공부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건강관리와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여가 시간을 줄이면서 학교 공부(강의와 강의 관련 공부)와 강의 외 공부와 활동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관리와 여가 시간이 1, 2학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러한 시간사용이 건강유지에 문제는 없는지, 탈진이나 우울증세로 이어지지 않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해외 경험별로 생활시간의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2> 해외 경험별 생활시간 분포

	학교 강의	강의 관련 공부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	교내외 아르바이트	통학	수면	건강관리와 여가	기타
연수/교환/인턴	17.4 (SD=10.4)	16.6 (SD=14.8)	17.0 (SD=16.9)	6.6 (SD=10.3)	7.1 (SD=5.0)	49.5 (SD=9.0)	31.6 (SD=18.0)	22.2 (SD=19.8)
해외 거주 경험	18.8 (SD=10.5)	18.0 (SD=14.8)	13.6 (SD=13.9)	5.6 (SD=8.3)	7.3 (SD=5.4)	49.0 (SD=9.9)	33.0 (SD=18.0)	22.6 (SD=20.0)
여행	18.2 (SD=9.0)	17.1 (SD=14.2)	13.8 (SD=15.1)	6.6 (SD=9.1)	6.9 (SD=5.3)	49.5 (SD=9.9)	33.5 (SD=19.3)	22.3 (SD=20.6)
없음	18.2 (SD=9.8)	17.2 (SD=15.3)	16.7 (SD=16.0)	7.2 (SD=9.8)	6.7 (SD=5.6)	49.3 (SD=11.8)	31.6 (SD=18.8)	22.8 (SD=21.7)

해외 경험별로 생활시간 활용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연수/교환/인턴 경험 집단과 해외 경험이 없는 그룹이 타 집단에 비하여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그 결과 건강관리와 여가시간이 적은 편이었다.

한편 주거형태별로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다른 집단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표 2-43> 주거형태별 생활시간 분포

	학교 강의	강의 관련 공부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	교내외 아르바이트	통학	수면	건강관리와 여가	기타
교내 기숙사	20.3 (SD=9.2)	19.8 (SD=16.0)	12.6 (SD=12.7)	6.7 (SD=9.2)	3.8 (SD=4.2)	48.9 (SD=11.0)	34.2 (SD=19.5)	21.5 (SD=19.9)
자취	17.5 (SD=9.6)	16.7 (SD=14.9)	16.5 (SD=17.9)	6.8 (SD=9.8)	5.3 (SD=3.7)	50.1 (SD=10.1)	32.6 (SD=18.8)	22.4 (SD=20.4)
부모님 댁	17.5 (SD=9.9)	16.3 (SD=13.8)	14.4 (SD=14.9)	6.0 (SD=8.6)	10.5 (SD=5.2)	49.0 (SD=9.3)	31.6 (SD=18.2)	22.5 (SD=20.2)
군대	14.4 (SD=12.8)	11.9 (SD=13.5)	12.9 (SD=13.7)	8.1 (SD=13.2)	4.6 (SD=5.6)	50.7 (SD=12.8)	31.2 (SD=19.7)	30.7 (SD=34.5)
기타	17.5 (SD=9.5)	16.4 (SD=12.6)	13.5 (SD=14.4)	7.3 (SD=10.9)	7.4 (SD=4.7)	49.2 (SD=10.1)	33.4 (SD=17.7)	23.3 (SD=21.5)

주거형태별로 보면 응답자의 22%에 해당하는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부모님 댁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통학 시간이 매우 짧으며, 그로 인해 확보된 시간은 학교 강의 수강, 강의 관련 공부, 여가 시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 시간은 현저히 적은 편이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업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의 외 공부와 활동에는 적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생들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에 자취하는 학생들은 강의 외 공부와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적별로 생활시간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4> 국적별 생활시간 분포

	학교 강의	강의 관련 공부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	교내외 아르바이트	통학	수면	건강관리와 여가	기타
내국인	18.0 (SD=9.7)	17.0 (SD=14.5)	14.6 (SD=15.6)	6.6 (SD=9.4)	7.0 (SD=5.3)	49.4 (SD=10.0)	32.7 (SD=18.7)	22.4 (SD=20.5)
외국인	21.2 (SD=8.9)	29.7 (SD=17.7)	14.3 (SD=12.3)	2.4 (SD=5.1)	4.7 (SD=4.3)	47.9 (SD=11.8)	27.7 (SD=18.7)	20 (SD=18.5)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 강의와 강의 관련 공부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여가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쓰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통학 시간이 적는데, 학교 기숙사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2) 건강관리

시험이 없는 평상시의 건강관리 상태를 알아보았다.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는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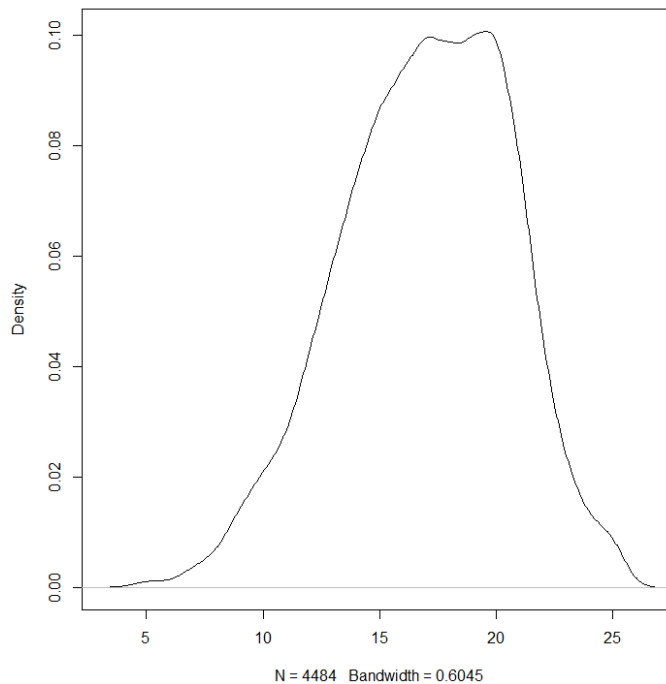
<표 2-45> 건강관리 응답 분포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12-1. 수면, 식사, 운동 등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	257 (5.7%)	1,010 (25.5%)	1,349 (30.1%)	1,533 (34.2%)	334 (7.5%)	3.2 (SD=1.0)
12-2. 여가와 휴식을 즐길 시간 여유가 있다.	241 (5.4%)	974 (21.7%)	1,115 (24.9%)	1,693 (37.8%)	460 (10.3%)	3.3 (SD=1.1)
12-3.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대체로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100 (2.2%)	566 (12.6%)	1,193 (26.6%)	2,141 (47.8%)	483 (10.8%)	3.1 (SD=0.9)
12-4. 탈진되었다고 느낀다.	400 (8.9%)	1,156 (25.8%)	1,135 (25.3%)	1,320 (29.4%)	472 (10.5%)	3.1 (SD=1.2)
12-5. 우울증세로 전문적인 상담을 고려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2,205 (49.2%)	1,196 (26.7%)	526 (11.7%)	425 (9.5%)	131 (2.9%)	1.9 (SD=1.1)

위의 선택지 중 1~3번은 '매우 그렇다'가 긍정적인 응답을, 4~5번은 '매우 그렇다'가 부정적인 응답을 의미하므로, 4~5번은 점수를 역코딩하였다. 부정응답(1~2점) 비율을 살펴보면 12-1번 31.2%, 12-2번 27.1%, 12-3번 14.8%, 12-4번 39.9%, 12-5번 12.4%로 나타난다. 특히 탈진되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39.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우울증세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12.4% 정도 된다. 응답자의 약 40%가 탈진되었다고 느끼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신체적 질병이나 우울증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예방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탈진이 되지 않도록 여유를 찾고, 학교생활과 교육과정 등 일상생활에서 자기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생활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의 교과과정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 분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17.0, 표준편차는 3.6이다.

<그림 2-26> 건강관리 점수 분포도



위의 분포도를 보면 점수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어 편차가 크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 간 편차가 큰 만큼 이러한 편차를 줄이면서 평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과대학별로 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6> 단과대학별 건강관리 평균 분포

인문대학	사회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 과학대학	미술대학
16.7 (SD=3.5)	17.0 (SD=3.6)	17.1 (SD=3.5)	17.8 (SD=3.7)	17.1 (SD=3.3)	17.2 (SD=3.5)	17.3 (SD=3.5)	14.4 (SD=4.0)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치의학대학원(학사)
17.0 (SD=3.7)	16.9 (SD=3.6)	16.9 (SD=3.9)	16.3 (SD=3.5)	16.2 (SD=3.8)	16.9 (SD=3.9)	16.2 (SD=3.6)	19.4 (SD=2.5)

단과대학별로 건강상태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치의학대학원,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순이며, 미술대학이 점수가 가장 낮다. 한편 학년별로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7> 학년별 건강관리 평균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상	전체
17.2 (SD=3.3)	17.1 (SD=3.6)	16.9 (SD=3.7)	16.9 (SD=3.6)	16.7 (SD=3.8)	17.0 (SD=3.6)

위의 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생활시간 조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건강관리와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표 2-48> 성별 건강관리 평균 분포

남자	여자	전체
17.4 (SD=3.5)	16.4 (SD=3.6)	17.0 (SD=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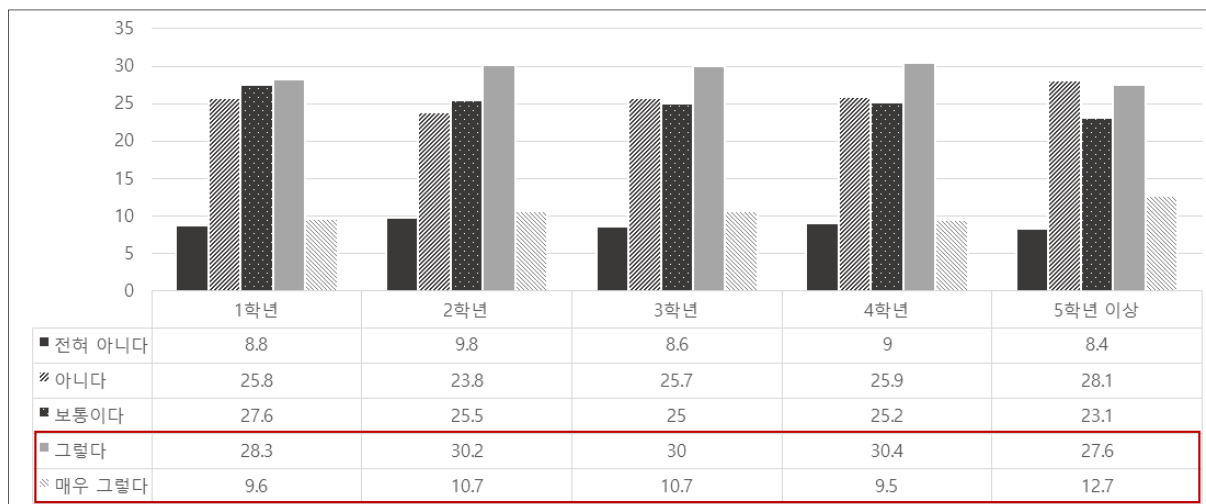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적별로 건강관리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9> 국적별 건강관리 평균 비교

내국인	외국인	전체
17.0 (SD=3.6)	14.1 (SD=4.0)	17.0 (SD=3.6)

내국인의 건강관리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등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앞서 건강관리에 대한 문항 중 탈진되었다고 느낀다는 응답을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7> 학년별 탈진상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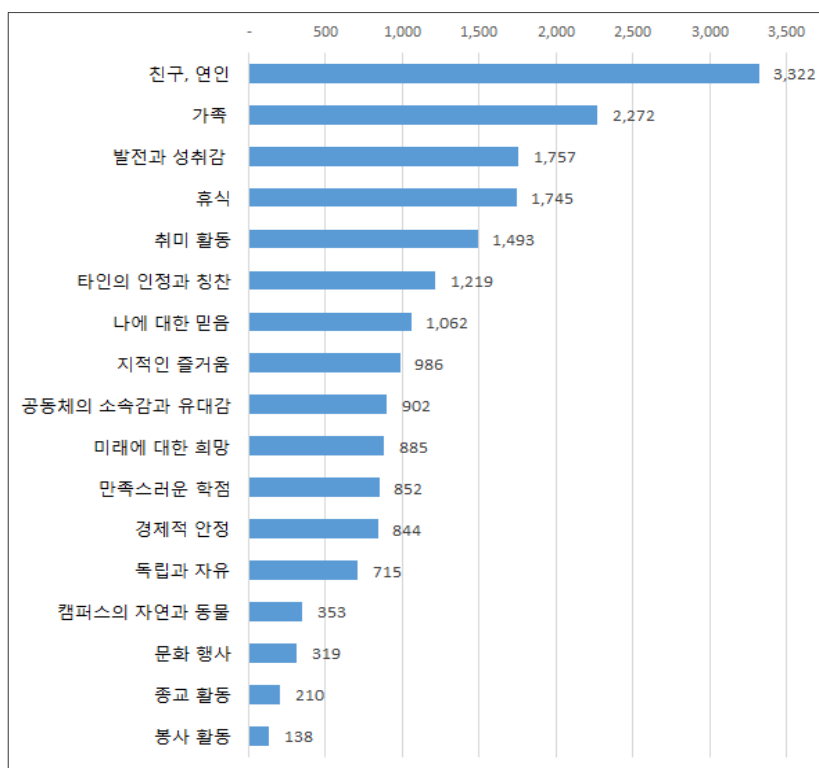
탈진되었다고 느낀다는 응답(4~5점)을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1학년 37.9%, 2학년 40.9%, 3학년 40.7%, 4학년 39.9%, 5학년 이상 40.3%로 2, 3학년에서 탈진되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가장 힘이 되는 것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은 복수로 가능하며, 기타 란에 적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28> 대학생활에 가장 힘이 되는 것

(단위: 개)



가장 힘이 된다고 답한 것은 친구 또는 연인, 가족 등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과 위로였다. 이 결과는 앞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과 응답이 유사하다. 그 외에 내재적 동기, 발전과 성취감, 나에 대한 믿음, 지적인 즐거움 등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4) 등록금 재원

우선 1인당 등록금 총액을 100이라고 할 때 자금의 출처를 물어보았다.

<표 2-50> 등록금의 재원 분포

구분	0	0초과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100미만	100
교내 장학금	3,091 (68.9%)	171 (3.8%)	311 (6.9%)	265 (5.9%)	58 (1.3%)	19 (0.4%)	569 (12.7%)
교외 장학금	3,093 (69.0%)	73 (1.6%)	124 (2.8%)	169 (3.8%)	131 (2.9%)	43 (1.0%)	851 (19.0%)
가족이나 친지	1,793 (40.0%)	211 (4.7%)	196 (4.4%)	311 (6.9%)	264 (5.9%)	165 (3.7%)	1539 (34.3%)
아르바이트	3,975 (88.7%)	238 (5.3%)	97 (2.2%)	93 (2.1%)	40 (0.9%)	6 (0.1%)	35 (0.8%)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4,141 (92.4%)	152 (3.4%)	50 (1.2%)	43 (1.0%)	14 (0.3%)	4 (0.1%)	80 (1.8%)

등록금 재원의 전반적인 분포를 보면,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31.7%로 교내외 장학금을 전혀 못 받는 학생이 69%나 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등록금을 전액 제공 받는 학생이 34.3%를 차지하며,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는 경우는 12.7%, 교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는 경우는 19.0%로 나타났다.

<표 2-51> 해외 경험별 등록금 재원 분포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연수/교환/인턴	18.9 (SD=34.7)	21.5 (SD=38.4)	51.1 (SD=45.0)	4.4 (SD=16.0)	3.6 (SD=15.9)
해외 거주 경험	15.3 (SD=31.3)	19.6 (SD=37.2)	57.9 (SD=44.4)	3.7 (SD=12.8)	3.4 (SD=15.0)
여행	18.8 (SD=34.8)	27.5 (SD=42.0)	46.2 (SD=45.0)	3.6 (SD=13.3)	3.3 (SD=15.3)
없음	23.2 (SD=37.2)	30.3 (SD=42.3)	37.5 (SD=43.5)	5.1 (SD=16.3)	3.1 (SD=14.8)

등록금 재원을 해외 경험별로 비교해 보면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교내 장학금이나 교외 장학금의 비중이 높고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재원이 상대적으로 낮고 아르바이트 비중도 가장 높았다. 반면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이나 친지 의존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주거형태별로 등록금

재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2-52> 주거형태별 등록금 재원 분포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교내 기숙사	23.2 (SD=37.1)	35.4 (SD=43.9)	35.9 (SD=42.7)	2.8 (SD=11.3)	2.5 (SD=12.7)
자취	18.2 (SD=34.2)	22.0 (SD=33.8)	51.5 (SD=45.2)	4.3 (SD=15.1)	3.7 (SD=15.9)
부모님 댁	16.7 (SD=33.2)	21.0 (SD=38.4)	53.9 (SD=45.0)	4.4 (SD=15.3)	3.3 (SD=15.4)
군대	23.6 (SD=38.3)	37.4 (SD=46.0)	25 (SD=38.0)	3.7 (SD=15.6)	0.3 (SD=1.6)
기타	20.9 (SD=35.8)	28.7 (SD=42.5)	39.6 (SD=43.7)	4.9 (SD=15.6)	5.6 (SD=20.7)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족이나 친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등록금 재원의 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2-53> 성별 등록금 재원 분포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남자	19.5 (SD=35.3)	26.6 (SD=41.3)	45.5 (SD=44.9)	4.3 (SD=15.2)	3.4 (SD=15.3)
여자	18.3 (SD=34.0)	23.5 (SD=39.6)	50.9 (SD=45.1)	3.7 (SD=13.5)	3.3 (SD=15.4)

성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장학금 의존도는 남학생이 높고, 부모와 친지 의존도는 여학생이 높다.

<표 2-54> 국적별 등록금 재원 분포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내국인	18.9 (SD=34.6)	25.0 (SD=40.5)	48.2 (SD=45.1)	4.1 (SD=14.5)	3.4 (SD=15.4)
외국인	25.9 (SD=41.1)	40.0 (SD=46.2)	27.9 (SD=40.2)	2.2 (SD=8.0)	4.1 (SD=14.0)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장학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GKS)과 같은 교외 장학금의 비중이 높았다.

5) 생활비 재원

학생들이 등록금을 제외한 비용 전반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의식주 비용과 활동 경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2-55> 생활비 재원 분포

구분	0	0초과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100미만	100
교내외 생활장학금	3,777 (84.3%)	129 (2.9%)	196 (4.4%)	188 (4.2%)	73 (1.6%)	37 (0.8%)	83 (1.9%)
가족이나 친지	698 (15.6%)	393 (8.8%)	450 (10.0%)	852 (19.0%)	714 (15.9%)	301 (6.7%)	1075 (24.0%)
아르바이트	2,090 (46.6%)	554 (12.4%)	503 (11.2%)	675 (15.1%)	292 (6.5%)	96 (2.1%)	273 (6.1%)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3,294 (73.5%)	646 (14.4%)	218 (4.9%)	173 (3.9%)	55 (1.2%)	12 (0.3%)	85 (1.9%)

우선 교내외 생활장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은 84.3%이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용돈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은 15.6%이다.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지 않는 학생은 46.6%를 차지한다. 한편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생활비를 100% 의존하는 학생은 24%, 아르바이트로 100% 충당하는 학생은 6.1%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비 재원만 가지고 재정적 곤란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표 2-56> 해외 경험별 생활비 재원 분포

	교내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연수/교환/인턴	8.2 (SD=21.5)	58.3 (SD=36.3)	24.2 (SD=30.8)	9.1 (SD=20.0)
해외 거주 경험	7.1 (SD=21.0)	60.7 (SD=34.3)	23.1 (SD=29.3)	8.5 (SD=19.2)
여행	6.9 (SD=19.6)	55.7 (SD=35.8)	28.1 (SD=32.9)	8.6 (SD=20.0)
없음	10.7 (SD=24.8)	53.4 (SD=38.3)	27.4 (SD=33.6)	7.8 (SD=20.0)

앞서 등록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교내외 장학금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연수/교환/인턴 경험이 있는 집단은 가족이나 친지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점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2-57> 주거형태별 생활비 재원 분포

	교내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교내 기숙사	14.7 (SD=28.1)	54.2 (SD=37.5)	23.1 (SD=30.4)	7.7 (SD=18.8)
자취	6.3 (SD=18.3)	60.8 (SD=34.5)	24.6 (SD=30.3)	7.9 (SD=15.9)
부모님 댁	5.3 (SD=18.0)	54.3 (SD=36.6)	29.9 (SD=34.2)	9.9 (SD=21.8)

	교내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군대	6.5 (SD=18.3)	49.5 (SD=36.7)	28.9 (SD=32.5)	6.4 (SD=19.9)
친척과 함께 거주	8.0 (SD=21.6)	60.3 (SD=35.3)	23.7 (SD=30.8)	8.1 (SD=18.1)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내외 장학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자취하는 학생들이 가족이나 친지 의존도가 높다. 한편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비중이 약간 높았다.

<표 2-58> 성별 생활비 자원 분포

	교내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남자	8.5 (SD=22.1)	54.7 (SD=37.0)	26.5 (SD=33.0)	9.6 (SD=21.4)
여자	7.1 (SD=20.2)	59.4 (SD=34.9)	25.8 (SD=30.7)	7.3 (SD=17.5)

남학생이 교내외 장학금 의존도와 아르바이트 비중이 약간 높고, 여학생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국적별로 생활비 자원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표 2-59> 국적별 생활비 자원 분포

	교내외 장학금	가족이나 친지	아르바이트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내국인	7.2 (SD=20.0)	57.2 (SD=36.0)	26.5 (SD=32.1)	8.6 (SD=19.8)
외국인	50.4 (SD=44.6)	31.3 (SD=37.7)	5.9 (SD=13.7)	9.4 (SD=23.2)

생활비의 경우 내국인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며, 외국인 학생은 생활비의 절반을 교내외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고민상담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상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표 2-60> 고민상담 대상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 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16-1. 나는 고민이 있을 때 가족과 의논할 수 있다.	109 (2.4%)	420 (9.4%)	702 (15.7%)	2,010 (44.8%)	1,242 (27.7%)	3.9 (SD=1.0)
16-2.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친구나 연인과 의논할 수 있다.	57 (1.3%)	196 (4.4%)	471 (10.5%)	2,163 (48.2%)	1,596 (35.6%)	4.1 (SD=.9)
16-3. 나는 고민이 있을 때 교수님과 의논할 수 있다.	1,101 (24.6%)	1,507 (33.6%)	1,051 (23.4%)	664 (14.8%)	160 (3.6%)	2.4 (SD=1.1)
16-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학내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617 (13.8%)	1,290 (28.8%)	1,384 (30.9%)	983 (21.9%)	209 (4.7%)	2.7 (SD=1.1)
16-5. 나는 주변 사람에게 고민이 있을 때 의논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	27 (0.6%)	79 (1.8%)	383 (8.5%)	2,324 (51.8%)	1,670 (37.3%)	4.2 (SD=.7)

위의 표에서 네 가지 상담 대상에 대한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친구나 연인, 가족, 학내 상담기관, 교수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정응답(1~2점)을 비교하면 가족 11.8%, 친구나 연인 5.7%, 교수님 58.2%, 학내기관 42.6%로 교수님이나 학내 기관을 통해 고민을 상담하려는 의향이 높지 않았다. 교수님을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교수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예: office hour)이 제공되면 좋을 것이며, 상담기관 또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에 내가 주변 사람에게 의논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응답은 긍정응답(4~5점)이 89.1%로 매우 높아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면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좋을 것이다.

7) 자유로운 한 학기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한 학기가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표 2-61> 자유로운 한 학기에 하고 싶은 것

(단위: 개, %)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자유	여행	2,087	39.6	23.9
	독서	555	10.5	6.4
	휴식	511	9.7	5.8
	운동	448	8.5	5.1
	기타 취미/여가생활	426	8.1	4.9
	문화생활/음악/예술	424	8.1	4.9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사람관계	357	6.8	4.1
	자기성찰/혼자만의 시간	175	3.3	2.0
	건강관리/생활패턴 개선	167	3.2	1.9
	글쓰기	106	2.0	1.2
	종교	10	0.2	0.1
	소계	5,266	100.0	60.3
공부	새로운 분야/하고 싶은 공부	567	33.4	6.5
	외국어 공부	473	27.9	5.4
	전공/학교 공부	388	22.9	4.4
	기타 진로 관련 시험 준비	108	6.4	1.2
	자격증 시험 준비	102	6.0	1.2
	연구/논문	59	3.5	0.7
	소계	1,697	100.0	19.4
활동	기타 현장체험	341	28.6	3.9
	인턴	300	25.2	3.4
	교환학생	135	11.3	1.5
	교내 활동/동아리	135	11.3	1.5
	해외연수/워킹홀리데이	115	9.6	1.3
	봉사활동	107	9.0	1.2
	창업/사업	59	4.9	0.7
	소계	1,192	100.0	13.6
경제활동	아르바이트	347	100.0	4.0
	소계	347	100.0	4.0
기타	없음	332	56.9	3.8
	기타	251	43.1	2.9
	소계	583	100.0	6.7
합계		9,085	100.0	100.0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 사이에 갭이어(gap year)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부러움을 갖게 된다.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한 학기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니 복수응답이 가능하며 9,085개의 응답이 나왔다. 이를 자세하게 분류해 본 결과 여행과 휴식 등 자유로운 생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평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과 경제활동 등을 답했고,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응답도 332개(3.8%)나 되었다. 세부내용을 빈도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9> 자유로운 한 학기에 하고 싶은 것



* 기타(251)로 분류된 소수 응답은 제외

빈도순으로 보니 여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와 독서라는 점도 무척 고무적이다. 그 외에 외국어공부, 운동(건강관리), 취미와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 시간적 여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돋보인다.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경제활동), 현장체험과 인턴(진로탐색) 등도 응답이 많은 편에 속했다.

5. 환경: 서울대의 문화와 인식

1)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문항 18번부터 24번까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물어보았다.

<표 2-62>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단위: 명, %)

독립적인	951(21.2)	2,281(50.9)	723(16.1)	462(10.3)	66(1.5)	관계지향적인
정적인	522(11.6)	2,129(47.5)	1,072(23.9)	647(14.4)	113(2.5)	역동적인
동질적인	171(3.8)	703(15.7)	839(18.7)	1,807(40.3)	963(21.5)	다양한
경쟁적인	945(21.1)	1,899(42.4)	1,131(25.2)	452(10.1)	56(1.2)	협동하는
수직적 문화의	225(5.0)	806(18.0)	1,315(29.3)	1,558(34.8)	579(12.9)	수평적 문화의
진지한	736(16.4)	2,105(47.0)	1,165(26.0)	436(9.7)	41(0.9)	재미있는
안정적인	571(12.7)	1,821(40.6)	1,254(28.0)	707(16.0)	130(2.9)	도전적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서울대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72.1%의 학생들이 서울대가 관계지향적이기 보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역동적이기 보다는 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이 59.1%로 많았다. 또 동질적이기 보다 다양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를 보였고, 협동하는 분위기보다는 경쟁적인 분위기라고 63.5%가 생각했다. 문화가 수평적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평적이라는 응답이 47.7%로 다소 높았다. 한편 재미있는 분위기라기보다 진지한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63.4%로 많았고, 도전적이기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라는 응답 또한 53.3%로 많았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지는 조심스럽지만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분위기, 소위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강한지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관계지향적이고 서로 협동하며 활기찬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학우들과의 교류기회

서울대에는 2만 여명의 학부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 자신과 다른 배경의 학우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2-63>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 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25-1. 이성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팀플, 그룹활동, 식사 등)	369 (8.2%)	680 (15.2%)	955 (21.3%)	1,761 (39.3%)	718 (16.0%)	3.4 (SD=1.2)
25-2. 외국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1,318 (29.4%)	1,514 (33.8%)	813 (18.1%)	669 (14.9%)	169 (3.8%)	2.3 (SD=1.2)
25-3.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688 (15.3%)	1,222 (27.3%)	1,084 (24.2%)	1,202 (26.8%)	287 (6.4%)	2.8 (SD=1.2)
25-4. 사회정치적 견해가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397 (8.9%)	810 (18.1%)	1,164 (26.0%)	1,606 (35.8%)	506 (11.3%)	3.2 (SD=1.1)
25-5. 전공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293 (6.5%)	555 (12.4%)	723 (16.1%)	1,805 (40.3%)	1,107 (24.7%)	3.6 (SD=1.2)
25-6. 학번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106 (2.4%)	313 (7.0%)	653 (14.6%)	1,982 (44.2%)	1,429 (31.9%)	4.0 (SD=1.0)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성별 국적, 전공, 학번 등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번, 전공, 성별 순이다. 이를 긍정응답(4~5점) 비율로 다시 보면 이성 친구 55.3%, 외국인 18.7%,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33.2%, 사회정치적 견해 47.1%, 타 전공 65%, 타 학번 76.1%로 나타나 외국인 학우들과의 교류기회가 가장 적고 타 학번과의 교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가 대학 입학 이후 새로 사귀 친구인지 고교 동문과 같이 원래 알던 친구인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성 친구에 부정응답(1~2점)을 한 비율도 23.4%를 보여 학과별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 편중 현상에 기인하거나 교양 수업에서 팀별 과제 시 이성 학우와의 교류 기회가 보편적인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를 외국인 응답자만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4>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 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25-1. 이성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팀플, 그룹활동, 식사 등)	7 (10.1%)	13 (18.8%)	11 (15.9%)	25 (36.2%)	13 (18.8%)	3.3 (SD=1.3)
25-2. 외국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3 (4.3%)	11 (15.9%)	8 (11.6%)	28 (40.6%)	19 (27.5%)	3.7 (SD=1.2)
25-3.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3 (4.3%)	13 (18.8%)	22 (31.9%)	26 (37.7%)	5 (7.2%)	3.2 (SD=1.0)
25-4. 사회정치적 견해가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2 (2.9%)	12 (17.4%)	19 (27.5%)	27 (39.1%)	9 (13.0%)	3.4 (SD=1.0)
25-5. 전공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6 (8.7%)	10 (14.5%)	13 (18.8%)	26 (37.7%)	14 (20.3%)	3.5 (SD=1.2)
25-6. 학번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5 (7.2%)	10 (14.5%)	8 (11.6%)	32 (46.4%)	14 (20.3%)	3.6 (SD=1.2)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앞서 전체 응답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 학우들과 교류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이 다른 학우나 사회정치적 견해가 다른 학우와의 교류기회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공이 다른 학우나 학번이 다른 학우는 전체 응답보다 조금 낮았다. 외국인 학생들이 응답한 외국인이 한국인인지, 아니면 자신과 다른 국적의 외국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를 남녀 응답자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5> 남학생의 다양한 학우들과 교류기회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 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25-1. 이성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팀플, 그룹활동, 식사 등)	297 (11.8%)	451 (17.9%)	547 (21.8%)	911 (36.2%)	308 (12.3%)	3.2 (SD=1.2)
25-2. 외국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831 (33.1%)	831 (33.1%)	461 (18.3%)	315 (12.5%)	76 (3.0%)	2.2 (SD=1.1)
25-3.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427 (17.0%)	660 (26.3%)	594 (23.6%)	656 (26.1%)	177 (7.0%)	2.8 (SD=1.2)
25-4. 사회정치적 견해가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265 (10.5%)	458 (18.2%)	620 (24.7%)	885 (35.2%)	286 (11.4%)	3.2 (SD=1.2)
25-5. 전공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190 (7.6%)	340 (13.5%)	437 (17.4%)	1,006 (40.0%)	541 (21.5%)	3.5 (SD=1.2)
25-6. 학번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71 (2.8%)	199 (7.9%)	396 (15.8%)	1,107 (44.0%)	741 (29.5%)	3.9 (SD=1.0)

남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과 비교하여 이성 학우와의 교류기회가 조금 낮았고, 나머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학우들과의 교류기회는 아래와 같다.

<표 2-66> 여학생의 다양한 학우들과 교류기회

	전혀 아니다 < 1 >	아니다 < 2 >	보통 이다 < 3 >	그렇다 < 4 >	매우 그렇다 < 5 >	평균 (편차)
25-1. 이성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팀플, 그룹활동, 식사 등)	72 (3.7%)	229 (11.6%)	408 (20.7%)	850 (43.2%)	410 (20.8%)	3.7 (SD=1.0)
25-2. 외국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487 (24.7%)	683 (34.7%)	352 (17.9%)	354 (18.0%)	93 (4.7%)	2.4 (SD=1.2)
25-3.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261 (13.3%)	562 (28.5%)	490 (24.9%)	546 (27.7%)	110 (5.6%)	2.8 (SD=1.1)
25-4. 사회정치적 견해가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132 (6.7%)	352 (17.9%)	544 (27.6%)	721 (36.6%)	220 (11.2%)	3.3 (SD=1.1)
25-5. 전공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103 (5.2%)	215 (10.9%)	286 (14.5%)	799 (40.6%)	566 (28.7%)	3.8 (SD=1.1)
25-6. 학번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35 (1.8%)	114 (5.8%)	257 (13.1%)	875 (44.4%)	688 (34.9%)	4.0 (SD=0.9)

앞서 남학생들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성 학우, 외국인 학우, 그리고 전공이 다른 학우와의 교류기회가 다소 높은 편이다. 남녀학생들의 부정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여학생들이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가 많은 편인데, 이것이 성별 인식과 문화의 차이인지, 남학생이나 여학생으로 편중된 일부 학과의 이성과의 교류기회 부족 또는 학과 분위기 영향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공대나 간호대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배려 또는 차별 경험

이번에는 자신이 타인을 도와주었거나 도움을 받은 경험, 다양한 조건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험,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목격한 경험, 또는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행사한 경험 등을 물어보았다. 배려 또는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7> 이번 학기의 배려 또는 차별 경험

	전혀 없음 < 1 >	매우 드물게 < 2 >	가끔 < 3 >	자주 < 4 >	일상적 으로 < 5 >	평균 (편차)
26-1.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었다.	128 (2.9%)	559 (12.5%)	2,324 (51.8%)	1,126 (25.1%)	346 (7.7%)	3.2 (SD=0.9)
26-2. 다른 사람이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166 (3.7%)	654 (14.6%)	2,234 (49.8%)	1,195 (26.7%)	234 (5.2%)	3.2 (SD=0.9)
26-3.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212 (4.7%)	763 (17.0%)	2,005 (44.7%)	1,256 (28.0%)	247 (5.5%)	3.1 (SD=0.9)
26-4. 나의 조건(성별, 국적,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 등)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한다고 느꼈다.	2,868 (64.0%)	1,103 (24.6%)	364 (8.1%)	117 (2.6%)	31 (0.7%)	1.5 (SD=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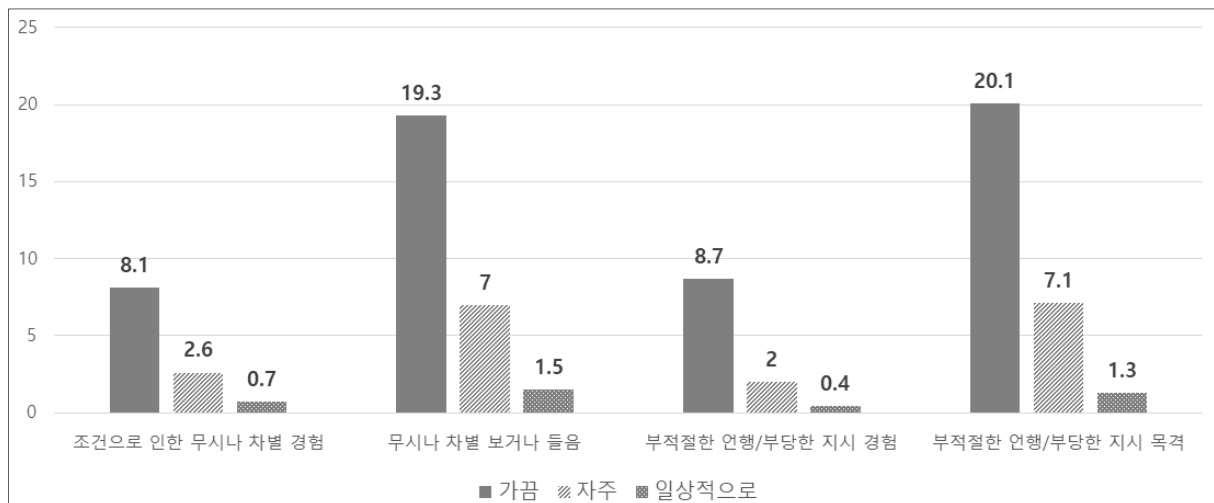
	전혀 없음 < 1 >	매우 드물게 < 2 >	가끔 < 3 >	자주 < 4 >	일상적 으로 < 5 >	평균 (편차)
26-5. 다른 사람이 조건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1,867 (41.6%)	1,372 (30.6%)	866 (19.3%)	312 (7.0%)	66 (1.5%)	2.0 (SD=1.0)
26-6. 내가 다른 사람을 조건 때문에 무시하거나 차별하였다.	3,166 (70.6%)	1,034 (23.1%)	225 (5.0%)	46 (1.0%)	12 (0.3%)	1.4 (SD=0.7)
26-7. 내가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	2,949 (65.8%)	1,037 (23.1%)	390 (8.7%)	90 (2.0%)	17 (0.4%)	1.5 (SD=0.8)
26-8.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1,959 (43.7%)	1,245 (27.8%)	901 (20.1%)	319 (7.1%)	59 (1.3%)	1.9 (SD=1.0)
26-9.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3,406 (76.0%)	820 (18.3%)	209 (4.7%)	39 (0.9%)	9 (0.2%)	1.3 (SD=0.6)

위 표는 다양한 질문이 섞여 있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배려와 도움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응답(1~2점)이 26-1번 15.4%, 26-2번 18.3%, 26-3번 21.7%로 자신이 타인을 배려하거나 도와준 경험의 부정응답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무시나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응답(1~2점)이 26-4번 88.6%, 26-5번 72.2%, 26-6번 93.7%로 나타나 자신이 직접 차별한 적은 거의 없지만 타인의 경험을 목격한 경우는 적지 않았다. 무시나 차별을 가끔, 자주 또는 일상적으로(3~5점) 경험한다는 응답은 11.4%, 목격한 경험은 27.8%, 자신이 직접 차별한 경험은 6.3%로 나타나 무시나 차별 경험을 듣거나 본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질문에 가끔, 자주 또는 일상적이라고 답한 응답(3~5점)이 26-7번 11.1%, 26-8번 24.5%, 26-9번 5.8%로 앞서 무시 또는 차별경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위 내용 중 차별 경험이나 목격,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지시 경험과 목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0> 이번 학기 차별 경험

(단위: %)



위의 내용을 보면 무시나 차별 경험,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경험이 적지 않으며, 특히 들었거나 목격한 경우는 직접 경험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 피해자에게서 직접 경험을 들은 것 이외에 소문, 학생들의 소셜네트워크(에브리타임, 대나무숲, 스누라이프 등), 언론 보도기사 등을 통해 특정 사건을 들은 간접적인 경험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차별이나 부당한 지시 등의 경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직문화의 점검과 예방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표 2-68> 외국인 학생의 배려 또는 차별 경험

	전혀 없음 < 1 >	매우 드물게 < 2 >	가끔 < 3 >	자주 < 4 >	일상적 으로 < 5 >	평균 (편차)
26-1.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었다.	2 (2.9%)	4 (5.8%)	26 (37.7%)	29 (42.0%)	8 (11.6%)	3.5 (SD=0.9)
26-2. 다른 사람이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2 (2.9%)	9 (13.0%)	30 (43.5%)	25 (36.2%)	3 (4.3%)	3.3 (SD=0.9)
26-3.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1 (1.4%)	14 (20.3%)	19 (27.5%)	29 (42.0%)	6 (8.7%)	3.4 (SD=1.0)
26-4. 나의 조건(성별, 국적,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 등)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한다고 느꼈다.	12 (17.4%)	16 (23.2%)	23 (33.3%)	13 (18.8%)	5 (7.2%)	2.8 (SD=1.2)
26-5. 다른 사람이 조건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9 (13.0%)	16 (23.2%)	24 (34.8%)	12 (17.4%)	8 (11.6%)	2.9 (SD=0.9)
26-6. 내가 다른 사람을 조건 때문에 무시하거나 차별하였다.	45 (65.2%)	14 (20.3%)	7 (10.1%)	3 (4.4%)	0 (0%)	1.5 (SD=0.9)
26-7. 내가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	36 (52.2%)	15 (21.7%)	14 (20.3%)	3 (4.3%)	1 (1.4%)	1.8 (SD=1.0)
26-8.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20 (29.0%)	22 (31.9%)	22 (31.9%)	3 (4.3%)	2 (2.9%)	2.2 (SD=1.0)
26-9.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56 (81.2%)	6 (8.7%)	5 (7.2%)	2 (2.9%)	0 (0%)	1.3 (SD=0.7)

외국인 학생들의 응답을 전체 응답과 비교해 보면 26-4번의 응답과 같이 외국인 학생들이 차별에 대해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답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험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9> 남학생의 배려 또는 차별 경험

	전혀 없음 < 1 >	매우 드물게 < 2 >	가끔 < 3 >	자주 < 4 >	일상적 으로 < 5 >	평균 (편차)
26-1.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었다.	95 (3.8%)	371 (14.8%)	1,296 (51.6%)	572 (22.8%)	180 (7.2%)	3.1 (SD=0.9)
26-2. 다른 사람이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118 (4.7%)	411 (16.3%)	1,240 (49.3%)	629 (25.0%)	116 (4.6%)	3.1 (SD=0.9)
26-3.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161 (6.4%)	478 (19.0%)	1,118 (44.5%)	643 (25.6%)	114 (4.5%)	3.0 (SD=0.9)
26-4. 나의 조건(성별, 국적,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 등)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한다고 느꼈다.	1,778 (70.7%)	521 (20.7%)	147 (5.8%)	54 (2.1%)	14 (0.6%)	1.4 (SD=0.7)
26-5. 다른 사람이 조건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1,196 (47.6%)	727 (28.9%)	422 (16.8%)	133 (5.3%)	36 (1.4%)	1.8 (SD=1.0)
26-6. 내가 다른 사람을 조건 때문에 무시하거나 차별하였다.	1,848 (73.5%)	491 (19.5%)	129 (5.1%)	35 (1.4%)	11 (0.4%)	1.4 (SD=0.7)
26-7. 내가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	1,756 (69.8%)	502 (20.0%)	202 (8.0%)	42 (1.7%)	12 (0.5%)	1.4 (SD=0.8)
26-8.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1,261 (50.2%)	661 (26.3%)	405 (16.1%)	157 (6.2%)	30 (1.2%)	1.8 (SD=1.0)
26-9.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1,914 (76.1%)	439 (17.5%)	126 (5.0%)	27 (1.1%)	8 (0.3%)	1.3 (SD=0.6)

남학생의 경험을 전체 응답과 비교해 보면 문항별 평균점수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 중 무시나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나 매우 드물다고 한 응답이 91.4%,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를 당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매우 드물다는 응답이 89.8%로 앞서 전체 응답자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외국인 응답과 비교하면 비율에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여학생의 응답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표 2-70> 여학생의 배려 또는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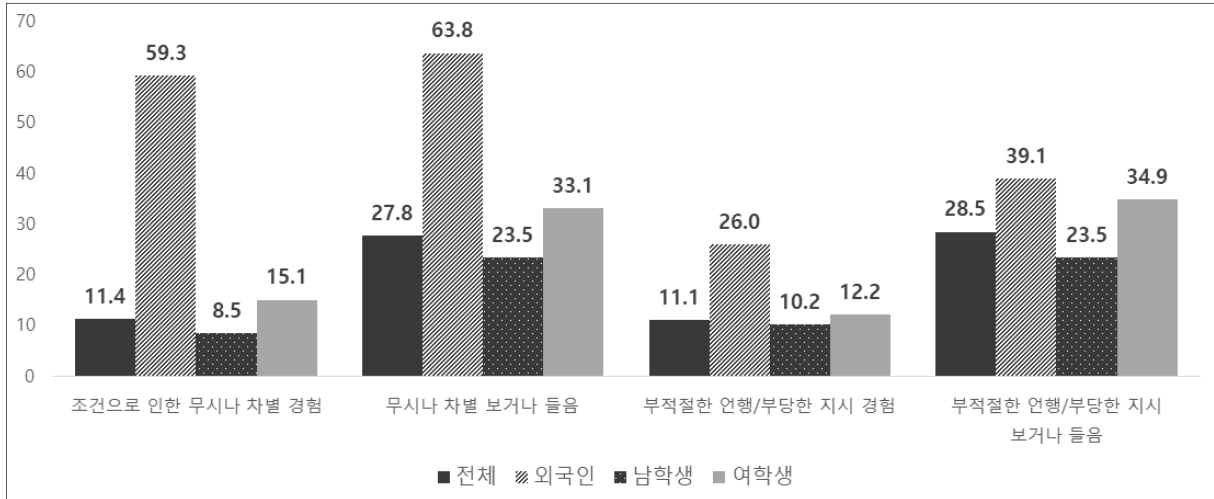
	전혀 없음 < 1 >	매우 드물게 < 2 >	가끔 < 3 >	자주 < 4 >	일상적 으로 < 5 >	평균 (편차)
26-1.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었다.	33 (1.7%)	188 (9.5%)	1,028 (52.2%)	554 (28.1%)	166 (8.4%)	3.3 (SD=0.8)
26-2. 다른 사람이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48 (2.4%)	243 (12.3%)	994 (50.5%)	566 (28.7%)	118 (6.0%)	3.2 (SD=0.8)
26-3.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51 (2.6%)	285 (14.5%)	887 (45.0%)	613 (31.1%)	133 (6.8%)	3.2 (SD=0.9)
26-4. 나의 조건(성별, 국적,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 등)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한다고 느꼈다.	1,090 (55.4%)	582 (29.6%)	217 (11.0%)	63 (3.2%)	17 (0.9%)	1.6 (SD=0.9)
26-5. 다른 사람이 조건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671 (34.1%)	645 (32.8%)	444 (22.5%)	179 (9.1%)	30 (1.5%)	2.1 (SD=1.0)
26-6. 내가 다른 사람을 조건 때문에 무시하거나 차별하였다.	1,318 (66.9%)	543 (27.6%)	96 (4.9%)	11 (0.6%)	1 (0.1%)	1.4 (SD=0.6)
26-7. 내가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	1,193 (60.6%)	535 (27.2%)	188 (9.5%)	48 (2.4%)	5 (0.3%)	1.5 (SD=0.8)
26-8.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698 (35.4%)	584 (29.7%)	496 (25.2%)	162 (8.2%)	29 (1.5%)	2.1 (SD=1.0)
26-9.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1,492 (75.8%)	381 (19.3%)	83 (4.2%)	12 (0.6%)	1 (0.1%)	1.3 (SD=0.6)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응답(3~5점)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무시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거나 매우 드물다고 답한 비율은 85.0%로 남학생의 91.4%에 비하면 경험률이 다소 높은 편이며, 차별을 들었거나 목격한 경험은 응답자의 66.9%가 없거나 매우 드물다고 답했다. 이는 남학생의 76.5%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다소 많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앞의 표에서 무시나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를 그룹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1> 그룹별 이번 학기 차별 경험

(단위: %)



위의 비율은 각 문항에 대해 ‘가끔’, ‘자주’, ‘일상적으로’ 세 가지 응답을 합한 값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차별 경험이나 목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교에서는 여학생의 차별 및 목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나 외국인이나 여학생이 느끼는 차별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그룹의 관점이나 입장을 좀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4) 서울대 문화와 사회공헌

학생들에게 서울대의 문화와 사회공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2-71> 서울대 문화와 사회공헌에 대한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 >	동의하지 않는다 < 2 >	보통 이다 < 3 >	동의 한다 < 4 >	매우 동의 한다 < 5 >	평균 (편차)
27-1. 서울대는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권리를 존중한다.	159 (3.5%)	761 (17.0%)	1,866 (41.6%)	1,533 (34.2%)	164 (3.7%)	3.2 (SD=0.9)
27-2. 서울대는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학문공동체이다.	263 (5.9%)	992 (22.1%)	1,768 (39.4%)	1,292 (28.8%)	168 (3.7%)	3.0 (SD=0.9)
27-3. 서울대는 의견 수렴과 소통을 중시한다.	308 (6.9%)	1,156 (25.8%)	1,676 (37.4%)	1,183 (26.4%)	160 (3.6%)	2.9 (SD=1.0)
27-4. 서울대는 국제화에 적극적이다.	151 (3.4%)	676 (15.1%)	1,587 (35.4%)	1,724 (38.5%)	345 (7.7%)	3.3 (SD=0.9)
27-5. 서울대 캠퍼스들은 안전한 생활공간이다.	66 (1.5%)	246 (5.5%)	813 (18.1%)	2,257 (50.3%)	1,101 (24.6%)	3.9 (SD=0.9)
27-6. 서울대 학생들은 한국과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	99 (2.2%)	294 (6.6%)	1,210 (27.9%)	2,167 (48.3%)	713 (15.9%)	3.7 (SD=0.9)
27-7. 서울대는 인류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108 (2.4%)	308 (6.9%)	1,396 (31.1%)	2,019 (45.0%)	652 (14.5%)	3.6 (SD=0.9)

위의 7가지 문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서울대가 안전한 생활공간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서울대가 인재 양성과 연구를 통해 한국과 세계, 나아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평균점수가 높았고 긍정응답(4~5점)도 많았다.

이를 다시 부정응답(1~2점) 결과로 비교해 봐도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학문공동체인가, 의견 수렴과 소통을 중시하는가에 대한 부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과 소통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학생의 답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2-72> 외국인 학생의 서울대 문화와 사회공헌에 대한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 >	동의하지 않는다 < 2 >	보통 이다 < 3 >	동의 한다 < 4 >	매우 동의 한다 < 5 >	평균 (편차)
27-1. 서울대는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권리를 존중한다.	7 (10.1%)	15 (21.7%)	24 (34.8%)	21 (30.4%)	2 (2.9%)	2.9 (SD=1.0)
27-2. 서울대는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학문공동체이다.	6 (8.7%)	15 (21.7%)	24 (34.8%)	22 (31.9%)	2 (2.9%)	3.0 (SD=1.0)
27-3. 서울대는 의견 수렴과 소통을 중시한다.	6 (8.7%)	18 (26.1%)	26 (37.7%)	17 (24.6%)	2 (2.9%)	2.9 (SD=1.0)
27-4. 서울대는 국제화에 적극적이다.	11 (15.9%)	21 (30.4%)	21 (30.4%)	11 (15.9%)	5 (7.2%)	2.7 (SD=1.1)
27-5. 서울대 캠퍼스들은 안전한 생활공간이다.	0 (0%)	1 (1.4%)	6 (8.7%)	32 (46.4%)	30 (43.5%)	4.3 (SD=0.7)
27-6. 서울대 학생들은 한국과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	1 (1.4%)	1 (1.4%)	19 (27.5%)	41 (59.4%)	7 (10.1%)	3.8 (SD=0.7)
27-7. 서울대는 인류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2 (2.9%)	3 (4.3%)	23 (33.3%)	36 (52.2%)	5 (7.2%)	3.6 (SD=0.8)

외국인 학생들의 응답을 전체 응답과 비교해 보면 내국인 학생들에 비해 위의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5번부터 7번까지의 문항은 동의 비율이 높았다.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은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상황과 비교한 결과이므로 서울대의 구성원 존중 문화와 국제화가 외국인의 관점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5)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 문제점, 개선점, 칭찬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문제점/제안, 만족/칭찬, 그리고 기타이다. 기타는 어디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소수의견으로 총 159개의 응답이 있었다. 우선 문제점/제안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3>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문제점/제안)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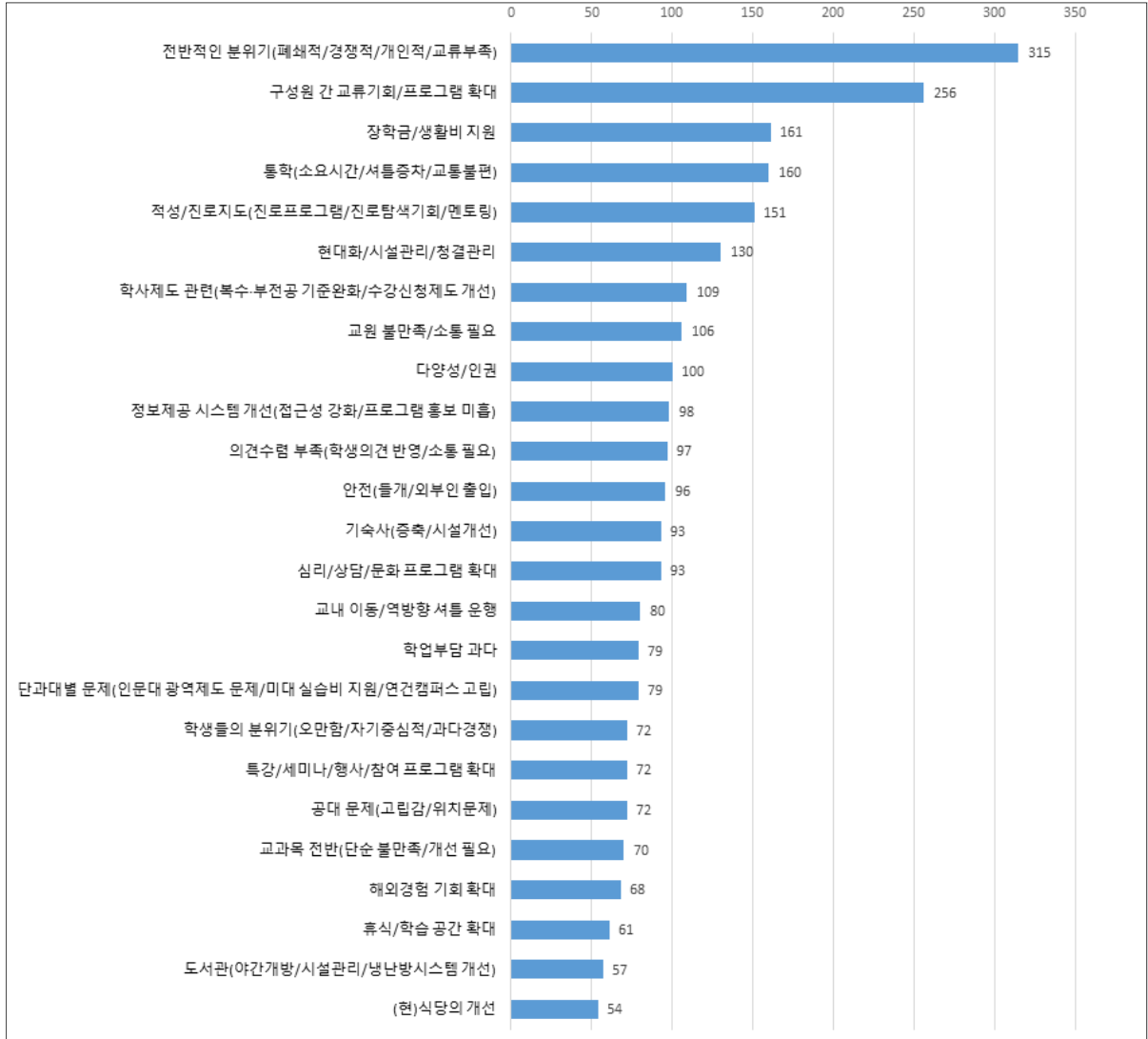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대학문화	전반적인 분위기(폐쇄적/경쟁적/개인적/교류부족 등)	315	61.4	10.5
	의견수렴 부족(학생의견 반영/소통 필요)	97	18.9	3.2
	학생들의 분위기(과다경쟁/오만함/자기중심적 등)	72	14.0	2.4
	학교의 미래를 위한 바람	29	5.7	1.0
	소계	513	100.0	17.0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시설	현대화/시설관리/청결관리	130	28.4	4.3
	안전(들개, 외부인 출입 등)	96	21.0	3.2
	기숙사(증축/시설개선)	93	20.3	3.1
	휴식/학습 공간 확대	61	13.3	2.0
	도서관(야간개방/시설관리/냉난방시스템 개선 등)	57	12.4	1.9
	운동시설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 확대	14	3.1	0.5
	학생회관 보수(CCTV/엘리베이터/청결 등)	7	1.5	0.2
	소계	458	100.0	15.2
프로그램/소통 기회	구성원 간 교류기회/프로그램 확대	256	60.0	8.5
	특강/세미나/행사/참여 프로그램 확대	72	16.9	2.4
	해외경험 기회 확대	68	15.9	2.3
	동아리/학회/학생활동 지원	27	6.3	0.9
	외국어 교육	4	0.9	0.1
	소계	427	100.0	14.2
교육/상담/멘 토링	적성/진로지도(진로프로그램/진로탐색/멘토링 등)	151	58.8	5.0
	심리/상담/문화 프로그램 확대	93	36.2	3.1
	학업관련 멘토링/프로그램 확대	13	5.1	0.4
	소계	257	100.0	8.5
교통	통학(소요시간/셔틀증차/교통불편 등)	160	66.7	5.3
	교내 이동/역방향 셔틀 운행	80	33.3	2.7
	소계	240	100.0	8.0
학사제도	학사제도 관련(복수·부전공 성적 기준완화/ 수강신청제도 개선 등)	109	46.8	3.6
	학업부담 과다	79	33.9	2.6
	절대평가 확대	45	19.3	1.5
	소계	233	100.0	7.7
장학금/등록금	장학금/생활비 지원	161	97.0	5.3
	등록금	5	3.0	0.2
	소계	166	100.0	5.5
단과대별 문제	단과대별 문제(인문대 광역제도 문제/미대 실습비 지원/연건캠퍼스 고립 등)	79	52.3	2.6
	공대 문제(고립감/위치문제 등)	72	47.7	2.4
	소계	151	100.0	5.0
행정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접근성 강화/프로그램 홍보 미흡 등)	98	66.7	3.3
	학교 서비스에 대한 불만	26	17.7	0.9
	행정처리(비효율성/간편화/현대화)	23	15.6	0.8
	소계	147	100.0	4.9
수업	교과목 전반(단순 불만족/개선 필요)	70	50.4	2.3
	교과목 개설	46	33.1	1.5
	강의형식의 변화 필요	23	16.5	0.8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소계	139	100.0	4.6
교원 불만족 /소통 필요	교원 불만족/소통 필요	106	100.0	3.5
	소계	106	100.0	3.5
다양성/인권	다양성/인권	100	100.0	3.3
	소계	100	100.0	3.3
식당시설	(현)식당의 개선	54	71.1	1.8
	식당/프랜차이즈/카페 추가 설치	22	28.9	0.7
	소계	76	100.0	2.5
합계		3,013	100.0	100.0

위의 표를 보면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 전반적인 분위기나 다양한 교류/소통 기회의 부족은 앞서 여러 문항에서 나왔던 응답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앞서 서울대가 안전한 생활공간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 언급한 경우도 96개나 되었다. 소수 의견이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아 최대한 자세하게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문제점 또는 제안사항에 대해 중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과제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구분하여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빈도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2>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문제점/제안)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내 분위기 개선과 다양한 교류/소통 기회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반적인 분위기와 소통기회의 부족을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앞서 서울대학교의 문화를 묻는 문항에서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분위기라는 응답 결과와 맞닿아있다. 장학금/생활비 지원, 통학, 학사제도 전반(예: 수강신청,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점에서 학교 운영 전반에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만족/칭찬 영역에 속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4>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 재분류(만족/칭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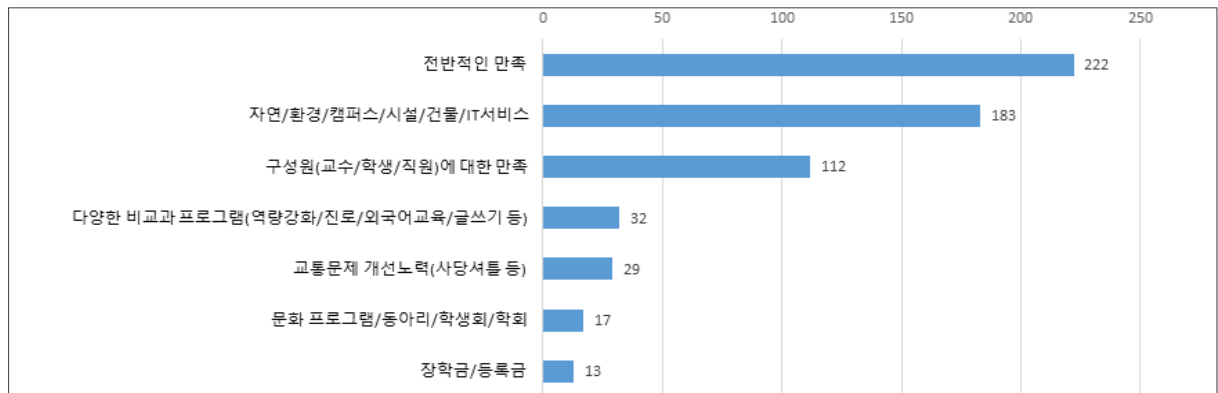
(단위: 개, %)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전반적 만족	전반적 만족	222	100.0	36.5
	소계	222	100.0	36.5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물리적 자원	자연/환경/캠퍼스/시설/건물/IT서비스	183	100.0	30.1
	소계	183	100.0	30.1
인간관계/대화/소통	구성원(교수/학생/직원)에 대한 만족	112	100.0	18.4
	소계	112	100.0	18.4
서비스 지원	교통문제 개선노력(사당셔틀 등)	29	31.9	4.8
	문화 프로그램/동아리/학생회/학회	17	18.7	2.8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역량강화/진로/외국어교육/글쓰기 등)	32	35.2	5.3
	장학금/등록금	13	14.3	2.1
	소계	91	100.0	15.0
합계		608	100.0	100.0

만족/칭찬 영역을 빈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3>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만족/칭찬)



전체 의견 중 만족/칭찬도 적지 않았다.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가장 많았고, 넓은 캠퍼스와 현대화된 시설, 구성원에 대한 만족이 뒤를 이었다.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학생들에게 서울대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한 가지씩만 자유롭게 적어보게 하였다. 총 4,291개의 다양한 제안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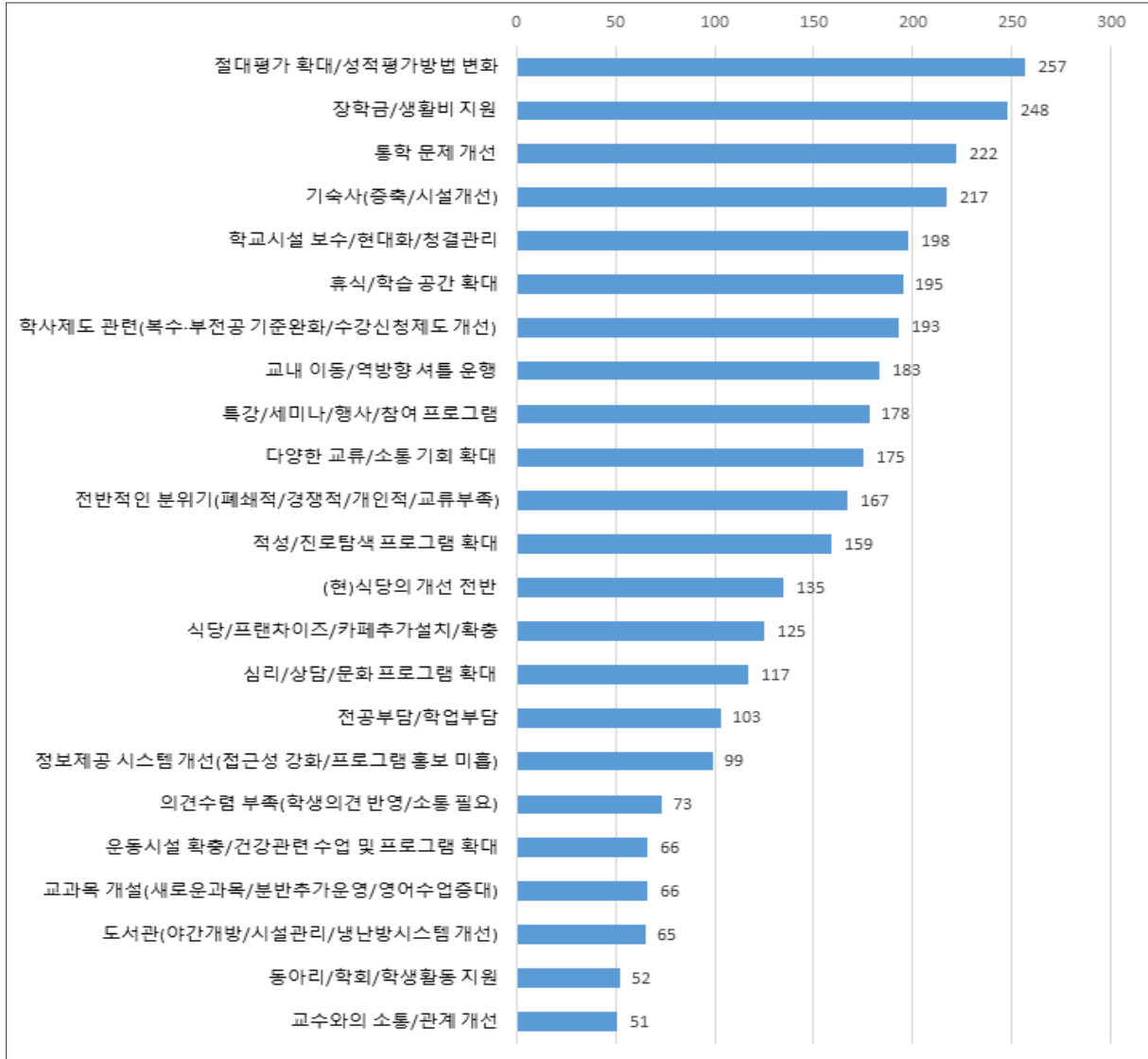
(단위: 개, %)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시설	기숙사(증축/시설개선)	217	28.1	5.1
	학교시설 보수/현대화/청결관리	198	25.7	4.6
	휴식/학습 공간 확대	195	25.3	4.5
	운동시설 확충/건강관련 수업 및 프로그램 확대	66	8.6	1.5
	도서관(야간개방/시설관리/냉난방시스템 개선)	65	8.4	1.5
	안전(들개/외부인 출입)	25	3.2	0.6
	학생회관 보수(CCTV/엘리베이터/청결관리)	5	0.6	0.1
	소계	771	100.0	18.0
학사제도	절대평가 확대/성적평가방법 변화	257	43.2	6.0
	학사제도 관련 (복수·부전공 성적기준완화/수강신청제도 개선)	193	32.4	4.5
	전공부담/학업부담	103	17.3	2.4
	시험기간 제한/학사일정 지키기(수업일정)	42	7.1	1.0
	소계	595	100.0	13.9
프로그램/ 기획	특강/세미나/행사/참여 프로그램	178	38.6	4.1
	다양한 교류/소통 기회 확대	175	38.0	4.1
	동아리/학회/학생활동 지원	52	11.3	1.2
	해외경험/국제화 프로그램 수혜 기회 확대	27	5.9	0.6
	전공프로그램/재료 지원	12	2.6	0.3
	인문교양/글쓰기/독서	9	2.0	0.2
	인턴십 기획	5	1.1	0.1
	창업지원	3	0.7	0.1
	소계	461	100.0	10.7
교통	통학 문제 개선	222	85.0	5.2
	교내 이동/역방향 셔틀 운행	183	15.0	4.3
	소계	405	100.0	9.4
교육/상담/ 멘토링	적성/진로탐색 프로그램 확대	159	50.6	3.7
	심리/상담/문화 프로그램 확대	117	37.3	2.7
	학업관련 프로그램 확대 (학업도우미/멘토링/고시반 등)	38	12.1	0.9
	소계	314	100.0	7.3

분류1	분류2	응답 수	비율	전체비율
대학문화	전반적인 분위기(폐쇄적/경쟁적/개인적/교류부족)	167	55.7	3.9
	의견수렴 부족(학생의견 반영/소통 필요)	73	24.3	1.7
	교수와의 소통/관계 개선	51	17.0	1.2
	학생들의 분위기 개선(경쟁과다/독립적)	9	3.0	0.2
	소계	300	100.0	7.0
장학금/ 등록금	장학금/생활비 지원	248	92.9	5.8
	등록금 지원/인하	19	7.1	0.4
	소계	267	100.0	6.2
식당	(현)식당의 개선 전반	135	51.9	3.1
	식당/프랜차이즈/카페추가설치/확충	125	48.1	2.9
	소계	260	100.0	6.1
기타	기타	133	66.8	3.1
	공대 문제(고립감/위치문제)	32	16.1	0.7
	연건캠퍼스 문제 (학습공간 확충/식당개선/도서관 야간운영)	26	13.1	0.6
	캠퍼스투어 제한	4	2.0	0.1
	온라인 커뮤니티(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활성화)	4	2.0	0.1
	소계	199	100.0	4.6
수업	교과목 개설 (새로운과목/분반추가운영/영어수업증대)	66	42.3	1.5
	강의 형식의 변화 필요	40	25.6	0.9
	교과목 전반(단순 불만족/개선 필요)	25	16.0	0.6
	연구/탐구기회/자아성찰기회제공	25	16.0	0.6
	소계	156	100.0	3.6
행정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접근성 강화/프로그램 홍보 미흡)	99	80.5	2.3
	행정 전반(수강취소 전산화/효율적인 행정처리)	24	19.5	0.6
	소계	123	100.0	2.9
다양성/인권	다양성/인권 존중문화의 확산	40	100	0.9
	소계	40	100	0.9
합계		4,291	100.0	100.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내용은 앞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분류2를 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 분류에 따르면 시설(18.0%), 학사제도(13.9%), 프로그램/기회(10.7%), 교통(9.4%), 교육/상담/멘토링(7.3%), 대학문화(7.0%), 장학금/등록금(6.2%), 식당(6.1%)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한편 세부내용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학생들의 제안을 구체적인 내용별로 살펴보면 절대평가 확대 등 성적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성적이 학생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 통학, 기숙사/주거문제, 학교 시설관리, 학사제도 전반, 교내이동 등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였다.

III. 정책 제언

지금까지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보고, 집단별 차이도 분석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5개의 주관식 문항은 각각 수 천 개의 응답을 몇 십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단기와 중장기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단기과제

1) 학생제안 우선과제

설문지 마지막 문항에서 학생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요청하였다.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내용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학과 교내이동을 합하면 교통문제가 405명으로 가장 많은 제안이 나왔다. 전체 제안 의견의 9.4%를 차지하였다. 지하철역과의 연계강화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해 사당역에 셔틀을 배치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침에 셔틀을 타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셔틀버스 정거장의 위치, 배차간격 등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서부선이나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의 환승으로 인한 소요시간이 지금보다 개선되겠지만 아직 개통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생활시간 조사에서 통학시간의 편차가 큰 편이었는데 하루 3~4시간을 통학에 쓰는 학생들은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교내이동 역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로서 수업시간표를 짤 때도 이동거리와 시간이 주요변수가 된다. 현재 교내 셔틀이 한 방향으로 운행 중이며 배차간격도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다른 이동수단의 보급이나 셔틀 운영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캠퍼스 관리과의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역방향 순환셔틀이 한 대 운행되고 있었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기존 한 대에서 두 대로 증차되며, 배차 간격도 평시 15분, 점심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교내이동의 불편함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 기대되며, 앞으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학 문제는 전체 의견의 5.1%에 해당하는 217명이 제안한 기숙사/주거문제와 맞닿아있다. 응답자의 주거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36.9%였고, 나머지는 자취,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 자취의 경우 월세부담이 크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통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를 위해 시설을 증축하거나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하여 학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단일 안건으로 가장 많은 의견은 성적평가방법에 대한 제안이었다. 257명이 제안하여 전체 의견의 6.0%를 차지하였다. 명실공히 성적이 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해결책은 절대평가의 확대이다.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성적평가방법의 다변화, 최근 로스쿨에서 도입한 S+, S, U의 3단계 평가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의 확대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의 확대 요구가 많았다. 248명이 제안하였고, 5.8%를 차지한다. 설문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재원을 물어보았는데, 등록금의 경우 교내외 장학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이 69%에 달했다. 생활비는 교내외 생활장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84.3%였고,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용돈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은 15.6%였다. 학부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기대보다 높지 않았으며 학교 예산에서 장학금 재원을 더 확충할 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장학금 제도가 개편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난해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성적장학금은 맞춤형 장학금으로 개편되어 유지되며, 근로장학금 배정인원을 증원하고 시급 인상(9,000원), 긴급구호장학금 신설, 또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인재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의 0~1분위에서 0~2분위로 확대된다. 즉 맞춤형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이 확대되며 긴급구호장학금을 통해 장학금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면 학생들의 요구가 부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기준에 맞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2) 대학생활 지원

첫째, 건강관리와 고민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대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앞서 생활시간 조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공부와 진로 준비에 매진하는 시간이 늘고 건강관리와 여가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울증이나 탈진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며, 증세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평상시에 자기 돌봄을 잘 하도록 예방적 교육도 확대되면 좋을 것이다. 최근 단과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상담기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하지만 설문지의 고민상담 대상을 묻는 문항에서 교수와의 상담이나 학내 상담기관과의 상담 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을 보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교수와의 상담은 면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며, 대학생활문화원이나 단과대학 상담기구의 경우 현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혹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장벽은 없는지 상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미술대학의 경우 대학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건강관리 점수 역시 가장 낮았다. 분야의 특성이 물론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미대 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알아보니 타 단과대학에 비해 등록금은 비싸지만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진로 또한 불투명한 편이다. 과제 작업에 필요한 Adobe SW, 컴퓨터(노트북), 출력, 재료구입 등에 발생하는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공간 역시 부족하다. 이러한 여건이 대학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건강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환경과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청결관리, 학습공간 확대 및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카페 확충, 야외 의자와 도서관에 편하게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 설치, 수면실 등 휴식공간 확대, 도서관과 학생회관 관련 시설 보수, 자건거(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보급, 운동시설 접근성 확대 등 건강한 대학생활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많았다. 또한 윗공대나 연건캠퍼스의 물리적 고립으로 인한 불편함과 소외감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어떤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며, 자하연과 같은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환경과 시설 개선 의견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구입비용

지원 등도 해당된다.

서울대 캠퍼스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한번 들어오면 학교 안에서 하루 종일 생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학습 관련 시설과 단조로운 편의시설이 대부분인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기 어렵다. 다양한 식당, 스트레스를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과대학별로도 건물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환경적 요인들은 학생들이 실제 사회를 관찰하고 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경험의 기회를 줄이며, 활발한 교류를 막고 개인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등, <표 2-63>에서 본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이런 환경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셋째, 여러 문항에서 외국인 학생은 낮은 대학생활 만족도, 건강관리 점수 등 내국인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차별경험을 묻는 문항에도 경험하였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대의 구성원 존중 문화와 국제화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생활시간 조사에서 강의와 강의관련 공부 시간이 매우 높았고, 강의 외 공부와 활동 시간은 낮은 편이었다. 서울대는 학부생 중 외국인 학생이 198명으로 비율이 낮은 편이라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어 그들이 처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를 묻는 문항에서 외국인 학우들과의 교류기회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 교환학생 대상의 스누버디 프로그램과 같이 내외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을 것이다.

3) 기타 제안

첫째, 학사운영과 관련된 의견들이 많았다. 의견은 매우 다양했는데, 학사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수강신청과 취소 절차의 문제, 타 전공 수업 접근의 어려움, 외국어과목 부족, 시험기간 제한, 수업일정 준수, 수업시간 배치 시 점심시간 확보, 행정 처리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등 학사운영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이었다. 최근 수강취소 간소화, 다전공 제도 변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순차적으로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기대된다.

둘째, 앞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에서 안전 문제를 96명의 학생들이 제안하였는데,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서울대 문화를 평가하는 문항에는 서울대가 안전한 생활공간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들개의 출몰이나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위협에의 노출 등을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CCTV 설치 확대, 위험방지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안전 문제는 사후처방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안한 단기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기과제

영역	과제	주요 내용
1. 학생제안 우선과제	교통문제(통학, 학내이동)	지하철역과 연계, 학내이동 편의성 강화 (예: 역방향 셔틀 운행, 셔틀 외 이동수단 확대 등)
	성적평가방법	절대평가 확대, 성적평가방법 다양화
	장학금/생활비 지원	장학금 혜택 및 생활비 지원대상 확대
	기숙사/주거문제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학외 주거시설 확보 등
2. 대학생활 지원	건강관리와 고민상담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의 조화 필요 탈진상태 관리와 예방, 상담창구 활성화(교수/상담기구)
	환경과 시설 개선	학습/휴식공간, 문화시설, 학생회관, 윗공대/연건 등
	외국인 학생 지원	대학생활 만족도 낮고 건강관리와 여가시간 적음
3. 기타 제안	학사 운영 전반	다양한 교과목 개설, 수강신청, 타 전공 수강, 정보제공 등
	안전 문제	들개, 외부인 출입 등

2. 중장기과제

1) 학부교육의 방향 전환

첫째, 학생들의 고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식이 편향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식과 기술’ 문항에서 학문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사회변화와 세계에 대한 이해 부분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능력과 자세’ 문항은 윤리적·도덕적 사고와 판단력 함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를 전공공부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 졸업 이후 조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규범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학부교육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생활시간 조사에서 학생들의 강의와 강의 관련, 그리고 강의 외 공부와 활동에 쓰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과 활동을 권장하다보면 학생들이 지나치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공과 교양,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인 연구와 설계가 필요하고, 비교과 활동에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 등도 고려되면 좋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졸업 후 첫 진로방향을 묻는 문항은 학년별로 선호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진로고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졸업 후 첫 진로방향은 응답자의 40%가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였고, 눈에 띄는 특징은 기업체와 전문대학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일반대학원은 감소한다는 점이다.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우수한 학생들을 일반대학원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1학년과 비교하여 2학년의 대학원 진학희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1년 간 대학생활에서 지적 호기심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1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전반과 진로 탐색

에 대한 상담 기회가 정례화되면 좋을 것이다. 학부 기간 동안 진로 상담이나 진로 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기회가 주어지는지도 중요하다. 또한 대학의 창업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앞서 ‘이번 학기 경험’ 문항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나 개인적 탐구와 독서에 대한 긍정응답이 낮은 편이었다. 비교과 활동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외부 인턴십 등은 수요와 공급이 잘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해외 경험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비교과활동은 단기 어학연수나 국내외 문화탐방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해 보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 좋을 것이며, 지도교수의 인솔 없이 소그룹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무엇보다도 서울대의 실질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해외 경험 기회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강의, 강의 관련 공부, 강의 외 공부와 활동 등의 시간 분포에 차이가 큰 편이었는데, 개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세 가지 영역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단과대학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2) 서울대 문화와 환경 개선

첫째,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독립적이고 경쟁적이며, 다양하고 수평적이고, 진지하고 정적인 문화로 비춰졌다. 물론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것이 연구와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관계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문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글로벌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과 공감, 소통 능력을 키우고 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라는 평가 역시 대학 고유의 도전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인 생동감과는 대치되는 결과이다. 서울대를 다양하고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의외의 결과였지만 학생의 눈높이에서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활기차고 협력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앞서 단기과제로 제시한 시설 및 환경개선과도 연결된다. 개별 학생들의 활동공간을 확장하고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문화와 환경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성위원회는 2019년 1학기부터 학생 인턴을 선발하여 ‘학생들 간 벽 허물기’를 주제로 팀별 자율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 간 출신고교나 지역, 입학전형 등에 따른 배타적인 문화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분위기라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대에 보다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작은 실천이지만 셔틀버스나 학생회관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든가 기숙사에 ‘귀가를 환영합니다’ 와 같은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연구위원의 제안도 있었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학생들이 심의기구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공청회도 열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90년대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규범 중 하나인 공정성 및 형평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거나 어떤 그룹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느낄 때 학생들이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느낄 수 있다.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증진된다면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감과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다양성/인권 증진

첫째, 다양한 학생들과의 교류가 지금보다 확대되면 좋을 것이다. 오늘날 다양성은 창의성, 수월성의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 기회를 묻는 질문에 다른 학번, 전공, 성별 순으로 교류기회가 많다고 답했지만 외국인 학우들과의 교류기회는 매우 적었고 다른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의 학우들과의 교류 기회도 낮게 나타났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과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사고가 유연해지고 지평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른 성별과의 교류기회는 학과별 성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STEM 분야의 여학생 부족 등 전공별 성별 편중현상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나를 가장 성장시켜준 경험'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가족/연인/친구와 같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꼽았고, 두 번째로 공동활동을 통한 성장을 뽑은 만큼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는 수업 운영과 수업 외 활동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 좋을 것이다. 또한 워크숍이나 문화행사 등 학과, 단과대학 또는 기숙사 차원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해외의 많은 대학들이 RC(Residential Colleg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 중심으로 많은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숙사가 학과의 벽을 넘어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모범적인 플랫폼이 되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기숙사 수용률(2019년 21.8%, 대학알리미)이 지금보다 높아지도록 시설 증축이나 외부 학사 운영 등과 같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차별경험 예방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차별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여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무시나 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었거나 보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지시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캠페인을 통해 문화를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기관 차원에서 이를 교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중장기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과제

영역	과제	주요 내용
1. 학부교육의 방향전환	균형 있는 성장	전공과 교양/교과와 비교과/문이과 융합 교과목의 조화
	진로/적성탐색 기회확대와 교육	진로탐색기회, 창업교육, 멘토링, 선배와의 만남 등
	해외 경험/비교과프로그램	교환학생, 단기연수, 인턴십, 소그룹 자율활동 등 확대
2. 서울대의 문화와 환경 개선	문화 개선 및 소통기회 확대	관계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문화 조성 노력
	의견수렴 노력	의견수렴의 과정 필요, 소통창구의 활성화
3. 다양성/인권 증진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기회	수업 및 수업 외 활동, 학과/단과대학/기숙사 차원의 노력
	차별경험 예방 및 지원	부적절한 언행/부당한 지시/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

이러한 노력에 대학 기관들이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변화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 기관의 뜻이 모아지고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할 때 조금씩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학부생의 삶의 질도 학업과 다양한 경험, 몸과 마음의 건강, 대학 전반적인 문화와 인식, 물리적 대학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며, 이들을 상호관련성 속에서 파악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본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를 국제협력본부, 관악생활관, 다양성위원회, 대학생활문화원, 인권센터의 5개 기관이 협업하여 시행한 것도 이러한 통합적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교내 기관들이 여러 방식으로 협력하여 대학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부록1]

설문지 개발에 참고한 선행연구 목록

<표 4-1> 학내 참고자료 목록

연도	기관(또는 연구책임자)	조사명	조사대상
2019	기초교육원·총학생회	학문의 세계 교과목 설문	학부생
2018	기획처·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학생
2018	평의원회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공동체 활동 및 의식 조사	전체 구성원
2018	평의원회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만족도 조사	학생
2018	다양성위원회	SNU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외국인 학생
2018	인권센터·대학신문사	성폭력·인권 침해 실태조사	학생
2017	관악학생생활관	학부생활관 재건축 컨셉 구상을 위한 의견조사	학생
2017	대학생활문화원	학부 재학생 대학생활 의견조사	학생
2016	다양성위원회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	전체 구성원
2016	인권센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	대학원생

<표 4-2> 국내외 참고자료 목록

연도	기관(또는 연구책임자)	조사명	조사대상
2019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카카오 같이가치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 2019	사회구성원
2019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국 사회의 율분 연구	일반인
2019	Young Ho Yoon et al.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Inventory in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and Normative Data	성인 남녀
2018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성인 남녀
2018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대학생용
2018	ESS ERIC	European Social Survey	사회구성원
2017	MIT	Student Quality of Life Survey	학부생
2017	코넬대	The Cornell PULSE(the Perception of Undergraduate Life and Student Experience Survey)	학부생
2017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Penn PULSE	학부생
2014	버클리대	UC Berkeley Campus Climate Survey	전체 구성원
2013	임남연 외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성인 남녀
2013	Milton J. Bonnett	Basic Concep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aradigms, Principles, & Practices	학생

[부록2]

서울대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

학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조사의 목표는 서울대 학부생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학내 5개 기관(국제협력본부, 관악학생생활관, 다양성위원회, 대학생활문화원, 인권센터)이 국내외 설문들을 참조하여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질문지는 (1) 전반 (2) 성장 (3) 생활 (4) 환경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무기명 처리되며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본 설문지의 예상 응답시간은 10분 내외이며, 아래 상품을 드립니다.

(1) 응답자 전원: 커피 기프티콘 5천원권 (발송정보를 기재한 모든 응답자)

(2) 20명 추첨: AirPods (서술식 문항 5개 중 4개 이상의 문항에 답변해 주신 응답자 중 추첨)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대 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의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C, 모바일에서 응답 가능하나 PC에 최적화 되어있으므로 PC 응답을 권장합니다.)

I. 전반

1. 다음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삶은 전반적으로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의 삶의 여건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시 산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여러분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대학생활은 전반적으로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학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울대는 내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서울대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3개 고르거나 쓰십시오.

따뜻한	개성있는	성실한	유쾌한	감성적인
이성적인	자존감 높은	열린 마음의	긍정적인	의지가 강한
자유로운	열정적인	창의적인	개인적인	신중한
영동한	차가운	기타 -----	기타 -----	기타 -----

4.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3개 고르거나 쓰십시오.

배려	정의	부	자유	사랑
명예	화합	자율	안정	도전
공정	성취	정직	신뢰	관계
진리	재미	기타 -----	기타 -----	기타 -----

5.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해시태그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점심메뉴#가을#여행은어디로.....)

#

II. 성장: 학업과 다양한 경험

6. 다음은 우리 학교를 포함한 세계 대학들의 주요 교육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능력들이 얼마나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지식과 기술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 (예: 교양과목들)	①	②	③	④	⑤
깊이 있는 지식 (예: 전공과목들)	①	②	③	④	⑤
사회 변화와 세계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되는 지식 및 기술	①	②	③	④	⑤
자료 분석 능력과 컴퓨터 활용	①	②	③	④	⑤
외국어	①	②	③	④	⑤
글쓰기	①	②	③	④	⑤

7.

■ 능력과 자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판적 · 창의적 사고력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스스로 문제와 해법을 찾는 능동적 자세	①	②	③	④	⑤
배움에 대한 사랑과 치열한 탐구 정신	①	②	③	④	⑤
윤리적 ·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	①	②	③	④	⑤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 의식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①	②	③	④	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관리 능력	①	②	③	④	⑤
어려움을 유연하게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8. 이번 학기 여러분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휴학생은 등록한 최종학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적 즐거움을 느끼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해외경험, 학생자율연구, 글쓰기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수업 외에 개인적인 탐구와 독서를 즐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교내외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친교, 취미, 문화 활동, 휴식 등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도전적으로 나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졸업 후 첫 진로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반대학원(국내)	전문대학원(국내)	대학원(해외)	공무원
기업체(공/사기업)	창업	예술분야	교육기관
프리랜서(크리에이터 등)	정치/시민활동	언론분야	의료기관
전문직(회계사 등)	해외활동(국제기구 등)	미정	기타 -----

10.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가장 성장시켜 주었습니까? (1~2줄)

III. 생활: 몸과 마음의 건강

11. 이번 학기의 일주일 중 다음 활동에 대략 몇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없는 평상시의 일주일을 가정하십시오. 중복 해당될 때에는 한번만 쓰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을 입력하십시오.)

항목	숫자입력
학교 강의 (실습, 청강 포함)	시간
강의 관련 공부 (예습, 복습, 과제, 팀플 모임 등)	시간
강의 외의 공부와 활동 (개인 공부, 독서, 비교과 활동 등. 오가는 시간 포함)	시간
교내외 아르바이트 (준비하고 오가는 시간 포함)	시간
통학	시간
수면	시간
건강관리와 여가 (식사, 운동, 취미활동, 친교, 게임, SNS 등)	시간
기타 (준비 등)	시간
합계(168)	168시간

12. 이번 학기 여러분의 경험과 대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시험이 없는 평상시를 가정하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면, 식사, 운동 등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여가와 휴식을 즐길 시간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대체로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탈진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우울증세로 전문적인 상담을 고려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들을 고르거나 쓰십시오.

가족	친구, 연인	지적인 즐거움
타인의 인정과 칭찬	발전과 성취감	만족스러운 학점
공동체의 소속감과 유대감	독립과 자유	경제적 안정
취미 활동	종교 활동	봉사 활동
휴식	미래에 대한 희망	캠퍼스의 자연과 동물
문화 행사	나에 대한 믿음	기타 -----

14. 이번 학기에 필요한 비용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100%를 기준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을 입력해 주십시오.)

<등록금>	숫자입력
교내 장학금 (학비감면, 발전기금, 근로장학금 등)	%
교외 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
가족이나 친지	%
아르바이트	%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
합계(100)	100 %

15.

<등록금을 제외한 제반 비용>	숫자입력
교내외 생활장학금 (선한인재 장학금 등)	%
가족이나 친지	%
아르바이트	%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	%
합계(100)	100 %

16. 다음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고민이 있을 때 가족과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친구나 연인과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고민이 있을 때 교수님과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고민이 있을 때 학내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변 사람에게 고민이 있을 때 의논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여러분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한 학기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1~2줄)

IV. 환경: 서울대의 문화와 인식

18~24. 서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고르십시오.

	← →					
독립적인	①	②	③	④	⑤	관계지향적인
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역동적인
동질적인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경쟁하는	①	②	③	④	⑤	협동하는
수직적 문화의	①	②	③	④	⑤	수평적 문화의
진지한	①	②	③	④	⑤	재미있는
안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도전적인

25. 서울대에는 20,000여 명의 학부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 기회에 대해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해주는 각종 교류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성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팀플, 그룹활동, 식사 등)	①	②	③	④	⑤
외국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정치적 견해가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공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학번이 다른 학우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이번 학기에 서울대에서 다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음	매우 드물게	가끔	자주	일상적 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이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조건(성별, 국적,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 등)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이 조건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다른 사람을 조건 때문에 무시하거나 차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언어/행동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음에 대해 얼마나 동의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 한다
서울대는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권리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대는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학문공동체이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대는 의견 수렴과 소통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대는 국제화에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대 캠퍼스들은 안전한 생활공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대 학생들은 한국과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대는 인류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여러분의 서울대 생활 전반과 관련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질문, 칭찬, 문제 제기, 개인적인 고민 등)

29. 서울대 학부생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제안해 주십시오. (1~2줄)

V. 인적 사항

30. 귀하의 현재 재적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재학생 (2) 휴학생 (3) 수료생 (4) 교환/방문학생

31. 귀하의 학번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2019학번 (2) 2018학번 (3) 2017학번 (4) 2016학번 (5) 2015학번
(6) 2014학번 (7) 2013학번 (8) 2012학번 (9) 2011학번 (10) 기타 -----

32. 귀하는 서울대에서 몇 학기를 마쳤습니까?

1. 정규학기

- (1) 0학기(2019년 2학기 신입생) (2) 1학기 (3) 2학기 (4) 3학기
(5) 4학기 (6) 5학기 (7) 6학기 (8) 7학기 (9) 8학기
(10) 9학기 (11) 10학기 (12) 11학기 (13) 12학기 (14) 13학기 이상

33.

2. 계절학기

- (1) 해당 없음 (2) 1학기 (3) 2학기 (4) 3학기 (5) 4학기
(6) 5학기 (7) 6학기 (8) 7학기 (9) 8학기 이상

34. 귀하의 소속대학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인문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자연과학대학 (4) 간호대학
(5) 경영대학 (6) 공과대학 (7) 농업생명과학대학 (8) 미술대학
(9) 사범대학 (10) 생활과학대학 (11) 수의과대학 (12) 약학대학
(13) 음악대학 (14) 의과대학 (15) 자유전공학부 (16) 치의학대학원(학사과정)

35. 귀하는 현재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단일(심화)전공 (2) 복수전공 (3) 주전공/부전공
(4) 학생설계전공 (5) 교환/방문학생 (6) 선택예정

36. 귀하의 법적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성 (2) 여성

37. 귀하의 국적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대한민국 (2) 가나 (3) 그리스 (4) 나이지리아
(5) 남아프리카공화국 (6) 네덜란드 (7) 네팔 (8) 노르웨이
(9) 뉴질랜드 (10) 니카라과 (11) 대만 (12) 덴마크
(13) 독일 (14) 라오스 (15) 러시아 (16) 레바논

- | | | | |
|--------------|--------------|-------------|----------------|
| (17) 레소토 | (18) 루마니아 | (19) 르완다 | (20) 리비아 |
| (21) 리투아니아 | (22) 말레이시아 | (23) 멕시코 | (24) 모로코 |
| (25) 모잠비크 | (26) 몰디브 | (27) 몽골 | (28) 미국 |
| (29) 미얀마(버마) | (30) 바베이도스 | (31) 방글라데시 | (32) 베네수엘라 |
| (33) 베트남 | (34) 벨기에 | (35) 벨라루스 | (36) 보츠와나 |
| (37) 볼리비아 | (38) 부탄 | (39) 불가리아 | (40) 브라질 |
| (41) 브루나이 | (42) 사우디아라비아 | (43) 세네갈 | (44) 수단 |
| (45) 스리랑카 | (46) 스웨덴 | (47) 스위스 | (48) 스페인 |
| (49) 슬로바키아 | (50) 시리아 | (51) 싱가포르 | (52) 아랍에미리트 |
| (53) 아르메니아 | (54) 아르헨티나 | (55) 아이티 | (56) 아일랜드 |
| (57) 아제르바이잔 | (58) 아프가니스탄 | (59) 알바니아 | (60) 알제리 |
| (61) 에스토니아 | (62) 에콰도르 | (63) 에티오피아 | (64) 엘살바도르 |
| (65) 영국 | (66) 예멘 | (67) 오스트리아 | (68) 요르단 |
| (69) 우간다 | (70) 우루과이 | (71) 우즈베키스탄 | (72) 우크라이나 |
| (73) 이라크 | (74) 이란 | (75) 이스라엘 | (76) 이집트 |
| (77) 이탈리아 | (78) 인도 | (79) 인도네시아 | (80) 일본 |
| (81) 잠비아 | (82) 조지아 | (83) 중국 | (84) 짐바브웨 |
| (85) 체코 | (86) 칠레 | (87) 카메룬 | (88) 카자흐스탄 |
| (89) 캄보디아 | (90) 캐나다 | (91) 케냐 | (92) 코소보 |
| (93) 코스타리카 | (94) 코트디부아르 | (95) 콜롬비아 | (96) 콩고 |
| (97) 콩고민주공화국 | (98) 쿠바 | (99) 크로아티아 | (100) 키르기스스탄 |
| (101) 탄자니아 | (102) 태국 | (103) 터키 | (104) 투르크메니스탄 |
| (105) 튀니지 | (106) 파나마 | (107) 파라과이 | (108) 파키스탄 |
| (109) 팔라우 | (110) 페루 | (111) 포르투갈 | (112) 폴란드 |
| (113) 프랑스 | (114) 피지 | (115) 핀란드 | (116) 필리핀 |
| (117) 헝가리 | (118) 호주 | (119) 홍콩 | (120) 기타 ----- |

38.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없음 (2) 여행 (3) 1달 이내 단기연수 또는 봉사활동(국제협력본부, 글로벌사회
공헌단, 각 단과대학 프로그램 등)
(4) 1학기 교환/방문학생 (5) 1년 교환/방문학생 (6) 대학 입학 전 1년 이내 거주
(7) 대학 입학 전 1년 이상 거주 (8) 해외에서 출생하고 성장 (9) 대학 입학 (10) 기타 ---

39. 귀하의 현재 주거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교내 기숙사 (2) 교외 기숙사 (3) 하숙 (4) 자취
(5) 쉐어하우스 (6) 부모님 댁 (7) 형제, 친구와 함께 거주 (8) 기타 -----

기프트콘 발송과 경품 추첨을 위한 연락처(핸드폰번호)를 적어주세요. (예: 010-1234-5678)

다음 페이지에 '설문종료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의 개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팀: 구민교(국제협력본부장), 이정희(국제협력본부 담당관), 남성현(관악학생생활관 부관장), 장지선(관악학생생활관 대표조교), 김동일(대학생활문화원장), 윤숙경(대학생활문화원 전문위원), 남지은(대학생활문화원 직원), 이상원(인권센터장), 이주영(인권센터 전문위원), 박성춘(윤리교육과 교수), 유명순(보건대학원 교수), 홍기선(다양성위원회 위원장), 배유경(다양성위원회 책임전문위원), 전은선(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울(다양성위원회 직원), 서은수(보건대학원 대학원생), 송민해(심리학과 대학원생)

학생 자문위원: 김은송(인문계열), 남수연(경제학부), 노오경(서양학과), 도정근(물리천문학부), 문지운(의예과), 박연정(경제학부), 이태경(정치외교학부), 이하영(사회교육과), 이학건(사회복지학과), 조아현(자유전공학부), 카림 카릴(기계항공공학부), 허예진(국사학과), 홍영은(물리천문학부)

교수 자문위원: 강상경(사회복지학과), 김은미(언론정보학과), 유재준(물리천문학부), 최인철(심리학과)

설문조사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880-2015, diversity@snu.ac.kr)로 연락주시시오.

[부록3]

SNU Undergraduate Quality of Life Survey

Greetings, undergraduate students!

The goals of this survey ar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SNU's under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your lives. Five SNU bodie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 Gwanak Residence Halls, Diversity Council, Center for Campus Life and Culture, Human Rights Center) jointly developed its questions, using existing Korean and international surveys for reference.

The survey has four parts: 1) Overall Quality of Life; 2) Personal Growth; 3) University Living; and 4) Environment. Your responses will be processed anonymously and used only as data for analysis. The entire survey should take about 10 minutes to complete, and we are offering participants the following rewards:

(1) All participants: A 5,000-won mobile gift certificate for coffee.

(Note: this requires providing your phone number.)

(2) 20 participants chosen by drawing: AirPods

(Note: only participants who answer at least 4 of the 5 open-ended questions will be entered into the drawing.)

We will study your responses carefully and work hard to ensure that they are reflected in future university policies. It is important to us that your life at SNU be happy and healthy!

(The survey can be taken on a desktop/laptop computer or a mobile device, but it is optimized for desktop/laptop computers, so we recommend taking it that way.)

I. Overall Quality of Life

1.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is used around the world to measure life satisfaction. Please select the option that best describes your level of agreement with each statement.

	Strongly disagree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lightly agree	Agree	Strongly agree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excell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 am satisfied with my li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For each statement, please choose the answer that most closely matches your thoughts about your overall life at university.

	Strongly disagree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lightly agree	Agree	Strongly agree
Overall, my life at university is close to my ideal version of i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hrough my studies and diverse experiences, I am achieving well-rounded growth.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 am living in a way that is healthy for my body and min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SNU is a good environment for achieving personal growth and living healthil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pride about SNU.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Choose or write three words that best describe your favorite version of yourself.

warm-hearted	unique	diligent	cheerful	emotional
rational	high self-esteem	open-minded	positive	strong-willed
free-spirited	passionate	creative	individualistic	careful
eccentric	cold-hearted	other ----	other ----	other ----

4. Choose or write the three things that you consider most important in your life.

being considerate	justice	wealth	freedom	love
honor	harmony	autonomy	stability	challenge
fairness	accomplishment	integrity	trust	relationships
truth	fun	other _____	other _____	other _____

5. Please express your thoughts these days in the form of a hashtag (for example #whatsforlunch #autumn #wanderlust...).

#

II. Personal Growth: Academics and Diverse Experiences

6. The acquisition of the following knowledge, skills, abilities, and attitudes is the goal of undergraduate education shared by many of the world's universities, including SNU. How well do you think you are progressing in terms of each?

■ Knowledge and Skills

	Very poorly	Poorly	Neither well nor poorly	Well	Very well
Broad and diverse knowledge (e.g. liberal arts subjects)	①	②	③	④	⑤
In-depth knowledge (e.g. major/minor field subjects)	①	②	③	④	⑤
A macroscopic understanding of social change and the world	①	②	③	④	⑤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my career after graduation	①	②	③	④	⑤
Data analysis and computer skills	①	②	③	④	⑤
Foreign language skills	①	②	③	④	⑤
Writing skills	①	②	③	④	⑤

7.

■ Abilities and Attitudes

	Very poorly	Poorly	Neither well nor poorly	Well	Very well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①	②	③	④	⑤
The ability to synthesize diverse pieces of knowledge	①	②	③	④	⑤
Willingness to actively identify problems and boldly engage in problem-solving	①	②	③	④	⑤

A love of learning and a fiercely inquisitive spirit	①	②	③	④	⑤
Ethical and moral thinking ability and judgment	①	②	③	④	⑤
The ability to empathize and communicate	①	②	③	④	⑤
A sense of community and of responsibility to society	①	②	③	④	⑤
Understanding and being able to manage myself	①	②	③	④	⑤
The ability to flexibly resolve and recover from difficulties	①	②	③	④	⑤

8. Please choose the answer that best fits your experiences this semester. (Students who are on a leave of absence can respond based on what they experienced in their last semester of registra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I am actively participating in classes and feel intellectual enjoyment during them.	①	②	③	④	⑤
I am making use of other SNU educational programs (e.g. overseas experiences, Student Directed Education Program, Writing Center, etc.)	①	②	③	④	⑤
I am enjoying doing personal research and reading apart from that required for classes.	①	②	③	④	⑤
I am participating in a group activity in or outside of school (student club or student association activities, community service, social activism, etc.).	①	②	③	④	⑤
I am spending time in enjoyable ways such as hanging out with friends, pursuing hobbies, doing cultural activities, or taking a rest.	①	②	③	④	⑤
I am experiencing both large and small failures, and boldly forging my own path.	①	②	③	④	⑤

9. What do you think will be your first step after graduating from SNU?

Going to graduate school (in Korea)	Going to a professional school (in Korea)	Going to graduate school (outside of Korea)	Becoming a civil servant
Working at a corporation (public or private)	Founding a business start-up	Going into the arts	Working in the education field

Becoming a freelancer or otherwise self-employed (for example, social media vlogger)	Going into politics / civic activism	Working in the media field	Working in the medicine field
Taking a specialized professional job (such as accountant)	Doing international activities (such as working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decided	Other _____

10. In your life up to this point, what kind of experience has led to the most personal growth for you? (1 to 2 sentences)

III. University Liv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11. This semester, how many hours a week do you spend doing the following activities on average? (Assume it is a normal week, not an exams week. If something could be included in more than one activity category, please count it only once, and write "0" for activities you did not spend any time doing.)

Attending classes (including doing practical training and auditing classes)		hour(s)
Studying for classes (class preparation, review, assignments, team project meetings, etc.)		hour(s)
Engaging in study and activities unrelated to classes (individual study, reading, academic programs unrelated to classes, etc., including commute time)		hour(s)
Working at a part-time job in or outside of school (including preparation time and commute time)		hour(s)
Commuting to and from school		hour(s)
Sleep		hour(s)
Health care and relaxing (eating, exercising, engaging in hobbies, hanging out with friends, playing electronic games, using SNS, etc.)		hour(s)
Other (preparation time, etc.)		hour(s)
Total	168	hour(s)

12. Please choose the answer that best fits your experiences this semester. (Assume it is a normal week, not an exams week.)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I am taking good care of my health with regards to sleep, diet, exercise, etc.	①	②	③	④	⑤
I have time to rest and engage in leisure activities.	①	②	③	④	⑤
I am, in general, having no trouble keeping up with my tasks at hand.	①	②	③	④	⑤
I have felt burned out.	①	②	③	④	⑤
I am considering consulting a professional about symptoms of depression, or am receiving treatment for them.	①	②	③	④	⑤

13. Choose or write all answers that give you strength in your university life.

Family	Friends and/or romantic partner	Intellectual pleasures
Acknowledgment and compliments from others	A sense of development and achievement	Satisfactory grades
Feelings of connectedness and belonging to a community	Independence and freedom	Financial security
Hobbies	Religious activities	Volunteer work
Relaxation time	Hope for the future	The campus's nature areas and animals
Cultural activities	Belief in myself	Other _____

14. In general, how are you meeting your expenses this semester? The percentages in each section should add up to 100%. (Write "0" for fields that are not relevant to you.)

Tuition		
SNU scholarships (including tuition exemptions, SNU Foundation scholarships, work-study, etc.)		%
Outside scholarships (such as those offered by the government)		%
My family or guardian		%
Part-time work		%
My savings or loans		%
	Total	100 %

15.

All Other Expenses		
SNU or outside scholarships (Monthly Living Expenses Paid Scholarship, etc.)		%
My family or guardian		%
Part-time work		%
My savings or loans		%
Total		100 %

16. For each statement, please choose the answer that most closely matches your though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I can discuss my problems with my family.	①	②	③	④	⑤
I can discuss my problems with my friends or romantic partner.	①	②	③	④	⑤
I can discuss my problems with my professors.	①	②	③	④	⑤
I can make use of on-campus counseling centers when I have a problem.	①	②	③	④	⑤
When someone I know has a problem, I can listen and give them advice.	①	②	③	④	⑤

17. If you had a semester that you could spend entirely as you pleased, what would you do? (1 to 2 sentences)

IV. Environment: SNU's Culture and Thinking

18~24.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SNU's overall atmosphere by choosing a number for each pair of descriptors below.

	← →							
Independ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Relationship-oriented
Stati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ynamic
Homogeneou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iverse
Competitiv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ollaborative
Hierarchica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emocratic

Seriou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un
Stability-oriente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hallenge-oriented

25. SNU currently has about 20,000 undergraduate students. Pleas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describes your interaction opportunities with students of diverse conditions this semester. (Please think comprehensively about the various types of interactions that help us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I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students of a different gender from me (e.g. through team sports or games, group activities, or meals).	①	②	③	④	⑤
I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international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I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students of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physical conditions from me.	①	②	③	④	⑤
I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students with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views from me.	①	②	③	④	⑤
I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students in other majors.	①	②	③	④	⑤
I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students who entered SNU in a different year than I did.	①	②	③	④	⑤

26. How often have you experienced the following this semester at SNU?

	Never	Infrequently	Some-times	Often	Nearly daily
I was considerate and helpful to another person.	①	③	③	④	⑤
I witnessed or heard about another person being considerate and helpful to others.	①	③	③	④	⑤
Another person was considerate and helpful to me.	①	③	③	④	⑤
I felt that I was ignored or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my condition (gender, nationality, socioeconomic background, etc.)	①	③	③	④	⑤
I witnessed or heard about someone being ignored or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his/her condition.	①	③	③	④	⑤
I ignored or discriminated against another person because of his/her condition.	①	③	③	④	⑤
I was the target of inappropriate words/actions or was unfairly ordered around.	①	③	③	④	⑤

I witnessed or heard about another person being the target of inappropriate words/actions or being unfairly ordered around.	①	③	③	④	⑤
I directed inappropriate words/actions at someone or unfairly ordered them around.	①	③	③	④	⑤

27.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SNU embraces all of the members of its community and respects their rights.	①	③	③	④	⑤
SNU is an ethical and model academic community.	①	③	③	④	⑤
SNU places importance on communication and seeking opinions.	①	③	③	④	⑤
SNU is actively working to internationalize.	①	③	③	④	⑤
SNU's campuses are safe.	①	③	③	④	⑤
SNU graduates will be capabl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world.	①	③	③	④	⑤
SNU will continue to develop into a university that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humanity's future.	①	③	③	④	⑤

28. If you have anything else (questions, compliments, complaints, personal concerns, etc.) to share about your life at SNU overall, please write it down below.

29. Please recommend one thing you think would be most helpful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SNU's undergraduate students. (1 to 2 sentences)

V. Personal Information

30. What is your current enrollment status?

- (1) Enrolled student (2) Student on a leave of absence (3) Degree candidate

31. In what year did you begin attending SNU?

- (1) 2019 (2) 2018 (3) 2017 (4) 2016 (5) 2015
 (6) 2014 (7) 2013 (8) 2012 (9) 2011 (10) Other ----

32. How many semesters have you completed at SNU?

1) Regular sessions

- (1) 0 (entered SNU in the 2nd semester of 2019) (2) 1 (3) 2 (4) 3 (5) 4
 (6) 5 (7) 6 (8) 7 (9) 8 (10) 9 (11) 10 (12) 11 (13) 12 (14) 13 or more

33.

2) Summer/Winter sessions

- (1) None (2) 1 (3) 2 (4) 3 (5) 4 (6) 5 (7) 6 (8) 7 (9) 8 or more

34. Which SNU college or school do you attend?

- (1) College of Humanities (2) College of Social Sciences (3) College of Natural Sciences (4) College of Nursing
 (5)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6) College of Engineering (7)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8) College of Fine Arts
 (9) College of Education (10) College of Human Ecology (11)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12) College of Pharmacy
 (13) College of Music (14) College of Medicine (15) College of Liberal Studies (16) School of Dentistry (undergraduate course)

35. What kind of degree program are you currently doing? (Multiple answers allowed)

- (1) Single major (2) Double major (3) Major/Minor
 (4) Student-designed major (5) Undecided

36. What is your legal sex?

- (1) Male (2) Female

37. What is the country of your nationality? (Multiple answers allowed)

- (1) Republic of Korea (2) Ghana (3) Greece (4) Nigeria
 (5) Republic of South Africa (6) Netherlands (7) Nepal (8) Norway
 (9) New Zealand (10) Nicaragua (11) Taiwan (12) Denmark
 (13) Germany (14) Laos (15) Russia (16) Lebanon
 (17) Lesotho (18) Romania (19) Rwanda (20) Libya
 (21) Lithuania (22) Malaysia (23) Mexico (24) Morocco
 (25) Mozambique (26) Maldives (27) Mongolia (28) United States of America
 (29)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30) Barbados (31) Bangladesh (32)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 | | | | |
|--|-----------------------------------|------------------|-------------------------------|
| (33) Vietnam | (34) Belgium | (35) Belarus | (36) Botswana |
| (37) Bolivia | (38) Bhutan | (39) Bulgaria | (40) Brazil |
| (41) Brunei | (42) Saudi Arabia | (43) Senegal | (44) Sudan |
| (45) Sri Lanka | (46) Sweden | (47) Switzerland | (48) Spain |
| (49) Slovakia | (50) Syria | (51) Singapore | (52) United Arab
Emirates |
| (53) Armenia | (54) Argentina | (55) Haiti | (56) Ireland |
| (57) Azerbaijan | (58) Afghanistan | (59) Albania | (60) Algeria |
| (61) Estonia | (62) Ecuador | (63) Ethiopia | (64) El Salvador |
| (65) United Kingdom | (66) Yemen | (67) Austria | (68) Jordan |
| (69) Uganda | (70) Uruguay | (71) Uzbekistan | (72) Ukraine |
| (73) Iraq | (74) Iran | (75) Israel | (76) Egypt |
| (77) Italy | (78) India | (79) Indonesia | (80) Japan |
| (81) Zambia | (82) Georgia | (83) China | (84) Zimbabwe |
| (85) Czech Republic | (86) Chile | (87) Cameroon | (88) Kazakhstan |
| (89) Cambodia | (90) Canada | (91) Kenya | (92) Kosovo |
| (93) Costa Rica | (94) Republic of Cote
d'Ivoire | (95) Colombia | (96) Republic of the
Congo |
| (97)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98) Cuba | (99) Croatia | (100) Kyrgyzstan |
| (101) Tanzania | (102) Thailand | (103) Turkey | (104) Kyrgyzstan |
| (105) Tunisia | (106) Panama | (107) Paraguay | (108) Pakistan |
| (109) Palau | (110) Peru | (111) Portugal | (112) Poland |
| (113) France | (114) Fiji | (115) Finland | (116) Philippines |
| (117) Hungary | (118) Australia | (119) Hong Kong | (120) Other ----- |

38. Including your current stay in Korea, have you traveled, studied or lived outside of your country of nationality? Mark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s that you have had outside of your country. (Multiple answers allowed)

- (1) None (2) Travel
- (3) An academic training or volunteer work for one month or less (like the programs operated by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SNU's colleges)
- (4) Exchange/visiting student for one semester (5) Exchange/visiting student for a year
- (6) Lived outside of my country for less than one year before entering university
- (7) Lived outside of my country for more than one year before entering university
- (8) Born and raised outside of my country of nationality
- (9) Enrolled in university (10) Other -----

39. What is your current living situation?

- (1) On-campus dormitory (2) Off-campus dormitory (3) Boarding house
(*ha-sook*)
- (4) Living alone (5) Living with housemates/flatmates who aren't my
siblings or friends
- (6) Living with my parents (7) Living with my siblings or friends (8) Other -----

Phone number (for issuance of mobile gift certificate) (e.g. 010-123-4567):

To submit the survey, you must click “END” on the next page.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

We thank the following people for reviewing initial drafts of this survey.

연구개발팀: 구민교(국제협력본부장), 이정희(국제협력본부 담당관), 남성현(관악학생생활관 부관장), 장지선(관악학생생활관 대표조교), 김동일(대학생활문화원장), 윤숙경(대학생활문화원 전문위원), 남지은(대학생활문화원 직원), 이상원(인권센터장), 이주영(인권센터 전문위원), 박성춘(윤리교육과 교수), 유명순(보건대학원 교수), 홍기선(다양성위원회 위원장), 배유경(다양성위원회 책임전문위원), 전은선(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울(다양성위원회 직원), 서은수(보건대학원 대학원생), 송민해(심리학과 대학원생)

학생 자문위원: 김은송(인문계열), 남수연(경제학부), 노오경(서양학과), 도정근(물리천문학부), 문지운(의예과), 박연정(경제학부), 이태경(정치외교학부), 이하영(사회교육과), 이학건(사회복지학과), 조아현(자유전공학부), 카림 카릴(기계항공공학부), 허예진(국사학과), 홍영은(물리천문학부)

교수 자문위원: 강상경(사회복지학과), 김은미(언론정보학과), 유재준(물리천문학부), 최인철(심리학과)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opinions to share about this survey, please contact the SNU Diversity Council.

* Office: 880-2015

* E-mail: diversity@snu.ac.kr